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둥이 처녀담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은 우

여항인물전을 활용한 전기(傳記)문학 교육 방안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은 우

인 준 서

이은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이
치년담
연구

이
은
우

논문개요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둥병은 불치의 유전병으로 여겨졌다. 신체가 훼손되며 긴 투병 기간을 갖는 특징으로 인해 문둥이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소외와 천대의 낙인으로 인식되었다. 문둥병의 특성에 이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많은 문학 작품이 발생하였는데, 설화도 예외는 아니어서 『구비문학대계』에는 60여 편에 이르는 문둥이담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둥이담을 위한 분류 항목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2장에서는 문둥병이 독립된 질병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조선시대의 역사적·의학적 자료를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문둥병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고 이것이 문둥이담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3장에서는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문둥이담의 내용을 종합하여 문둥병·문둥병의 치유·치유자와의 결연·치유자에 대한 보은 등의 네 가지 모티프를 추출하고 이들의 결합을 통해 문둥이담의 양상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문둥이 처녀담은 작품에 등장하는 문둥이의 성별의 차이를 떠나 문둥이담의 핵심 구조를 고루 갖추며 다른 이야기와 변별되는 뚜렷한 주제의식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둥이 처녀담은 결핍이 있는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문둥이 처녀와 만나 인연을 맺고 문둥병을 치유해준다. 병이 나은 처녀는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상봉하고 남자 주인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보은을 통해 결핍을 해소시킨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4장에서는 문둥이 처녀담을 결연과 치유, 보은의 세 가지 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사 전개는 문

동이 처녀와 남자 주인공의 절연 위기의 극복 유무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남자 주인공의 직업, 문동이 처녀와의 결연 장소, 치유 음식의 제공, 가족 상봉 과정, 보은 양상 등 서사 단락 전반에 고루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문동이 처녀담은 남자 주인공의 선행이 계기가 되어 문동병이 치유되며, 이를 매개로 남자 주인공의 지위 상승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신분 계층의 상하 이동이 이루어지고 부유함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는 조선 후기의 시대상이 담겨 있다.

5장에서는 문동이 처녀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문 소설 「여선담전」을 다룸으로써 문동이 모티프가 오랜 생명력을 갖고 꾸준히 향유·전승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화의 범주인 문동이담이 통과제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치유담을 위주로 향유되었지만, 소설 「여선담전」은 문동병이 나온 처녀의 보은담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설화에서 소설로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독자층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이 규명하고자 했던 문동이 처녀담의 형성 배경이 된 사회적 인식과 존재 양상, 문학적인 의의와 소설로의 변이를 요약 정리하였다.

핵심어 : 문동이, 문동병, 나병, 문동이담, 문동이 처녀담, 여선담전, 결연담, 보은담, 치부담

목 차

논문 개요

| | |
|--------------------------------------------------|----|
| 1. 서론 | 1 |
| 2. 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 5 |
| 3. 문둥이담의 전승 양상 | 17 |
| 3.1 문둥이담의 전승 양상 | 17 |
| 3.1.1 문둥이를 경험하는 이야기 : [문둥병] | 17 |
| 3.1.2 문둥이가 치유되는 이야기 : [문둥병+ 치유] | 21 |
| 3.1.3 병이 나온 문둥이가 보은하는 이야기 : [문둥병+ 치유+ 보은] | 26 |
| 3.1.4 열녀가 문둥이 남편을 치유하는 이야기 : [결연+ 문둥병+ 치유] | 30 |
| 3.2. 문둥이 처녀담에서의 전승 양상 | 44 |
| 3.2.1. 각편의 존재 양상 | 45 |
| 3.2.2. 각편의 서사 단락 | 47 |
| 4. 문둥이 처녀담의 구조적 틀과 의미 | 60 |
| 4.1. 결연담 | 60 |
| 4.2. 치유담 | 71 |
| 4.3. 보은담 | 82 |
| 5. 문둥이 처녀담의 소설화 「여선담전」 | 92 |

| | |
|----------------------------------|-----|
| 5.1. 『여선담전』의 서지적 이해 | 92 |
| 5.2. 여선담전의 서사단락 소개 | 93 |
| 5.3 문둥이 처녀담과 「여선담전」의 비교 고찰 | 96 |
| 5.3.1 결연담 | 103 |
| 5.3.2 치유담 | 105 |
| 5.3.3 보은담 | 106 |
| 6. 결론 | 111 |

별첨 자료 [문둥이담 분포도]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문둥병은 희생의 방도가 없는 불치의 병이었다. 몸이 짓무르고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증세를 갖는데다 타인에게 전염되기까지 하는 특성으로 인해 문둥병은 수백년 동안 질병의 이름인 동시에 소외와 천대를 뜻하는 낙인이기도 했다. 문둥병이 갖는 강렬한 상징성은 문학에서도 그대로 차용되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낳았다. 설화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비문학대계』에는 약 60여 편의 문둥이 관련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구비문학대계』의 별책본인 설화 유형 분류집에 따르면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 (병 고친) 열녀>, <우연히 만든(얼은) 약으로 사람 살리기>,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지나가다 만난 남녀 인연 맺고 잘되기>, <자식 죽여 남편 받들기>, <보은 받아 부귀얻기>, <다른 사람 대신 장가 가서 잘 되기>, <이인으로 바뀐 못난 친척> 등의 항목을 빌어 실려 있다.

그러나 이들 분류 항목은 문둥이 관련 설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특성에만 주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 (병 고친) 열녀>와 <자식 죽여 남편 받들기>에는 열녀 이야기에 관련된 문둥이담이 수록되어 있다. 열녀담은 많은 선행 연구를 낳은 분야이니만큼 소개된 각편들의 면면이 비교적 공통적이지만, 많은 양의 각편이 문둥병을 소재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근거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 대신 장가 가서 잘 되기>에도 대리 장가 모티프가 등장하는 문둥이담이 담겨 있지만, 대리 장가 모티프가 삽입된 문둥이 각편의 일부에 불과하여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

<우연히 만든(얼은) 약으로 사람 살리기>와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는 문둥병의 치유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킨 분류 항목이다. 그러나 치유의 계기가 되는 ‘영똥한 음식’과 ‘우연히 만든(얼은) 음식’간의 변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의 경우 ‘영똥한 음식’으로 지칭되는 소재가 뱀이나 이무기, 천년 묵은 지렁이, 가물치, 물고기, 비상 등으로 일관성 없이 혼재할 뿐 아니라 영똥하다기보다 신이한 경우 많아 분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점은 항목명 소개란이다.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에는 괄호를 통해 “문둥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612-1 항목을 참조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612-1에 해당하는 항목은 <고귀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며, 여기에 포함된 각편 중 문둥이담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원래의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에 실려 있는 각편 16개 중 15개가 문둥이담에 해당한다. 비단 문둥이담 연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원활한 설화 연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가다 만난 남녀 인연 맺고 잘되기>는 문둥이와의 만남과 결연 부분에 주목한 항목이며 남자 주인공이 길에서 문둥이 처녀를 만나 인연을 맺는 내용의 각편 두 개가 실려 있다. 하지만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다른 각편들이 누락되어 있어 혼란을 준다. <보은받아 부귀 얻기>는 병이 나은 문둥이가 행하는 보은에 주목하였지만, 문둥이의 보은으로 부귀를 얻는 내용의 무수한 각편들이 배재되어 있다.

<이인으로 바뀐 못난 친척>은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과 보은의 계기가 되는 풍수담에 주목한 분류이다. 그러나 기타 풍수담과 결합한 문둥이담은 제외되었으며 명당 자리를 알아 본 이인에만 주목한 분류이기에 문둥이담

의 특성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둥이 소재 설화가 기타 설화와 구별되는 뚜렷한 존재 양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구비문학대계』의 수록 양상에서 알 수 있듯 문둥이담에 대한 분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둥이와 문둥이 처녀가 작품의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각각 문둥이담과 문둥이 처녀담으로 칭한다¹⁾. 문둥병과 문둥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실로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문둥병과 나병을 위시하여 대풍라, 대풍창, 대풍, 악질, 악병, 풍병 등의 이름이 존재한다. 문둥이를 지칭하는 말로는 ‘- 병 환자’와 용천배기, 풍짜 등의 명칭과 보황 문둥이, 보리 문둥이 등의 호칭도 등장한다. 문둥병과 문둥이란 용어에 담긴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현대에는 문둥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세상에 소개한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과 한센인으로 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한센병과 한센인이라는 용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문둥병과 문둥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민중들이 향유하던 설화의 대부분이 문둥병과 문둥이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둥이 설화의 어감을 보다 충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둥이 처녀담의 존재 양상과 주제 의식을 논하는 것이다. 설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문둥병과 문둥이가 동서양 사회 문화 전반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문둥병을 독립된 질병으로 처음 인지하기 시작한 조선시대의 기록물이 중심이 되었다. 이후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문둥이담을 찾아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문둥이담의 공통된

1) 문둥이담은 문둥이 처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조를 추출하였다. 문둥병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병의 치유 양상, 치유자와의 결연 양상, 치유자에 대한 보은 양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문둥이담의 갈래를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의 주가 되는 문둥이 처녀담이 결연과 치유, 보은이라는 문둥이담의 주요 모티프를 모두 확보하며 다른 설화와 대비되는 뚜렷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둥이 처녀담의 논의는 여기에 속하는 12개 각편의 서사 단락을 제시하여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본격화된다.

4장은 문둥이 처녀담을 구성하는 결연과 치유, 보은의 세 가지 틀을 통해 문둥이 처녀담이 구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과 각 서사 단락이 구조와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둥이 처녀담은 설화의 형태에서 나아가 장르를 달리한 고전소설의 형태로도 향유된다. 5장은 문둥이 처녀담과 유사한 고전소설 「여선담전」을 소개하고 문둥이 처녀담 중 형태가 유사한 각편 2개를 선정하여 함께 비교 고찰하였다. 설화와 소설의 교섭 양상을 살펴보고 소설로 창작될 만큼 많은 향유층을 확보한 문둥이 처녀담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문둥이 처녀담의 특성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문둥이 처녀담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한다.

2. 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문둥병을 하나의 독립된 질병으로 인지하였으며, 문둥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남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둥이담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역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둥이담 형성의 배경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둥병은 심한 악취와 종기를 가지며 살점이 문드러지고 떨어져나가는 증세를 갖는 전염병이다.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문둥이는 동정을 받기 보다는 혐오와 박해의 대상이었다. 문둥이는 문둥병에 걸린 순간부터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치유의 희망 없이 질병의 고통과 소외된 자의 외로움과 겪어야 했다. 또한, 문둥병은 발병 이후 사망에 이르는 투병 기간이 수 년에서 수 십 년에 이른다.

반면 다른 전염병의 경우 발병 후 수 일만에 사망한다. 조선 시대에 가장 큰 사상자를 낳았던 역병의 경우 고을과 도시를 전멸시킬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다. 조선 사람들은 역신(귀)의 강림이나 손님의 방문으로 표현하고 제사나 굿으로 달래주었다. 질병 자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시간에 무수한 사망자가 발생해서 개별화 된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역병에 대한 공포는 이를 다른 문학적 가공을 이루어 낼 만한 심리적 여유를 허락지 않았을 터이다. 홍진과 풍진 등의 병은 역병에 비해 비교적 친숙하며 두려움에 대한 강도도 적지만 전염성이 강하기는 매한가지다. 발병 순간 완전 격리되기 때문에 개별 환자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쉽지 않다.

즉, 문둥병은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인식되는 증세를 가졌으며 병균의 체내 잠복 기간과 투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학적 형상화가 용이하다. 때문에 가면극을 위시한 많은 설화에서 중심 소재로 등장한다.

문둥병이 독립된 질병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이다. 나병, 대풍창 등의 구체적인 용어로 지칭되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문둥병이나 문둥이를 칭하는 용어는 가라(痲癩), 풍병(風病), 대풍라(大風癩), 악병(惡病), 한센병²⁾, 용처배기, 풍짜 등으로 다양하다. 이후 1871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에 의해 신의 징벌이 아닌 병원균에 의한 병임이 밝혀지면서 문둥이란 호칭에 담긴 부정적 인식을 거세하고 한센병으로 거듭난다.³⁾

우리나라의 군역에 관한 법률은 당률(唐律)의 영향을 받아 확립되어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조선의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경국대전』 「병전(兵典)」 면역(免役)조에서 질병은 경중에 따라 중한 정도에서부터 독질(毒疾), 폐질(廢疾), 잔질(殘疾)로 나누었다. 독질은 매우 심한 증병을 뜻하며 고칠 수 없는 병인 폐질보다 한 등급 높은 장애이다. 나병은 조울증과 광증, 양쪽 눈이 먼 맹인, 사지 중 둘이 절단된 경우와 함께 이에 속한다. 폐질로는 백치, 병어리, 난쟁이, 꼽추, 사지 중 하나를 못 쓰는 경우 등이 규정된다. 폐질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인 잔질은 몸에 병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한 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 양쪽 귀가 안 들리는 경우, 손가락 2개 또는 발가락 3개가 없는 경우, 손이나 발에 엄지가 없는 경우, 머리에 부스럼이 생겨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구루병, 배에 덩어리가 진 병, 목과 발에 혹이 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당나라는 잔질의 경우에도 군역을 면제했지만, 조선은 독질과 폐질의 경우에만

2) 1871년 나병균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딴 용어로, 현재 나병의 공식적인 병명으로 사용된다.

3)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채록된 설화 및 언중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문둥병으로 일원화한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잔질은 면제에서 제외하였다⁴⁾. 나병은 이렇듯 엄격한 균역법에 의해서도 면제 대상 첫 손에 꼽히는 중한 질병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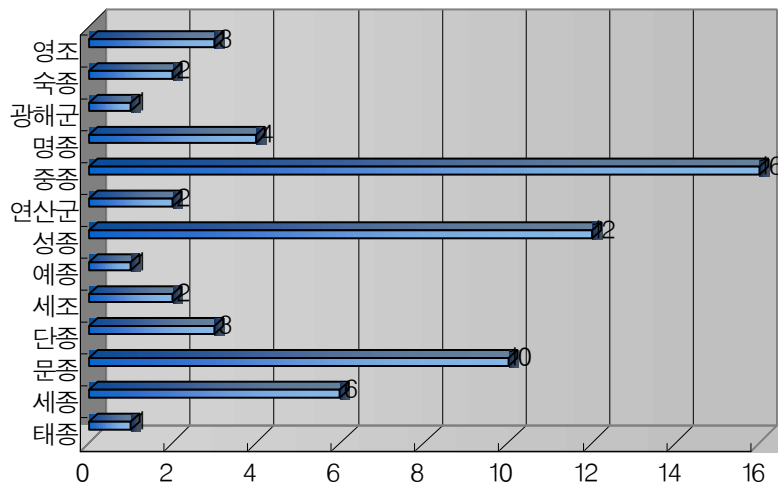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에도 문둥병에 관한 크고 작은 기록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나병·나질이나 대풍창처럼 직접적으로 문둥병을 지칭하는 11회의 기록과, 악병(惡病)처럼 간접적으로 문둥병을 지칭하는 64회의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악병으로 언급된 64회의 기록 중 문둥병이란 고유 명사가 아닌 나쁜병이란 의미의 통칭이나, 기타 질병을 뜻하는 경우로 추정되는 11회⁵⁾와, 여역을 문둥병이라 오역(誤譯)한 것으로 보이는 1회를⁶⁾ 제외하면 『조선왕조실록』에 문둥병은 총 63회 언급된다. 적지 않은 이들 기록을 통해 문둥병에 관한 조선인들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현숙, 「몸, 질병, 권력 :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6, 2003.

5) 세종 22년과 31년에 혼인 문제와 관련하여 ‘악병이 있는 집안의 여자는 제외한다’와 같은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 3건(4집 274쪽, 5집 122쪽, 5집 122쪽), 세종 31년 대마도의 모습을 전하면서 ‘사람이 악질이 많고, 큰 바람과 큰 비가 많아 벼곡식이 익지 않는다’라고 기록한 1건(5집 148쪽), 성종 10년 제안대군의 부인의 오랜 병을 논하면서 칠거지악 중 하나로 악질을 꼽은 1건(10집 102쪽), 선조 31년과 33년 대신 이유중(李有中)의 뱀뱀이를 평할 때 악질이 있다고 하나, 이유중에 대한 기록이 모두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벼슬 자리에 오랜 동안 머물렀음으로 미루어 문둥병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 4건(23집 172쪽, 23집 643쪽, 24집 51쪽, 25집 678쪽), 인조 12년과 숙종 4년 흉흉한 나라 사정을 악질에 걸린 사람으로 비유하여 기록한 2건(34집 551쪽, 38집 393쪽).

6) 중종 38년 각부에 여역이 유행하는데 병이 전염될까 두려워하여 구료(求療)하지 않는 의원들을 벌하라는 내용을 본문에서는 유행성 열병을 일컫는 여역으로 쓰고 제목에서는 이를 문둥병으로 썼다.(18집 677쪽)

조선왕조실록의 문둥이 관련 기록 분포 양상



| | 태종 | 세종 | 문종 | 단종 | 세조 | 예종 | 성종 | 연산군 | 중종 | 명종 | 광해군 | 숙종 | 영조 |
|----|----|----|----|----|----|----|----|-----|----|----|-----|----|----|
| 횟수 | 1 | 6 | 10 | 3 | 2 | 1 | 12 | 2 | 16 | 4 | 1 | 2 | 3 |

세종의 재위 기간이었던 1412년부터 광해군의 재위 기간인 1622년까지 약 200여년간 황해도를 중심으로 문둥병이 유행한다. 이로 인해 많은 기록에서 황해도 지역의 문둥병 진압을 위해 고심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세종 뿐 아니라 후대 왕들도 의원과 약재를 지원할 것을 명하고, 부족한 약재는 중국에서 틈틈이 구해오도록 하였으며, 문둥병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황해도 지역의 지방관을 임명하는 첫째 기준으로 고심하기도 한다. 특히 세종 실록에는 제주도에 문둥병이 유행하여 바닷가에 격리 시설을 마련해서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나병의 전염성을 심분 인식하였으며 이를 격리 치료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용된 나병환자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어 그들이 겪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외로움을 짐작케 한다.

문종대에도 제주에 설립되었던 수용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제주 목

사가 죽을 날만 속절 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질막(救疾幕)을 지어 간호했다고 기록했다. 이후 개성 일대에도 활민원을 수리하여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치료를 모색했다고 되어 있어 나병환자들이 가족을 떠나 집단 격리 생활을 했으며, 비록 뚜렷한 차도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문둥병에 관한 약간의 진료 혜택은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종은 각종 의료를 동원해도 황해 지역의 문둥병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경기 일대에도 문둥병이 퍼지자,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이 스스로 앞장서 수록재를 올린다. 수록재(水陸齋)란 고려 때부터 실시된 대표적인 불교의식으로, 물과 땅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푼다.⁷⁾ 수록재가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거니와 문종은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설혹 수록재가 직접적인 효험이 없을지라도 고통받는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면 자연 뜻이 통하리라는 절박한 바람으로 수차례의 의식을 행한다.

세조대에 이르러는 세조 자신이 문둥병이라고도 전해지는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신이 올린 온천이 발달한 온양 근처에 행궁을 건설하자는 내용의 기록이 눈에 띈다.

성종에 이르러서는 승유억불의 조선 건국 이념을 단호히 시행코자 하는 왕에 의지에 따라 수록재는 전면 금지된다. 불교를 이단시하며 어려운 때를 틈타 민심을 흥흥히 하는 미신을 타파하는 한편, 성종은 수차례 전염 지역에 사신을 보내어 문둥병의 원인과 증상·대책 등을 살펴보도록 지시하였다. 조선의 통치 질서의 근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던 시기이니만큼 당시의 기록은 문둥병의 원인과 경과 등에 정책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내용 또한 문둥병에 관한 실록의 기록 중 가장 체계적이고 자세하

7)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년, 120쪽 인용

다. 당대인들은 문둥병의 원인을 기한과 풍상 등의 의학적으로 파악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산세나 지형의 풍수, 민간에서는 절이나 성황당의 나무를 베어내거나, 전쟁에서 죽은 원혼들로 인해 발병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도 통용되었다. 연산군의 재위 기간에 기록된 실록의 2자료 중 하나도 성종의 뜻을 이어 수륙재와 같은 제사를 통해 문둥병을 퇴치하고자 하는 악습을 폐지하자는 신하들의 주장이 담겨 있다.

가장 짙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중종대에는 효행과 절행을 널리 알리는 내용이 대다수이다. 이는 연산군을 거치면서 보다 엄격해진 성리학적 윤리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나 할고를 통한 치병이 널리 회자되면서 산 사람의 간담과 손가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점차 널리 퍼지자 이를 위한 유괴나 살인 미수의 범죄가 종종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런 사건을 통해 문둥병과 관련해 인육을 먹는 카니발리즘에 대한 믿음이 팽배하였고 이런 양상은 문둥이담에도 연계되었을 터이다.

명종대에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한 살인 사건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한 사관은 실록에 할고와 단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데 ‘이는 지아비와 부모를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비록 명예를 위해 억지로 행하는 교활한 이들도 있겠지만 아비와 부모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일로 천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로 평하고 있어 당대의 가치관을 짐작케 한다.

광해군의 재위 기간에는 등장한 사료에는 역모죄의 혐의를 추궁할 때 죄인이 3대가 문둥병으로 죽었다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보아 문둥병을 유전병으로 오해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재위 기간에는 부사를 지냈던 어필원이 소 내장을 끊어 그 속에 자신의 몸을 넣어 나병균을 옮긴 후 그 고기를 푸줏간에 팔고, 인근 우물물을 두루 길어다가 문둥병 환부를 씻은 다음 그 씻은 물을 다시 우물에 쏟아부은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사실의 진위를 알 수 없지만, 고칠 수 없는 천형을 짊어진 문둥병 환자들이 병마와 세상에 대해 느꼈던 분노와 고통을 짐작케 한다. 또한 어필원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언급이 으로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면 자신의 병은 쾌유하며, 병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주술적 발상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서양 중세사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소외당했던 계급인 모슬렘·유대인·창녀·문둥이들이 우물에 병균을 풀었다는 사건이 등장하고, 가까운 근대에도 일본의 관동대지진 무렵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누명을 쓰고 대량 학살당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어필원 사건 역시 사실과 관계 없는 문둥병자들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헛소동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숙종의 재위 기간과 더불어 영조 재위 기간에도 문둥병으로 죽은 가족의 시체를 태운 죄로 외딴 섬에 유배되는 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문둥병의 전염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단순 격리에서 나아가 시신을 불태운 것이다. 전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시도된 방역책은 유교 가치관과 충돌한다.

1885년 미국 선교회의 주관으로 세워진 근대식 병원 제중원에 근무했던 미국인 의사 알렌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제중원에서 말라리아, 결핵, 나병, 매독 등의 병을 가장 많이 진료했다고 한다. 1990년대에도 나병 환자들의 소외된 삶을 읽을 수 있는 신문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근대 사회의 형성과 함께 대부분의 질병은 국가나 민족, 또는 종교조직의 신체의 정치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지만, 특히 콜레라, 말라리아, 매독,

결핵 등 몇몇 질병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매개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센병은 한편으로는 서구 의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질병이었다. 한센병은 유전설과 전염설의 논쟁에서 전염설이 승리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전병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구원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는 기독교적 질병관이 구래의 천형관과 결합하여 강력하게 뿌리 내렸다.⁸⁾

중세의 유럽에서도 문둥이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소외 집단이었다. 소외 집단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는 대상을 정형화시키기 십상이다. 정형화란 혼돈스러운 세계를 이해하기 쉬운 질서를 부여하고, 자아를 규정하고 공포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소외 집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세계에 대한 조악한 정신적 표상인 정형화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와 ‘소외 집단’의 차이는 영속화 된다. 소외 집단을 향한 부정적 정형과 기사와 성직자와 같은 긍정적인 정형처럼 정형화에 따른 사물의 이해는 세계와 신분의 서열화된 등급을 중시하던 중세에 더욱 당연시되었다. 특히 부정적 정형은 “개인들이 만들어 내면화한 정신적 표상의 잠재적 붕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어른들에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 구조나 이념에 대한 위협은, 그 위협을 구체화한 부정적 정형의 창조를 자극한다. 개인적 연약함에 대한 인식, 성의 중심적 역할, 더 큰 집단과의 관계에서 발현한 이러한 정형화 기제는 각기 질병과 성욕, 인종에 대한 부정적 정형을 창조하였다⁹⁾. 영국의 문화사학자 제프리 리처즈는 위와 같은 틀을 바탕으로 중세의 소외집단을 섹스라는 공통 기준아래 유대인, 마녀, 이단자와 같은 종교적 범주와, 동성애자, 창녀, 문둥이와 같은 성적 범

8) 정근식, 「동아시아 한센병사 연구를 위해서」, 『보건과 사회과학』 12집, 2002년, 5쪽.

9) Gilman, Sander L.(1985) *Difference and Pathology : the Stereotypes of Sexuality, Race and Madness*, New York.

제프리 리처즈, 유희수/조명동, 『중세의 소외집단』, 느티나무, 2003년, 40쪽 재인용

주로 그룹화하였다.

성서에 등장하는 나병은 히브리어의 ‘사라’(sāra‘at)이다. 성서학자 드라이버(Driver, 1970)와 스네이스(Snaith, 1967), 윌킨슨(Wilkinson, 1978) 등은 나병의 어원을 ‘붕괴하다’, ‘습격당하다’로 꼽으며 이는 본디 ‘하나님께 매를 맞다’라는 뜻을 칭한다고 풀이했다. 문둥이에게 지워진 짐의 무게는 동서를 막론하고 신이 내린 벌인 천형에 견주어질 만큼 고통스럽고 무겁다. 서양의 문둥병에 대한 대처 방안은 성경의 제사장을 위한 기록이란 뜻의 <레위기>에 근간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스라엘인(人)의 종교의식 · 예배 ·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는 나병환자를 부정한 자로 지목하고 격리할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처분은 문둥병을 전염병으로 인지하고 전염을 막기 위한 방도이기도 했지만 종교적인 거리감도 근거가 되었다. 성서에 등장하는 문둥이들 중 대부분¹⁰⁾이 교만, 비방, 욕심, 우상 숭배 등으로 신의 벌을 받아 병을 얻는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¹¹⁾.

12세기에 들어 도시가 발달하고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자, 종교는 흔들리는 가치관과 혼잡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친 공의회를 통해 “문둥이는 감염되지 않은 일반인과 같이 살 수 없으며, 교회에서 그들과 동석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격리와 부정의 의미가 강화되면서 전염을 막고자 하는 의학적인 목적은 희석되고, 교회의 출입 금지는 파문이라는 종교적인 부정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문둥이는 유대인의 원

10) 종교의 복음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신약 성서의 경우 문둥이는 예수나 그 제자들의 이적을 증거하는 장치로 등장하는 경향이 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의 기록의 역할을 했던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미리암(민수기), 게하지(열왕기하), 아사랴(열왕기하), 웃사랴(역대하) 등은 모두 신의 벌을 받아 문둥병을 얻는다.

11) Leprosy in the Bible, Stanley George Browne,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1970. 위 책은 정식으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나병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 손양원 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churchnet-kr.org/seongsan/index.htm>)를 통해 상당 부분 소개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논의의 많은 부분을 이 책에 의거한다.

형 배지, 창녀의 매듭끈 처럼 자신이 문둥이임을 드러내는 복장을 강요받았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노란 십자가 배지를 달거나, 문둥이의 첫 글자인 L자를 옷에 수놓거나, 전염을 막기 위해 고깔형 두건을 쓰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장갑을 끼야 하며 빨피리나 방울 등을 패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다. 문둥이로 판명되면 묘 안에 들어가 흙 세 삽을 던지거나, 사제의 의해 죽은 거나 진배 없다 라는 선언을 받는 격리 의식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당한 비인격자로 취급당했다. 수용소에 격리되지 않은 문둥이들은 더럽거나 불결한 사람을 뜻하는 카고(Cagot)로 불리며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중세 서양인들이 문둥이들을 혐오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도덕한 성과의 결합이다. 14세기 유럽의 영향력 있는 의사였던 귀 드 솔리악이 문둥병을 아주 해롭고 근본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으로 규정하고 “눈이 둥그스름해지고 머리 털, 특히 눈썹과 속눈썹이 빠지고 머리에 반점과 농포가 부풀고 콧구멍이 확장되고 입술이 붓고 목소리가 쉬고 숨과 몸에서 고약한 체취가 나고 호색한처럼 굳은 표정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결눈질이 소름끼친다”를 문둥병의 확실한 증세로 꼽았다. 문둥병이 발발한 초기에는 가택 연금을 시키고, 증세가 확실하면 나환자 수용소에 보내 사회에서 격리시켰다.

불결(不潔)의 의미가 부정(不正, 不貞)으로 전이되면서 과도한 성욕을 문둥병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문둥병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문둥이의 문란한 성본능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용소 법령이 정해졌다. 이런 편견은 성접촉의 매개체인 여성을 부도덕하고 열등한 존재로 비하시키는데 일조했다¹²⁾. 문둥병을 도덕적 결함, 특히 성규범 위반죄

12) 중세 유럽인은 여성을 문둥병 감염의 잠재적 진원으로 낙인찍었다. 월경 중인 여성과 성교를 할 경우 문둥병에 걸릴 수 있고, 만일 여성이 문둥이와 성교를 한다면 그 여성은 병균을 보유하고 있

에 대한 징벌로 규정한 예는 시인들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12세기의 궁정 연애담의 대표작인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예가 된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간통한 죄로 화형을 선고받은 이졸데 앞에 문둥이떼가 몰려든다. 그들 중 가장 일그러진 얼굴의 문둥이 대장 이벵은 왕에게 “죽음보다 더 치욕적인 삶으로 벌하는 방법 …… 왕비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시어 저희들 공동의 소유로 하여주옵소서! 저희들의 병이 오히려 욕정을 돋우나이다. 그녀를 전하의 문둥병자들에게 넘기소서!”¹³⁾라고 부탁한다.

발달되지 못한 의학 기술과 두려움 섞인 편견은 염증을 동반한 피부병을 문둥병과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매독으로 인한 염증과 고름은 문둥병과 외관상 병세가 비슷하였기에 문둥병을 성적 일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에 근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역시 몸이 문드러지는 증세의 매독을 문둥병과 비슷하게 생각했다. 나병 정도의 공포와 혐오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매독 역시 문둥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기에 사람을 헤쳐 간이나 성기를 먹는 등의 비슷한 풍습이 존재했다.¹⁴⁾

문둥병에 대한 천대와 혐오가 뿌리박힘에 따라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인물들의 전기적 민담에 멀시당하는 문둥이들을 보살피주는 내용이 차용된다. 방탕한 삶을 살다 혼자 힘으로 수도원을 짓고 평생을 나병환자를 돌보았다는 성 프란체스코, 사악한 문둥이 처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녀가 몸을 씻은 물을 마셨다는 성 카타리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상 간략하게 살폈듯이 문둥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포와 혐오의 대

다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다음 남자에게 병을 전염시킨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화된 통념이었기 때문이다.

-제프리 리처즈, 전게서, 314쪽

13) 죠디프 베디에, 이형식, 『트리스탄과 이즈』, 궁리, 2002년, 109쪽.

14) 신동원, 『조선 사람의 생로병사』, 255쪽 인용.

상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살점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증세로 인해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선 도덕적인 죄악으로까지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문둥이담의 전승 양상

3.1 문둥이담의 전승 양상

본 논문에서는 문둥이가 주인공이거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문둥이담>으로 칭한다. 『구비문학대계』에는 약 60여 편의 문둥이담이 존재한다. 이들 각편은 『구비문학대계』의 별책 부록인 『한국설화유형분류집』의 <413-10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 (병 고친) 열녀>, <714-3 우연히 만든(얼은) 약으로 사람 살리기>, <732-9 엉뚱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715-3 지나가다 만난 남녀 인연 맺고 잘되기>, <433-6 자식 죽여서 남편 받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낳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231-4 이인으로 바뀐 못난 친척> 등의 항목을 빌어 수록되어 있다. 항목명에서 드러나듯 문둥이담에 대한 적절한 분류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작중 화자나 주인공의 서사적 틀 보다는 ‘문둥병’을 중심으로 두고 내용적인 측면에 주시하여 분류하였다.

3.1.1 문둥이를 경험하는 이야기 : [문둥병]

설화의 주인공이나 화자가 문둥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이며 작품에서 문둥병 모티프만 등장한다.

① 화자가 문둥이를 경험한 경우

<문둥이(1)>¹⁵⁾, <문둥이(2)>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1-1. 문둥이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1-2. 문둥이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나 무사히 탈출했다.

[문둥이를 경험하는 이야기]는 문둥병 치유에 대한 사회적인 속설과 관련이 깊다. 불치의 병이니만큼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극단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카니발리즘¹⁶⁾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또한, 병세가 심해지면서 몸이 떨어져나가는 문둥병의 증상은 온전한 사람의 몸을 먹음으로써 훼손된 신체를 복구하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사람들이 악질(惡疾)을 얻은 자가 산 사람의 간담(肝膽)과 손가락을 먹으면 곧 낫는다고 여기고서, 오작인(倣作人)¹⁷⁾과 걸인에게 많은 값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고(故) 관찰사 유세침(柳世琛) 집의 10여 세된 아이종을 어떤 사람이 산속으로 유인하여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온몸을 찢러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요행히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성부(漢城府)의 관원과 각방(各坊)의 관령(管領)을 추문한 뒤에 범인을 은밀히 염탐, 체포하여서 추문한 다음 그 죄를 크게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작인과 걸인 등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매우 놀랍다. 형조의 당상관

15) 본 논문에 수록된 문둥이담 분포도는 별첨 자료로 첨부하여 기술하였다.

16) 식인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화나 가뭄이나 조난 등 기근이 극심했을 때, 농성으로 양식이 다했을 때, 병적인 기호식으로서, 증오나 복수의 원념에 사로잡혀, 종교나 주술의 의식,으로서 난치병의 의약 등의 목적으로 시도된다.

17) 오작인은 지방 관아에 속하여 수령이 시체를 임검할 때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하던 하인을 일컫는다. -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및 좌·우포도장(左右捕盜將)을 패초(牌招)하여 포착 절목(捕捉節目)을 비밀히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정백봉(鄭百朋)이 형조 참판(刑曹參判) 황침(黃琛)과 포도장 윤희평(尹希平)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런 일은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유세침의 자제로서 생원(生員)이 된 자가 있어서 종사관(從事官)을 시켜 불러다가 비밀히 그 일의 정상(情狀)을 물었고, 또 상처를 입은 아이도 어리석지 않다기에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무리들이 새문[新門] 밖 근처에 산다고 하니, 또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¹⁸⁾

한성부(漢城府)가 아뢰기를, “남부(南部) 명철방(明哲坊)의 전 영춘 현감(永春縣監) 이성(李誠)의 계집종이 3살된 아이를 이달 9일 진시(辰時)에 잃어버렸다가 미시(未時)에 남학동(南學洞) 소나무 밑에서 찾았는데, 오른손 손가락 두 개가 칼에 잘려졌다 합니다. 오작인(件作人) 등이 악질(惡疾) 걸린 자에게 후한 뇌물을 받고 아이들을 유인하여 쓸개를 빼가고 손가락을 잘라 가는 자는 법에 마땅히 참수형에 처해야 하고, 체포하고 신고한 자는 상을 주어야 합니다. 해조(該曹)에 명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경악할 일이다. 형조에서 승전을 받들어 기필코 체포하도록 하라.” 하였다.¹⁹⁾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나타나듯 사람을 잡아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문둥이들에 의한 납치나 살인이 종종 발생했다. 검시한 시체를 수습하던 관청 소속 하인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식인을 통한 치유 믿음이 팽배했다. 이러한 사건은 문둥병의 의술을 통한 문둥병 치유가 상용화된 현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회면을 장식하는 이들 기사는 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사건은 불과 십 수년 전인 1990년대에까지 이어진다. 1994년 8월

18) 중종 27년 3월 18일, 『조선왕조실록』 17집 364쪽.

19) 명종 1년 11월 25일, 『조선왕조실록』 19집 468쪽.

19일자 중앙일보에는 충남 대천에서 5차에 이르는 영·유아 연쇄 유괴·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발견된 사체의 간이 일부 잘라진 것이 발견되어 난치병자들 50여명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문둥이에게 잡혀 간 아들>은 채록자가 구연을 들은 후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전후의 내용으로 미루어 화자가 문둥이를 경험한 이야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⁰⁾ 세 이야기는 짧고 단순하며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²¹⁾ 문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실화가 설화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설화 구연자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겪은 이야기를 옮긴 듯한 세 편의 설화에서 문둥이는 중심 인물이라기보다 경험이나 비유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문둥병이라는 질병만이 소재로서 등장하고 있을 뿐 치유를 비롯한 기타 모티프나, 문둥이와 주인공과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주인공이 문둥이를 경험하는 경우

<문둥이의 약속 지킨 효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하늘이 이름난 효자의 효심을 시험하고자 한다.
2. 효자의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킨다.
3. 심부름길을 문둥이들이 가로막으며 위협한다.

20) “계속해서 김석어씨가 ‘문둥이에게 잡혀 간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채록하지 않았다. 문둥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 하자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다.” 『구비문학대계』, 경북 상주군 편, 166쪽.

21) “다음 이야기(이동면 설화 6)와 함께 자동 구술한 것으로, 그 내용은 실화와 비슷하다” - 『구비문학대계』 경기도 용인군 편, 215쪽.

4. 어머니의 심부름과 문둥이와의 약속을 모두 지킨다.

5. 문둥이들은 하늘로 북두칠성이 되어 올라갔다.(효성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이 북두칠성을 문둥이들로 변신시켰다)

<문둥이의 약속 지킨 효자>에서의 문둥이는 이야기의 주제인 효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주인공은 밤길에 만난 떠돌이 문둥이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이행한다. 뿐만 아니라 문둥이들이 협박하더라도 맺은 약속도 위협을 무릅쓰고 지킨다. 문둥이는 주인공을 시험하는 장애물로 등장하며, 주인공은 문둥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함으로서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신의를 버리지 않는 착한 심성을 증명한다. 하늘이 주인공의 효성을 가늠하기 위해 별들을 문둥이로 변신시켜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문둥이는 주인공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등장한다. 때문에 문둥병의 치유와 같은 다른 모티프는 등장하지 않으며 임무를 마친 후 원래의 모습인 하늘의 별로 되돌아간다.

3.1.2 문둥이가 치유되는 이야기 : [문둥병+치유]

문둥병과 문둥병의 치유가 작품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문둥이담이 치료가 불가능한 문둥병을 소재로 하느니만큼 치병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모티프이다. 또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있느니만큼 치병 모티프는 치유에 대한 강렬한 기대치가 담겨 있다.

① 뱀/이무기/뱀술 : 우연한 치유

각편 <이무기 먹고 나은 나병환자>, <천년 묵은 지렁이 먹고 병이 낫다>, <만병통치의 백사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떠돌이 문둥이가 우연한 기회에 이무기, 천년묵은 지렁이, 백사(白蛇)와 같은 신이한 음식을 먹고 병이 낫는다.

이들은 문둥이가 신이한 음식을 먹고 병을 치유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 문둥이가 우연 또는 행운으로 병을 치유하는 음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치유자는 등장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치유자와 문둥이 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병이 치유된 이후의 보은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편은 문둥이의 행운과 문둥병을 치유하는 신이한 음식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② 식인 : 선행을 통한 치유

<문둥병에 얽힌 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친구가 문둥병에 걸린다.
2.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식을 죽여 약으로 쓰려고 한다.
3. 하늘이 우정에 감복해 친구와 자식 모두 살게 된다.

<문둥병에 얽힌 우정>은 자식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주인공의 깊은 우정을 주제로 한다. 문둥이는 주인공의 친구로 설정되지만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문둥병의 치유 또한 주인공의 자식을 먹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친구의 우정에 감복해서 내려준 상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결말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행복은 주인공의 선행에 대한 하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병이 낫게 된 문둥이 친구의 보은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뒷장에서 다루어지는 보은 모티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문둥병에 얽힌 우정>은 이야기의 초점이 주인공의 선행에 맞춰지기 때문에 문둥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편 <문둥이의 약속 지킨 효자>와 유사하다. 두 각편은 이야기에서 문둥이가 우정과 효심을 시험하는 장애로 등장하며 이를 극복함으로써 주인공의 선행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을 보인다. 역설적으로, 문둥병과 문둥이는 우정과 효심을 저버릴 수 있을 정도로 두렵고 위협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각편을 통해 문둥이담의 다양한 존재 양상 및 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③ 종교 : 종교를 통한 치유

문둥병과 문둥병의 치유를 다루는 각편은 종교와 결합한 형태로도 등장한다. 각편 <세조의 문둥병 고쳐준 문수보살>과 <세조 문둥병 고친 탈골암>이 그 예가 된다.

1. 문둥병에 걸린 세조가 목욕을 한다.
2. 어디선가 동자승이 나타나 도와준다.
3. 왕의 목욕을 도와줬다는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자, 문수보살이 목욕을 도와줬다는 소문도 말하지 말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4. 세조의 병이 나았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부스럼을 동반한 피부병으로 고생했는데, 민간에서는 「단종의 모친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기 때문에 발병한 것이며 이는 훗날 불력(佛力)으로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유행했다. 세조의 문둥병 관련 이야기는 단종이 유배되었다 생을 마감했던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거나 사찰 연기 설화로 나타난다. 세조의 재위 기간 동안 불사(佛事)가 많이 일어났으며, 피부병으로 고통 받던 세조가 온천욕을 즐겼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조의 피부병을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을 찬탈한 데서 비롯된 벌이라 이해하고, 특히 그 벌을 문둥병으로 표현했다는 데에서 당대인들의 문둥병에 대한 천형(天刑)론적 사고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담는다. 하늘의 벌을 받아 생긴 병이기 때문에 치유의 과정에서도 종교적인 힘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종교적 징벌로서 문둥병이 발병하는 모티프나 종교적 힘을 통한 문둥병 치유 모티프는 불교 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문둥병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고 나타나는데, 종교적 징벌로서 문둥병이 발병하는 모티프는 구약에서 발견된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가 기록된 구약 성서에서 문둥병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문둥병의 식별과 부정한 자인 문둥이의 격리 등 문둥병에 대한 일반

적인 지침을 담은 레위기이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의 문둥이가 아니라 구체적 인물로서 성서에 등장하는 문둥이는 미리암(민수기), 게하지(열왕기하), 아사라(열왕기하, 역대하) 등이 있다. 미리암은 자만과 시기심으로 남동생이었던 모세를 비방한 죄로 문둥병을 얻게 된다. 게하지는 선지자인 엘리사의 하녀였다. 문둥병을 앓았던 니아만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강물에 몸을 씻고 병이 낫자 그에게 거짓으로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돈을 얻어낸다. 게하지는 그 댓가로 니아만이 앓았던 문둥병에 걸린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사라는 세력이 강성해지자 제사장만이 가능했던 분향을 하러 나섰다가 오만에 대한 벌로 문둥이가 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문둥병은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해 신에게서 받은 형벌로 인식하고 있다.

종교적 힘을 통한 문둥병 치유의 모티프는 신약 성서에서 여러번 기록된다. 신약 성서는 종교의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느니만큼 문둥병은 불치병을 종교적 힘으로 치유하는 소재로 나타난다. 구약에서처럼 일화와 행적을 남기는 특정 인물로 다루어지는 문둥이는 없다.

목욕이라는 치유의 과정도 종교와 관련된 문둥이담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띈다. 피부병에 온천 등의 목욕 요법이 권장되었던 의학적인 근거 뿐 아니라 종교적인 근거도 추정해볼직 하다. 목욕은 더러움을 씻어 내고 청결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정화 의식으로 종교적인 의례나 행사에서도 상징적으로 투영된다. 문수보살이 목욕하던 세조를 도와 문둥병을 치유하는 것이나 문둥병에 걸린 니아만이 예언자 엘리사가 목욕하게 하여 병을 치유한다는 이야기에서 도덕적인 부정(不正)은 더러움이라는 부정(不淨)과 동일시 된다. 이는 목욕이라는 정화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듭난다. 또한 주인공은 왕 · 문수보살과 용맹한 장군 · 예언자라는 우월한 신분을 가졌으며

이야기의 주제는 종교적인 신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만큼 종교적인 문둥이담은 다른 문둥이담의 치유 과정으로 등장하는 뱀고기, 술, 때와 잠, 벌레와 같은 주술적이며 주인공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소재는 차단되고 목욕이라는 특수한 치유 과정이 부각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둥병+치유]의 구조를 가진 문둥이담 중 하나인 세조와 문수보살과 관련된 각편들은 문둥이 모티프의 굴절 폭이 종교적인 이야기와 맞물릴 정도로 다양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둥병을 도덕적인 부정(不正)에 대한 징벌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당대인이 문둥병의 치유를 종교적인 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3 병이 나은 문둥이가 보은하는 이야기 : [문둥병+치유+보은]

병이 나은 문둥이가 치유자에게 보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② 엉뚱한 음식²²⁾(때, 소변) : 우연한 치유와 보은

1. 주인공이 거짓 의원 행세를 하다.
2.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문둥병 환자에게 엉뚱한 음식을 약으로 처방한다.
3. 이 음식이 약이 되어 문둥이는 치유된다.

22) 때나 소변 등을 음식 소재로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문둥이담에서 문둥이를 치유하는 소재를 약으로 의도하지 않고 먹으며, 『구비문학대계』에서 이들을 음식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4. 문둥이가 재물로 보은한다.

<때로 풍병 고친 이야기>와 <팔자 고친 건달>은 주인공이 우연히 일러준 음식을 약으로 알고 먹은 문둥이가 병을 고치고 이를 보답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문둥병+치유+보은]의 양상을 띤다. 두 각편이 다른 문둥이담과 차별되는 부분은 문둥이의 치유 과정과 문둥병을 고쳐주는 주인공의 동기이다. 다른 문둥이담에서 드러나는 문둥병의 치유 계기는 초월적인 힘이 종교의 힘이나 선행에 대한 하늘의 감응 등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뱀·구렁이·이무기와 같은 신이한 음식이나 카니발리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둥병을 고치는 계기로 등장하는 모티프들이 성스러운 상층의 세계관에 근거하는 점은 공통된다.

<때로 풍병 고친 이야기>나 <팔자 고친 건달>에서는 ‘때’와 ‘어린이 소변을 모은 가루’가 문둥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이용된다. 엉뚱하고 비속한 음식은 다른 문둥이담의 치유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희생이나 신이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편의 전개 방향도 즉흥적이고 희화화된다. <팔자 고친 건달>의 주인공은 사람을 죽여 병을 고치는 약으로 삼으려는 문둥이의 가족들에게 잡혀 위기를 맞이하지만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때를 뭉쳐 약이라며 건넨다. <때로 풍병 고친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리숙한 동생을 의원으로 오해한 문둥이의 가족들에게서 후한 대접을 받다가 때가 약이라며 생각나는대로 불러준 것이 즉효하여, 지체 높고 부유한 신분의 문둥이와 그 가족들의 후한 보답으로 큰 부자가 된다는 결말을 맺는다. 그러나 가짜 의원 행세를 하던 주인공이 별 생각 없이 불러준 비속한 음식이 우연히 약이 된 것이니 만큼 보은이라는 윤리적인 비중은 반감된다. 보

은의 과정은 축소되고 단지 문둥이의 보은 덕에 부자가 된다는 결과로만 존재할 뿐이다. 또한, 문둥병을 고치는 음식이라는 소재의 면에서 뿐 아니라 작품의 주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선행과 보은이라기 보다는 행운에 의한 횡재라는 재미의 요소가 부각된다. 요약컨대, 이들 두 각편은 윤리적이고 성스러운 상층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웃음과 재미가 강조되는 서민의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된 각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병 환자의 벼슬>은 문둥이 남편을 맞게 된 신부가 죽기 위해 비상인 줄 알고 풀어놓은 약을 문둥이 남편이 대신 마시지만, 사실은 어린이 소변을 말려 만든 귀한 약재 가루라 병이 낫고 후일 벼슬길에 오른다.

② 뱀술 : 선행으로 인한 치유와 보은

각편 <뱀술 먹고 문둥병 고친 이야기>, <나환자의 은인>은 아래와 같다.

1. 한 남자가 술을 담그나 뱀이 빠져 죽어 못쓰게 된다.
2. 어느날 떠돌이 문둥이가 동냥을 오나 못 쓰는 음식이라 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
3. 문둥이가 괜찮다고 하자 주인공은 몹시 미안해하며 자신도 함께 술을 한 잔 마시고 문둥이에게 술을 준다.
4. 술을 먹고 병이 나은 문둥이가 보은한다.

이와 유사한 서사 단락을 가진 <만병통치의 백사주>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1. 한 남자가 담근 술에 뱀이 빠져 죽어 못쓰게 된다.
2. 어느날 떠돌이 문둥이가 동냥을 오나 못 쓰는 음식이라 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
3. 그러나 남자의 종이 짓궂은 마음에 뱀이 빠진 것을 숨기고 술을 내어준다.
4. 술은 먹고 병이 나은 문둥이가 만병통치의 백사주라며 팔아 부자가 된다.

두 종류의 각편 모두 떠돌이 문둥이가 동냥을 다니다가 우연히 뱀술을 마시고 문둥병을 고친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그렇지만 문둥병 치유의 과정에 해당하는 3번 단락과 결말인 4번 단락에 주목하면 각편의 차이점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두 이야기 모두 떠돌이 문둥이를 맞은 집주인은 동냥이라 할 지라도 뱀이 빠진 못쓰게 된 술을 남에게 줄 수 없다며 거절한다. <만병통치의 백사주>의 짓궂은 종은 빠져 못쓰게 된 술이라는 것을 속이고 나쁜 장난이라도 치고 싶은 악의로써 문둥이를 대한다. 반면 <뱀술 먹고 문둥병 고친 이야기>와 <나환자의 은인>에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문둥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손수 맛을 보고 건넨다. 주인은 모두가 기피하는 문둥병에 걸린데다 보잘 것 없는 동냥아치의 신세지만 선의로써 문둥이를 대한다. 치유되는 음식을 건네주는 치유자의 의도가 선과 악으로 각기 구분되기 때문에 각편의 진행과 결말은 상이하다.

<만병통치의 백사주>는 병이 나은 문둥이가 백사주를 팔아 큰 돈을 벌고 동냥을 갔던 집에 버금가는 큰 부자가 되는 결말을 맺는다. 치유 음식을 문둥이에게 건네준 사람은 존재한다. 하지만, 선의가 아니라 악의에 가

까운 마음에서 발로하였기 때문에 문둥병의 치유는 치유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의 부산물로 이해된다. 우연에 의한 치유는 치유자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 문둥이 자신의 행운에 의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보은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치의 병이 우연히 낫게 된 문둥이의 행운이 확장되어 큰 재물까지 얻는 것이 이야기의 주가 된다.

그러나 <뱀술 먹고 문둥병 고친 이야기>, <나환자의 은인>에서는 뱀술을 마시고 병이 나은 문둥이들이 이듬해 재물을 가지고와 술을 주었던 주인은 큰 부자가 된다. 즉, 치유 음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치유자의 선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치유자는 문둥이의 보은으로 큰 재물을 얻는다. 때문에 이야기는 선행을 베푼 덕에 부자가 되는 치유자를 주역으로 진행된다.

즉, 행운과 선행으로 대비되는 문둥병의 치유는 모두 큰 재물을 획득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졌지만 횡재와 보은이라는 다른 기제를 차용한다. 전자는 행운과 횡재의 주체인 문둥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야기가 진행되고 문둥이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다. 따라서 보은 모티프는 존재하지 않고 [문둥병+치유]의 형태로 존재한다. 후자의 서사 전개는 치유자가 중심이 된다. 치유자가 선행을 행하고 이로 인한 윤리적 인과로 보은을 입어 부자가 되는 결말을 맺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전자와는 달리 [문둥병+치유+보은]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3.1.4 열녀가 문둥이 남편을 치유하는 이야기 : [결연+문둥병+치유]

문둥이담의 절반의 분량인 서른 여 편의 각편이 문둥이 남편을 치유하는 열녀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문둥이 모티프에 주목하여 논의된 바는 없지만

다양하게 축적된 선행 연구 중 일부는 문둥이담의 각편도 포함하고 있다. 다른 문둥이담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데에는 조선시대의 윤리관이나 사회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터이다. 문둥병을 하나의 독립된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조선 시대의 실록에 등장하는 문둥병에 관한 기록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총 63회 등장하는 문둥병의 기록 중 효행·우애·절행에 대한 표창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26회 30건이기 때문이다. 실록에 등장하는 치유 방법으로는 손가락을 끊어 환자에게 피를 먹이는 단지(斷指)가 26건으로 압도적이며, 그밖에 살을 베어 먹이는 할고(割股) 2건, 뱀을 먹이는 1건, 박쥐를 먹이는 1건이 등장한다. 열녀가 문둥이 남편을 치유하는 문둥이담에서는 비상을 마시는 경우가 12건, 할고가 8건, 사람으로 술을 담궈 먹이는 경우가 6건, 단지와 유사한 경우가 1건, 기타 신이한 술이 1건²³⁾으로 나타난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록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단지의 경우가 줄고 할고나 비상, 식인의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추정해보면, 우선 문둥이담은 허구의 개입이 가능한 문학적 차원의 것이니만큼 현실보다 극적인 방법의 치유가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 속설로 떠돌았던 치유 방법을 바탕으로 행하여진 것일 수도 있으며, 죽음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희생이 따르는 치유가 강조되는 것으로 미루어 열녀의 개념 변화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문둥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까지에 이르는 결연 과정과 남편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연+문둥병+치유]의 형태를 취한다. 병이 나은 후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결말을 맺는 각편들이 상당수 있지만 부인의 죽음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으며, 문둥

23)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방법이 사용되는 각편들로 인해 총합계는 각편 수를 초과한다.

이 남편의 보은으로 일구어진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보은의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내용은 치유 방법과 결연 방법에 따라 몇 편의 예외가 되는 각편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문둥이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거나 결혼 후 발병하는 경우와, 문둥이인 줄 미리 알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비상을 통해 문둥병을 치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리장가의 모티프가 종종 삽입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할고를 통한 치유와 식인을 통한 치유로 다시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비상 : 문둥병을 미리 알고 혼인

<문둥이 남편을 살린 종의 딸>, <아내가 타놓은 비상을 마시고 소생한 남편>, <비상으로 문둥병 고친 신부>, <문둥이의 아내>, <남편의 문둥병 고친 효부>, <아내가 타놓은 비상을 마시고 소생한 남편(2/2)>, <양반 딸 덕으로 병 고친 종의 아들>, <남편의 풍병 고친 아내의 성심>, <대신 장가>, <대신 장가가기> 등의 각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난한 집의 아들이 문둥이 신랑을 대신해서 장가간다.
2. 신부를 가까이 하지 않는 대리 신랑의 행동은 신부의 의심을 산다.
3. 사정을 알게 된 신부의 뜻으로 가난한 집 아들과 신부가 진짜 부부가 된다.
4. 가난한 집의 딸이 오빠(남동생)에게 시집온 신부를 대신해 문둥이 신랑과 혼인한다.
5. 시집온 딸이 문둥이 남편이 죽으면 자결할 각오로 비상을 준비한다.
6. 우연히 문둥이 남편이 비상을 먹고 병이 낫는다.

7. 행복하게 잘 산다.

이와 유사한 각편으로 <전라도 이방과 대구 이방>, <비상 먹고 살아나다>, <효성 끝에 복 받은 세째 딸>, <산 열녀각>, <국고금으로 죽을 아버지 살린 아들> 등이 있다.

<전라도 이방과 대구 이방>에서 대구 이방의 딸은 전라도 이방의 아들과 정혼한 사이였는데 혼인 당일은 대리 신랑이 와서 문둥이 남편인줄 몰랐지만 나중에야 이를 알게 되고 비상을 준비한다. 남편과 부인이 모두 비상을 먹지만 살아난다. <비상 먹고 살아나다>와 <효성 끝에 복 받은 세째 딸>은 딸이 가난한 친정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부자인 문둥이 신랑과 혼인할 것을 자청해서 혼인이 성사된다. 죽을 각오로 준비한 비상을 신랑이 먹고 살아난다. 세 각편은 친정 오빠(동생)가 문둥이 신랑 대신해서 장가를 간다는 대리 장가 모티프는 탈락되었지만 비상을 통한 치유 방법은 앞서의 유형과 유사하다.

<남편의 문둥병 고친 효부>, <남편의 풍병 고친 아내의 성심>, <산 열녀각>, <국고금으로 죽을 아버지 살린 아들>은 치유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고금으로 죽을 아버지 살린 아들>은 손가락을 찢러 받아낸 피로 술을 빚어 먹임으로써 문둥이인 남편과 남편의 형제를 살린다. <남편의 문둥병 고친 효부>는 허벅지를 베어낸 살에 비상을 섞어 먹임으로 문둥이 남편을 고친다. <산 열녀각> 역시 술을 빚어 자신의 살과 함께 먹여 남편을 살린다. 이상의 세 각편은 치유 수단으로 비상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와 할고와 같은 극렬한 희생을 바탕으로 병을 고쳤다는 점과 신부가 친정을 위해 희생할 각오로 문둥이 신랑과의 혼인을 자청하는 결연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①번 유형과 함께 논의해도 무리

가 없을 듯 하다. <남편의 풍병 고친 아내의 성심>은 부인의 실질적인 희생이 따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준 ‘천년 묵은 만년주’로 병을 고친다. 치유 수단 성격이 다른 각편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만, 이야기 구조가 유사하므로 부득이하게 ①번 유형에 포함시켰다.

1번 단락은 양반이거나 부자인 문둥이 신랑의 집안에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열등한 대리 신랑의 집안에 원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각편 <양반 딸 덕으로 병 고친 종의 아들>, <대신 장가가기>, <국고금으로 죽을 아버지 살린 아들>, <효성 끝에 복 받은 셋째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나라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이 집을 나서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밖에도 <대신 장가>는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는 건달을 깨우쳐주기 위한 친구의 이야기가 보태지며 <남편의 문둥병 고친 효부>는 묘자리를 잘 못 써서 아들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덧붙는다. 계모담과 결합한 <산 열녀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둥이담과 다른 설화 모티프간의 활발한 교섭을 보여준다. 또한 조상을 모시는 산소를 잘 못 쓴 동티로 문둥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부분과 전처 소생을 죽이려한 계모의 딸이 문둥이 신랑과 혼인한다는 부분은 문둥병을 도덕적인 죄와 결부시켜 생각했던 당대의 가치관도 짐작케 한다.

이들 중 각편 <양반 딸 덕으로 병 고친 종의 아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가난한 양반의 집에서 돈이 필요하자 예전에 자신의 종을 찾아가 돈을 꾸고 신세를 진다. 이로 인해 안동 김씨 양반 딸이 종의 아들이자 사회의 멸시를 받는 문둥이 신랑에게 시집을 간다. 첫날밤에 죽을 각오로 비상을 준비하지만 문둥이 신랑이 우연히 이를 마시고 병이 나으며 신부 집안은 안동 김씨 시조가 된다. 선행은 시조담이라는 틀을 통해 보상 받지만, 양반이 가난해지자 종에게 돈을 꾸고 혼인을 한다는 내용에서 신분제가 동요

가 심해지고 사회적인 신분의 우월함보다 경제적인 재력의 우월함이 더 강조되는 후대의 가치관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번 단락에서 대리 장가를 의뢰받은 집의 딸이 문둥이 남편과의 혼인을 자칭한 이유는 「대리 장가를 약속하고 문둥이 신랑 집안에서 받은 살림과 친정 오빠가 진짜 혼인하게 됨에 따라 얻게 된 며느리에 대한 보은」(<문둥이 남편을 살린 종의 딸>, <아내가 타놓은 비상을 마시고 소생한 남편>, <비상으로 문둥병 고친 신부>, <남편의 문둥병 고친 효부>), 「가난한 집 아들을 돌보아준 문둥이 신랑 집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대신 장가가 기>, <대신 장가>, <국고금으로 죽을 아버지 살린 아들>), 「대리 장가라는 당초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친정 집안의 부끄러움」(<문둥이의 아내>의 경우), 「신랑이 문둥병 걸리기 전에 이루어졌던 정혼 약속」(<아내가 타놓은 비상을 마시고 소생한 남편>의 경우) 으로 설정된다.

<산 열녀각>의 경우 전처 소생 아들이 대리장가의 약속을 깬 것을 대신 해서 계모의 딸이 문둥이 신랑과 결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야기에는 이복 오빠의 사정을 들은 계모의 딸이 자칭하는 부분과 기별을 받은 문둥이 신랑의 집안에서 계모의 딸을 납치하는 부분이 공존한다. 전처 소생의 아들은 계모의 학대로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대리 장가를 통해 오히려 행복해지고, 대신 계모의 딸이 문둥이 신랑과 혼인을 한다. 계모의 딸과 문둥이 신랑의 혼인은 사악한 계모에 대한 징치와 이복 동생의 고운 심성을 통한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문둥이 남편과의 혼인이 신의를 지키기 위한 선행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른 각편과 다르지 않다.

문둥이 남편이 죽으면 함께 따라 죽으리라는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의 이유로 비상을 준비하는 5번 화소 역시 7편의 이야기가 모두 같다.

이는 열녀의 표상을 남편이 죽은 뒤 평생을 혼자 살며 정절을 지키는 것에서 남편이 죽은 뒤 따라 죽는 것으로 설정한 조선 후기의 열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15개의 각편은 『구비문학대계』에서 「413-10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 (병 고친)열녀」로 분류된 이야기로 집안을 위해 문둥이 신랑과의 혼인을 자청한 신부가 준비한 비상으로 병을 고쳤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연의 과정과 병의 치유 과정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신부의 집안은 문둥이 신랑의 집안에 비해 재산이 부족하거나 신분이 열등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이다. 둘째, 신부가 신의를 지키거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선행의 의도에서 문둥이 신랑과의 결혼을 자청한다. 셋째, 신부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할 목적으로 준비한 비상을 통해 문둥병이 치유된다. 종합하면 부인이 효(孝)와 열(烈)이라는 유교적 덕목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이러한 희생을 통해 남편의 문둥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문둥이담이 유교적 윤리관과의 긴밀한 연관을 맺고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할고 : 신랑의 문둥병을 모르고 혼인했거나, 혼인 후 문둥병을 얻은 경우

<문둥이 남편 병 고친 열녀>, <남편의 풍병 고친 열녀>,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열녀>, <남편의 병을 낫게 한 열녀>,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꼭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 여자가 시집을 왔지만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2. 밥을 내다 나르는 여종을 통해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 따로 병막(病幕)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된다.
3. 부인이 남편을 만나 허벅지·엉덩이 살을 베어 먹인다.
4. 남편의 병이 낫는다.

<남편 문둥병 고친 열녀 곱씨>, <문둥병을 치료한 열녀>도 1번과 2번의 과정이 생략되고 각기 결혼 후 문둥병이 발병하고, 신부만 혼인 때 신랑의 문둥병을 알았다는 내용이 삽입되었을 뿐 「문둥병 걸린 남편을 위해 살을 베어 먹여 병을 낫게 한다」라는 기본 내용은 같다. 또한 두 각편은 열녀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남편 문둥병 고친 열녀 곱씨>의 경우 문둥이 남편을 살린 곱씨 부인의 집안이 양반이 되었다. <문둥병을 치료한 열녀>의 경우에는 이웃에 다른 부인도 문둥이 남편을 위해 할고하였으나 효험을 보지 못했으며 이름난 충신·열녀 집안인 송씨 집안이라 효험을 본 것이라는 뒷이야기가 덧붙었다. <나병 환자와 열녀>는 부인이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일 뿐 아니라, 자식을 술에 담가 먹이는 과정이 추가된다.

대저 아들이 부모에게 있어서나 아내가 지아비에게 있어서나 의리는 똑같은 것이다. 만일 크게 무도(無道)한 사람이 아니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즈음에 당해서는 심정이 절박해지는 법이므로 반드시 해보지 않는 일 없이 모두 해 보려고 하여, 자신의 신체(身體)나 발부(髮膚)를 생각하거나 아꼈 거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고(割股)하거나 단지(斷旨)하거나 하는 것이 모두 다 그다지 귀중할 것은 없는 것이고, 또한 아들 된 사람이나 아내 된 사람으로서 는 자기 스스로가 그만둘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중략) …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로 또한 천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²⁴⁾

위의 기록처럼 성리학적 가치관이 지배했던 조선왕조에는 단지와 할고는 효행과 절행의 전형처럼 권장되는 실정이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많은 문둥이담에서 문둥이 남편을 위해 서슴치 않고 자신의 살을 베어 먹이는 열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③ 식인 - 신랑의 문둥병을 모르고 혼인했거나, 혼인 후 문둥병을 얻은 경우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열녀>, <문둥병 걸린 신랑 살린 김정승 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 여자가 시집을 왔지만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2. 밥을 내다 나르는 여종을 통해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 따로 병막(病幕)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된다.
3. 주위의 사는 남자를 이끌어 술독에 빠뜨린 후 문둥이 남편에게 먹인다.
4. 남편의 병이 낫는다.
5. 남의 목숨을 뺏은 죄를 고백하고 부인이 자살한다.

문둥이 남편을 치유하는 열녀의 이야기는 할고와 비상이라는 간접적인 죽음의 희생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먹이는 살인과 자결이

24) 명종 10년 3월 29일, 『조선왕조실록』 20집 262쪽.

라는 직접적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도 전개된다. 세심한 논의가 덧붙어야 겠지만 조선 전기의 열녀는 수절을 하며 일생을 살아간 여자를 지칭한 것이었던 반면 조선 후기의 열녀는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일컫는 것으로 변질되었다²⁵⁾는 것을 고려하면 ③번 유형이 ①번과 ②번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대에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⁶⁾.

두 각편에서 부인은 살인이라는 범죄를 행하지만 이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동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 살해된 남자는 각기 보부상 다니는 이웃 노총각과 서당꾼이다. 신분은 다르지만 노총각은 문동이 남편을 둔 부인과 하룻밤 인연을 맺고자 했으며, 서당꾼도 결혼을 못한 총각으로 부인이 살림을 내어준다며 집으로 오라는 말에 걸려든다는 점에서 모두 부인에게 부정한 욕심을 품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부인의 살해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한 헌신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정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정한 존재를 없애는 정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다. 대를 잇는다는 것 역시 열(烈)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이니만큼 이야기의 결말에서도 열(烈)과 결부시켜 부인을 격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짙게 투영된다. 부인의 고백으로 인해 노총각과 서당꾼의 죽음이 밝혀진 뒤 <남편의 문동병을 고친 열녀>는 「외동 아들인 문동이 신랑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죽은 서당꾼은 여러 형제를 두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며, <문동병 신랑 살린 김정승 딸>은 「문동이 신랑의 병을 고쳤으니 앞으로 대를 이을 수 있겠지만, 죽은 총각의 집은 그렇지 못했다며 총각의 부모에게 죽은 총각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 예이다.

25)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4, 13쪽.

26) ②번 유형 중에도 제 살을 베어 남편에게 먹인 뒤 부인은 죽게 된다는 내용의 <남편 문동병 고친 열녀 짝씨> 등은 각편의 선후 관계를 논할 때 후대에 속할 수 있다.

<문둥이 신랑 섬긴 열녀>, <남편의 나병을 고쳐주고 목매어 죽은 열녀>, <남편의 나병 고치고 자살한 열녀>, <개가 열녀>, <이부 열녀>는 『구비문학대계』의 「자식 죽여 남편 받들기」 유형에 해당하며 개가열녀담과 문둥이담이 결합된 형태를 취한다.

1. 문둥이 신랑이 집을 떠나자 부인도 남편을 따라 나선다.
2. 부인의 고생을 안타깝게 여긴 문둥이 신랑은 문둥이들과 자취를 감춘다.
3. 혼자 남겨진 부인은 재혼하게 된다.
4. 재혼 후에도 수소문하던 문둥이 신랑과 재회한다.
5. 재혼한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술을 빚어 문둥이 신랑에게 먹인다²⁷⁾.
6. 문둥이 신랑의 병이 낫는다.
7. 부인은 훼손죄를 고백하며 자결한다.

앞서 살펴 본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열녀>, <문둥병 걸린 신랑 살린 김정승 딸>와 마찬가지로 문둥병에 걸린 남편을 치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뒤이어 치유자인 부인마저도 자살한다. 그러나 전

27) 자식을 죽여 빚은 술이 문둥병을 고친다는 무참한 속설은 현대에까지 이어질 정도로 뿌리가 깊었다. 1968년 3월 28일자 중앙일보에 『 딸 죽인 「迷信(미신)」』이란 제목으로 실린 기사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癩病(나병)남편 藥(약)하려다 苛責(가책)느껴 自首(자수)
 27일 慶南(경남) 陝川郡(이천군) 三務面(삼무면) 金里(금리)에 사는 金德三(김덕삼)씨의 처 朴金淑(박금숙) 여 인(25)은 나병에 걸린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딸을 죽였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처여인은 3년 전에 金씨와 결혼한 뒤 金씨가 나병에 걸리자 이웃에 사는 무당으로부터 「어린애를 담근 술을 마시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난지 54일 된 둘째 딸 형숙양을 죽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자의 자살이 문둥이 신랑을 살리고자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후자의 자살에서 살인은 중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떠난 사이 재혼하여 이부(二夫)를 섬겼다는 휘절에 대한 죄책감이 부인을 자결로 몰아간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여 문둥이 신랑을 고친 부인은 고난의 시간을 접고 귀가하는 길에 몸을 더럽힌 것이 욕되고 부끄럽다며, 시집 대문 안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고 마을 어귀에 목을 맨다. ②번 유형에서 살렸던 <나병환자와 열녀>에서도 할고와 더불어 문둥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술로 빚어 약으로 쓴다. 후일 남편의 병이 나은 후 주변에서 부인의 행위에 감탄한다는 결말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열(烈) 앞에서는 합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둥이 신랑 섬긴 열녀>, <남편의 나병을 고쳐주고 목매어 죽은 열녀>, <남편의 나병 고치고 자살한 열녀>, <개가열녀>, <이부열녀>는 부인의 희생에 대한 구속과 압박이 가장 강력한 이야기이며, 열녀라는 중세의 족쇄가 만들어낸 비극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이인경²⁸⁾은 개가 열녀에 대한 연구에서 살인으로 인한 자결과 휘절로 인한 자결은 설화 구연자의 성별에 따른 주제의식에서도 차이를 빚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식 죽여 남편 받들기> 유형과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에 해당하는 각편을 고찰하고, 남성 화자가 휘절에 대한 죄의식으로 자결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여성 화자는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한 가책으로 자결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여성 화자들은 되도록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여서 남편의 병을 고치는 것을 피해가는 경향이 짙다고 논하였다. 개가 열녀의 범주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문둥이담의 갈래로

28) 이인경, 「『改嫁烈女談』에 나타난 烈과 貞節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6집, 1998.

범주를 달리할 때는 다소 미흡한 바가 없지 않으나, 모성을 다루는 주제 의식과 화자의 성별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남편 병고친 열녀>는 문둥이 신랑을 따라 나섰다가 재혼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의 세 이야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내용이다.

1. 몹시 가난한 아들 8형제가 장차 부자가 되지만 형제 중 하나가 문둥이가 된다는 자리에 묘를 쓴다.
2. 문둥이 신랑과 결혼한 신부는 남편과 함께 집을 떠난다.
3. 문둥이 신랑은 고생하는 부인을 위해 자취를 감춘다.
4. 동냥하던 중 과거 보러 가는 남자의 의복을 지어준다.
5. 과거 보러 간 사이 남자의 본래 부인이 죽어 재혼하고 아들 3형제를 낳는다.
6. 재회하게 된 문둥이 신랑을 친정 동생이라 속인다.
7. 동네 사람을 위해 무명베를 짜서 동네에 자리한 백 집 모두에게 지갑을 만들어 선물한다.
8. 부인이 고마워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봄에 얼음이 녹을 때 첫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씩 잡아달라고 부탁한다.
9. 이렇게 얻은 백 가지로 술을 담궈 문둥이 신랑에게 먹였다.
10. 문둥이 신랑의 병이 낫는다.
11. 동생 병이 나았으니 친정에 다녀온다며 본가로 와서 아들 셋을 낳는다.
12. 부인은 양쪽 집에서 4년씩 번갈아 산다.
13. 죽기 전에 재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두었다고 고백하며 이혼을 청한다.
14. 8형제가 부인은 문둥이었던 동생의 은인이라며 재혼한 신랑과 아들을 모두 부른다.
15. 굴건제복(屈巾祭服) 해서 초상을 잘 치뤘다.

풍수와 관련된 도입 단락 이후 문둥이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서사 단락 2-5까지의 내용은 위에서 다룬 열녀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치병의 방법과 완쾌 후 결말 부분은 크게 다르다. 의복 짓기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다거나 ‘백 사람이 이듬해 봄 해동(解冬) 해가 날 때 첫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씩을 모아 약을 짓는다’는 화소 등은 지극히 유교적인 다른 열녀 이야기와 대비된다. 무엇보다 <남편 병고친 열녀>는 본남편과 재가한 남편 사이에서 각기 아들 셋을 낳고 부인이 죽은 뒤 두 남편과 아들 여섯이 모두 모여 부인의 장례를 후히 치른다는 대화합의 결말이 차별적이다. 이인경은 <남편 병고친 열녀>를 가문의 의식이나 실절(失節)의 문제보다 여인과 본부(本夫) 문둥이 신랑이 행복하게 되는 과정에 관심을 둔 각편이며 화자는 정절이라는 육체적 차원에 한정된 소극적 의미의 열보다 부부간의 신의와 애정이라는 높은 차원의 열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지적하였다²⁹⁾.

<이부열녀>는 다음과 같다.

1. 중이 문둥이 남편의 병을 고쳐줄 약이 신의주에 있음을 알려준다.
2. 여인이 신의주로 가서 부잣집의 소실이 된다.
3. 아들 형제를 낳아준다.
4. 약과 재산을 얻어 돌아와 문둥이 남편의 병을 고친다.
5. 문둥이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는다.
6. 양쪽 집의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한다.
7. 신의주의 아들이 어머니를 찾지만 만남을 거절하고 돌려보낸다.

<이부열녀>도 <남편 병고친 열녀>와 마찬가지로 개가 열녀 이야기에 속하지만 식인이나 자결이 없고 보다 인간적인 서사 전개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열녀가 문둥이 남편을 치유하는 이야기’는

29) 이인경, 「『改嫁烈女談』에 나타난 烈과 貞節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6집, 1998. 286쪽.

[결연+ 문둥병+ 치유]의 양상이 공통적으로 반영되며, 치유의 방법과 결연 양상에 따라 하위 갈래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문둥이 처녀담에서의 전승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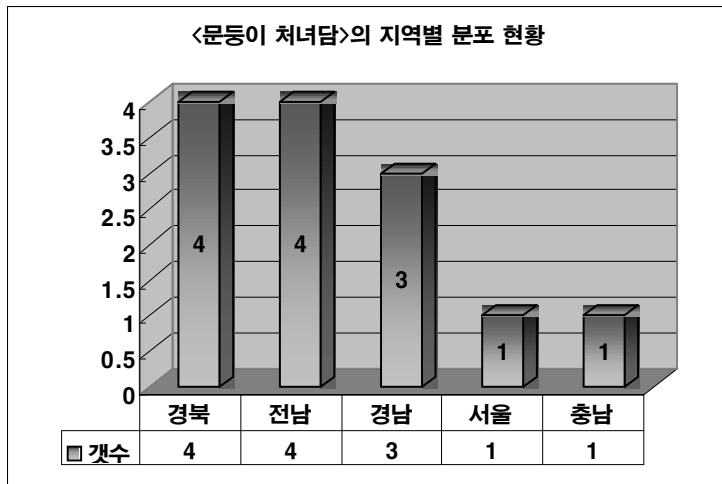
여자 문둥이가 등장하는 경우는 총 60 여편 중 13편으로 수가 드물다. 문둥병의 발병률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기도 하지만, 신체의 외관이 손상되는 문둥병의 증세는 상대적으로 외모가 강조되는 여성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때문에 여자 문둥이를 소재로 한 각편은 드물 뿐 아니라 기혼의 여자 문둥이가 등장하는 경우는 한 편도 없다. 문둥이 처녀는 문둥이 총각이나 문둥이 남편 보다 강력한 결핍에 놓였기에 문둥병 치유에 대한 보은 역시 심화된다.

13편의 문둥이 처녀담 중 <인두골 천연수로 풍병 고친 부녀> 1편을 제외한 12편의 이야기가 「문둥병에 걸린 처녀가 우연하게 만난 남성과 결연을 맺고 병이 나은 후, 이에 대한 보은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비슷하게 전개된다.

3.2.1. 각편의 존재 양상

| 번호 | 권 | 호 | 쪽 | 지역1 | 지역2 | 성별 | 분류번호 | 분류 색인 | 제목 |
|----|---|----|----------|-----|-----|----|-------|----------------------|-------------------|
| 1 | 1 | 1 | 710 | 서울 | 도봉구 | 남 | 231-4 | 이인으로 바뀔 못한 친척 | 적선으로 얻은 문둥이 처녀 |
| 2 | 4 | 5 | 132 | 충남 | 부여군 | 남 | 715-3 | 지나가다 만난 남녀 인연 맺고 잘되기 | 태모시 장수의 기연 |
| 3 | 6 | 2 | 198 | 전남 | 장성군 | 여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인덕으로 부자되다 |
| 4 | 6 | 2 | 540 | 전남 | 장성군 | 남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문둥병 처녀 낮게 한 종각 |
| 5 | 6 | 4 | 670 | 전남 | 함평군 | 남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양 마부와 문둥이 각시 |
| 6 | 6 | 8 | 866 | 전남 | 고흥군 | 남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 |
| 7 | 7 | 3 | 340 | 경북 | 영덕군 | 남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문둥병 고친 이야기 |
| 8 | 7 | 3 | 354 | 경북 | 영덕군 | 여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술래군의 횡재 |
| 9 | 7 | 12 | 177 | 경북 | 월성군 | 남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정급자 부자의 행운 |
| 10 | 8 | 5 | 258 | 경남 | 거제군 | 남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과거군과 문둥이 처녀 |
| 11 | 8 | 8 | 190 | 경남 | 김해군 | 남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선비와 나병 처녀 |
| 12 | 8 | 9 | 116 6 | 경남 | 거창군 | 남 | 715-3 | 지나가다 만난 남녀 인연 맺고 잘되기 | 처복이 있어 팔판서 둔 선비 |
| 13 | 7 | 8 | 166 | 경북 | 군위군 | 여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인두골 천연수로 풍병 고친 부녀 |

총 13편에 이르는 문둥이 처녀담의 지역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 문둥이 처녀담은 경상도와 전라남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서울에 전하고 있는 <적선으로 얻은 문둥이 처녀>가 경상남도 진주를 설화의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3개의 작품 중 12개의 작품이 경상도와 전라남도에 몰려 있는 셈이다. 덩고 습한 지역에서 쉽게 발발하는 문둥병의 특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 지역의 경우 문둥이 설화 이외에도 야류와 오광대와 같은 가면극의 장르에서 문둥이 과장이 존재하여 문둥병 모티프와 지역성의 상응 관계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된다. 문둥병의 치유 소재도 남부 지역의 설화에서만 물고기가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뚜렷한 지역색이 드러난다.

문둥이 처녀담은 문둥병에 걸린 처녀가 우연한 기회에 만난 남성과 결연을 하고 병이 나은 후, 이에 대한 보은을 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3.2.2. 각편의 서사 단락

1. 적선으로 얻은 문둥이 처녀(서울시 도봉구/710쪽/남자)

1. 진주 근방에 한 부잣집 아버지가 죽어 묘자리를 찾는다.
2. 풍수를 짐작하는 아버지가 묘자리로 대략 봐 둔 곳은 있었지만 일석지지를 찾을 수 없었다.
3. 이인의 풍모를 지닌 외삼촌에게 도움을 청한다.
4. 묘자리를 둘러 본 외삼촌이 큰 적선을 해야 찾을 수 있겠다며 형제에게 일러 준다.
5. 큰 상주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6. 해가 저서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발견하고 가보니 허름한 움막이 있었다.
7. 하룻밤 유숙을 청하고 혼자 사는 처녀가 이를 허락한다.
8. 여자는 부모가 돌봐주는 양식으로 움막살이를 하던 문둥이 처녀였다.
9. 처녀의 미모에 이끌린 남자가 동침을 하는데, 죽기 전에 남자 구경을 하고 싶은 여자에게 큰 적선을 베푼 셈이 된다.
10. 상주가 아침에 일어나 문둥이 처녀임을 안다.
11. 놀란 상주는 다음에 다시 들른다면 도망친다.
12. 묘자리 잡으려는 상주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문둥이와 동침했다며 자책한다.
13. 모든 것을 짐작한 외삼촌이 귀가한 상주를 큰 적선을 했다며 반가이 맞고 명당을 찾는다.
14. 문둥이 처녀가 남편(상주)을 위해 빚은 술에 구렁이가 빠져 죽었다.
15. 남편을 기다리던 문둥이 처녀가 모르고 마신 후 한숨 잔다.
16. 구더기가 방에 수북히 빠지고 며칠 지나고는 가족이 활짝 벗어지고 미인이 되었다.
17. 친정집에서 양식을 보냈다가 병이 나은 연유와 아기를 가졌음을 알게 된다.
18. 몇 달 뒤 외삼촌이 문둥이 처녀가 병이 나아 미인이 되었으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며 지리산으로 상주를 보낸다.

19. 함께 하산하고 명당을 쓴 덕에 모두 잘 되었다.

2. 태모시 장수의 기연(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남자)

1. 홍산면 식송 사는 김씨가 전라도에 가서 태모시 장사를 한다.
2. 마누라를 얻어달라고 부탁하는 홀아비 친구네서 머무르고 장사를 나선다.
3. 새벽에 보따리를 든 여자를 만나자, 함께 가자며 데리고 와서 친구에게 중매한다.
4. 친구 내외는 극진히 대접해주지만, 장사는 여자가 든 보따리에 돈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복을 놓친 것을 분해 한다.
5. 어느날 구룡평야를 지나던 중, 보따리를 든 여자를 만나 동침한다.
6. 아침에 보니 문둥이 처녀였다.
7. 장사는 떼어내려 하지만 문둥이 처녀는 완강히 따른다.
8. 장사는 문둥이 처녀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왕래를 끊는다.
9. 문둥이 처녀는 술을 담갔으나 아무도 오지 않자 마신다.
10. 허물이 벗고 병이 낫고 미인이 된다.
11. 술을 살펴보자 술에 뱀과 온갖 것들이 빠져 죽어있었다.
12. 문둥이 처녀는 아들을 낳고, 미인이 된 후 장사가 잘되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짓고 아들을 가르친다.
13. 십 년이 넘도록 문둥이 처녀를 찾지 않은 장사는 문득 안부가 궁금해서 방문했다 큰 집에서 아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다.
14. 문둥이 처녀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이후 부자가 되어 함께 살았다.

3. 인덕으로 부자되다(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여자)

1. 가난한 부부가 살았다.
2. 남자가 노름이라도 해서 부모님 드릴 선달 그믐날 밥을 장만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3. 남자가 함께 살자며 따라온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본부인의 의향을 묻는다³⁰⁾.
4. 본부인이 골방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동거를 허락한다.
5. 남자는 따라온 여자가 아들을 나아주길 기대하나 몸이 성치 않아 내쫓으려 한다.
6. 본부인이 만류한다.
7. 남자가 고기쌈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이무기를 잡는다.
8. 본부인이 이무기 절반을 달라하여 술에 삶아 문동이 처녀에게 먹인다.
9. 문동이 처녀가 허물을 벗고 아들을 낳는다.
10. 아들이 자라서 칼을 가져와 어머니(문동이 처녀)에게 출신을 묻는다.
11. 어머니는 본래 서울 대종가집 딸인데 모진 병이 들자 부모님이 챙겨주신 재산을 들고 집을 나왔다고 고백한다.
12. 아들은 어머니의 사연을 편지에 적어 서울 외가에 전한다.
13. 외가에서 몹시 기뻐하며 이후 골방 처녀의 집은 큰 부자가 되었다.

4. 문동병 처녀 낫게한 총각(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남자)

1. 남의 집 살던 총각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인가를 발견한다.
2. 문을 열어 준 예쁜 여자와 동침한다.
3. 아침에 일어나니 문동이 처녀였다.
4. 문동이 처녀는 정승의 딸이지만 병에 걸려 움막에서 기거하며 집에서 날라준 음식으로 살고 있다.
5. 다음해에 만나기로 하고 남자는 돌아간다.
6. 남자를 기다리며 문동이 처녀가 술을 담근다.
7. 술에 살모사가 빠진 것을 모르고 마신다.
8. 환골탈태 되어 병이 나았다.
9. 음식을 날라주던 종이 문동이 처녀가 병이 나아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본가에 말한다.
10. 문동이 처녀가 그간 사정을 얘기하고 총각과 결혼한다.

30) 구연 과정에서 문동이 처녀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5.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남자)

1. 능주 다라실 양씨의 시조는 양마부였다.
2. 삼십여 살의 양마부가 능주 군수의 서울길을 배행한다.
3. 돌아오는 밤 동작장에서 울음소리를 듣는다.
4. 가보니 양반 행색의 처녀가 물에 빠져 죽으려 한다.
5. 양마부가 동행을 제의하자 처녀가 승낙하고 인연을 맺는다.
6. 이목을 피해 말에 태우고 강을 건넌다.
7. 날이 새고 보니 문둥이 처녀였다.
8. 내일 보자며 처녀를 내치려한다.
9. 처녀가 죽어서도 따르겠다며 완강히 거절한다.
10. 양마부가 처녀와 함께 고향에 돌아온다.
11. 남 부끄럽다며 뒷광애다 거처를 정한다.
12. 노모에게 처녀의 뒷바라지를 부탁한다.
13. 어느해 가뭄이 들어(날이 껌껌해) 냇물이 마르자 사람들이 가래질을 한다.
14. 양마부도 가래질에 참여하나 한 마리도 못 잡는다.
15. 화가 난 양마부가 밖에 나와 담배를 핀다.
16. 뿔이 벌어진 곳에서 푸른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달려든다.
17. 양마부가 한 자가 넘는 가물치를 잡는다.
18.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라며 약으로 쓰이는 것이라며 소중히 하라고 이른다.
19.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소금 뿌려 측간 덕음에 올려둔다.
20. 문둥이 처녀가 화장실 다니다 발견하고 다 먹는다.
21. 다음날 아침 노모가 문둥이 처녀가 죽어 자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22. 사흘만에 허물을 벗고 깨어난 문둥이 처녀가 병이 낫는다.
23. 집에 돌아온 양마부가 처녀와 결혼을 한다.
24.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동생에게 조사를 부탁한다.
25. 부인의 동생이 전라 어사로 부임한다.
26. 양마부를 찾은 어사가 부인에게 친정 위치와 대문, 부엌 등의 위치를 물어 누님임을 확인한다.
27. 어사가 양마부에게 명지와 마포 등을 바꾸고 좋은 의복과 정자관, 도포, 긴

담뱃대 등을 갖추어 준다.

28. 어사가 양마부에게 어사 출두시 모셔오라는 말을 무시하고 직접 오라고 호령하라고 일러준다.
29. 거절하는 양마부를 군수가 모시고 오자 어사가 버선발로 맞는다.
30. 이틀 뒤 돈 많은 아전을 잡아들인다.
31. 아전들이 양마부의 힘을 빌리기 위해 돈집과 편지를 뇌물로 보낸다.
32. 양마부가 부자가 되었다.

6.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남자)

1. 해남 윤씨 한 사람이 면사무소(군사무소) 연락책 하인을 했다.
2. 업무차 서울에 들른다.
3. 새벽에 내려오다 영등포 부근에서 떠돌이 처녀를 만난다.
4. 동침을 하고서야 문둥이임을 알게 된다.
5. 버리려 하나 문둥이 처녀의 뜻이 완강하다.
6. 해남 입구에 막을 지어 거처를 마련해주고 근근히 돌보아 준다.
7. 처녀가 가지고 온 패물을 팔아 남편과 살아간다.
8. 어느해 홍수에 장어도 구렁이도 아닌 짐승이 하나 밀려온 것을 윤씨가 산다.
9. 고기를 말렸다가 문둥이 부인에게 끓여 준다.
10. 윤씨가 서울에 다녀온 사이 허물을 벗고 이쁜 색시가 되었다.
11. 부인이 아들 삼 형제를 나아 공부를 가르친다.
12. 부인이 남편에게 서울 가는 길에 김 대감 집에 전해달라며 편지를 준다.
13. 김대감이 편지를 읽고 문둥이가 되어 쫓아보냈던 딸의 사위로 맞는다.
14. 몇 년 뒤 삼 형제가 과거를 보게 되자 합격을 부탁한다.
15. 대감인 외조부 덕에 삼 형제는 모두 큰 벼슬을 한다.
16. 이후 해남 윤씨의 이름이 높아지고 벼슬을 한 양반이 많아졌다.

7. 문둥병 고친 이야기(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남자)

1. 서울 대가집에서 딸이 문둥병에 걸리자 외딴 집에 내보내고 살림을 돌본다.
2. 몇 해 뒤 근처 나무꾼들이 문둥병 처녀와 동침할 사람을 두고 술내기를 한다.
3. 한 총각이 자청하고 문둥병 처녀의 집을 찾는다.
4. 총각은 유도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문둥병 처녀와 동침한다.
5. 떠나려는 유도령을 문둥이 처녀가 붙잡자 남의 농사짓는 사람이라 안 된다며, 일이 한가한 겨울에 찾겠다고 약속한다.
6. 문둥이 처녀는 술을 잘 마신다는 유도령을 기다리며 술을 담근다.
7. 문둥이 처녀가 술맛을 보다 취해 잠든 사이 빨간 벌레가 나오고 병이 나뉜다.
8. 술동이 바닥에는 구렁이가 죽어 있었다.
9. 본가에서 병을 고친 처녀를 시집보내려 하자 처녀는 유도령만을 고집한다.
10. 본가에서 남의 집 살던 유도령을 수소문해 결혼하고 잘 살았다.

8. 술래군의 횡재(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여자)

1. 두 술래군이 형제처럼 지내며 말을 몰고 서울을 오고가며 샅을 받아 살았다.
2. 어느날 형편이 어려워던 형이 말을 팔아 여관을 샀다.
3. 어느날 밤 서울에서 동생이 일감을 찾던 중, 한 과부가 상자를 갖고 담을 넘어와 동행을 청한다.
4. 여자가 숙소에까지 따라 들어오나 동생은 형님을 떠올리며 다른 방에 머문다.
5. 과부는 동생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찌 형에게 넘기냐고 힐난하나 동생은 응당 형이 먼저 장가를 가야 한다며 양보하고 형과 과부를 혼인시킨다.
6. 과부가 가져온 '천은 구바닥'이 들어있던 상자를 열어 딱 옷 한 벌 거리만 동생에게 준다.
7. 동생은 과부의 재물을 보자 욕심이 나서, 자신이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며 다음을 다짐한다.
8. 어느날 밤 술래를 돌며 일감을 찾던 동생에게 또 예쁜 여자가 보따리를 들고

답을 넘더니 동행을 청한다.

9. 걱정만 동생은 함께 동침하나, 아침에 보니 문둥이었다.
10. 동생은 문둥이 처녀를 버리려 하나, 문둥이 처녀는 인연을 맺고서는 버릴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틴다.
11. 동생이 문둥이 처녀를 떼어버리고 도망치나, 문둥이 처녀는 끝내 집에까지 따라온다.
12. 집에 돌아와 형수에게 푸념하는 시동생을 만류하며, 형수는 움막에 거처를 마련해 주게끔 이른다.
13. 형 내외는 형수가 가져온 재산으로 큰 여관을 차렸다.
14. 형수는 동생이 팽개친 문둥이 처녀를 돌보며 기생들의 버선을 바느질하는 일감을 구해주었는데 문둥이 처녀가 뛰어난 솜씨를 발휘한다.
15. 형수가 저고리, 도포 등의 일감도 모아주어 문둥이 처녀는 큰 돈을 벌어 땅에 묻어두었다.
16. 어느날 가뭄이 들어 큰 연못이 마르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
17. 형수가 시동생에게 고기를 잡아 부인(문둥이 처녀)에게 주라고 권한다.
18. 억지로 나간 동생은 남들이 다 잡아간 후 남은 이름 모를 물고기를 가져다가 문둥이 처녀에게 팽개치듯 준다.
19. 문둥이 처녀는 고마워하며 고기를 다 구워 먹고는 자지러지듯 누웠다.
20. 다른 식구들이 문둥이 처녀가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내러 갔더니 문둥이 처녀는 허물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다.
21. 문둥이 처녀는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짚을 한 단 청한다.
22. 신랑에게 짚을 꼬아 줄을 만들게 하고는, 묻어 두었던 돈을 캐어 엮는다.
23. 부인은 서울 이정승 딸인데 문둥병에 걸려 수용소에 가게 되자 술래군을 따라 나온 것이라며 자초지종을 밝히며 친정에 전해주라며 편지를 마련한다.
24. 대감댁을 찾아 편지를 전해 그간의 사정을 알리자 친정에서 딸을 모셔오게 해서 큰 기와집과 하인들과 많은 재산을 주고 벼슬도 시켜주어 이후 술래군은 여관을 하는 형보다 수십배 부자가 되었다.

9. 정급자 부자의 행운(경상북도 월성군 외동면/남자)

1. 합천군 초계에 합천 정씨 성을 가진 정급자가 살았다.
2. 몹시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3. 성실함으로 신용을 얻어 장가를 갔다.
4. 남자는 주위의 걱정에도 아랑곳 않고, 새 논을 일구기 위해 말라 죽은 당수 나무를 베어낸다.
5. 나무의 썩은 구멍에서 살던 큰 구렁이가 남자의 도끼에 맞고 죽는다.
6. 구렁이를 소금에 절여 말려 뒷방 벽장에 넣어둔다.
7. 이후 살림이 나아지고 아들(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정급자가 됨)도 태어났다.
8. 아들이 이십 여세가 된 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한다.
9. 밤을 새워 가던 중 보따리를 가지고 가던 한 처녀를 만난다.
10. 아들은 아름다운 용모에 반해 인근 열녀각에서 동침한다.
11. 동침 후 보니 문동이 처녀였다.
12. 아들은 버리려 하나 문동이 처녀는 인연을 버릴 수 없다며 완강히 따른다.
13. 아들은 과거 치르고 올 동안 뒷방에 거처하게 해달라는 편지와 함께 문동이 처녀를 고향집으로 보내고 과거에 합격한다.
14. 남자의 고향집에서 연명하던 문동이 처녀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를 발휘한다.
15. 문동이 처녀는 벽장에서 바느질감을 꺼내다 구렁이 말린 포를 발견한다.
16. 이것을 먹고 삼사일을 자는 동안 몸에 악귀가 모두 나오고 병이 나았다.
17. 처녀는 남자의 부모에게 천상(天上)에서 살다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았지만 기간이 다 되어 환생했다고 말을 꾸미고, 부모는 환골탈태한 처녀를 며느리로 내정한다.
18. 금의환향한 정급자와 결혼해서 잘 산다.
19. 어느 날 문동이 셋이 정급자의 집에 동냥을 온다.
20. 부인(문동이 처녀)은 문둥이들을 뒷방에 머물게 하고 아침을 준다.
21. 문둥이들이 뒷방 벽장에서 먹다 남은 구렁이 말린 포를 발견한다.
22. 이것을 먹고 취해 삼사일 동안 죽은 듯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나간다.
23. 청년들이 돈을 잔뜩 싣고 정급자를 찾는다.
24. 정급자가 연유를 묻자 청년은 자신이 동냥왔던 문둥이였음을 밝히고 보답

을 위해 찾았음을 밝힌다.

25. 대화를 듣던 부인이 아침을 권하며 버선 세 켤레를 신어보게 한다.
26. 버선이 꼭 맞자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본디 4남매였는데 모두 문둥병에 걸려 집을 떠났다가 3형제는 병을 고쳤지만 누님의 행방을 몰라서 운다며 자신들은 병을 고치고 통영 통제사에게 돈을 얻어 가져왔다고 이야기한다.
27. 부인이 친형제들과 상봉하고 자신들이 대신의 자제들임을 밝힌다. .
28. 정급자는 처가의 연줄로 아주 잘되어 훗날 정승까지 했다.

10. 과거군과 문둥이 처녀(경상남도 거제군 신현읍/남자)

1. 한 남자가 과거를 보나 세 차례 떨어진다.
2. 집으로 가던 밤, 종로에서 붓짐을 든 예쁜 처녀를 만나 뒤를 따르다 동행하며 인연을 맺는다.
3. 돈이 없는 남자의 여비를 여자가 대신 치른다.
4. 남편이 본부인 볼 낮이 없어하자 여자가 사정을 설명하며 오해를 푼다.
5. 여자가 자신의 돈을 내어 살림을 꾸리며 본부인과 우애있게 지낸다.
6. 지내다가 문둥이 처녀였음이 드러난다.
7. 부부가 문둥이 처녀에게 진 신세를 생각해서, 냇가 건너에 오두막을 지어주고 본부인이 양식을 날라준다.
8. 어느 날 집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한 술에 구렁이가 빠져 죽는다.
9. 본부인이 이를 버리지 않고 봉하여 둔다.
10. 어느 날 부부는 물이 불어 문둥이 처녀에게 밥을 전해주지 못하고 안타까와한다.
11. 날이 개었지만, 부부는 문둥이 처녀가 굶어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하러 나간다.
12. 배고픈 문둥이 처녀가 남편집에 왔다가 봉해진 술을 마시고 돌아와 누웠다.
13. 장사 치를 준비를 하던 부부가 불빛을 보고 움막으로 건너온다.
14. 미인이 된 문둥이 처녀가 문을 열며 목욕물을 부탁한다.
15. 목욕을 하며 허물을 벗은 문둥이 처녀가 자던 방을 보니 벌레가 가득했다.

16. 병이 나온 곡절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함께 산다.
17. 서울 큰 부자의 딸이지만 문둥병에 걸려 큰 재산과 함께 내쫓겼던 문둥이 처녀가 가져왔던 보자기에는 금이 가득했다.
18. 갈 곳 없던 문둥이 처녀를 받아준 남편과, 정성껏 돌보아준 본부인의 은혜를 갚았다.

11. 선비와 나병 처녀(경남 김해군 이북면/남자)

1. 한 선비가 공부에만 열중하고 생계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2. 부인이 방아품을 팔아 생활하던 중 형편이 어려워 머리카락마저 팔 지경에 이르자 선비에게 불평했다.
3. 선비가 미안해하며 집을 나선다.
4. 서울 이 정승의 외동딸이 문둥병에 걸려 동구 밖에 움막을 지어 내보내고 살림을 돌보아 주었다.
5. 선비가 움막을 지나다 문둥이 처녀가 글 읽는 소리에 끌려 병은 아랑곳 않고 온종일 글을 주고 받다 귀가한다.
6. 온종일 선비를 기다리던 부인에게 오늘 잘 놀다 들어왔다며 내일을 기약한다.
7. 다음날도 선비는 병막에 들러 글을 주고 받고 돌아오며 부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만 이른다.
8. 문둥이 처녀는 선비가 매일 병막에 들러 꺼리거나 사심 없이 글동무가 되어 준 것을 감사해하며 선비를 위해 술을 빚는다.
9. 문둥이 처녀가 정성껏 빚은 술독에 구렁이가 빠져 죽을 것을 보고 낙심하자 선비는 개의치 말라며 구렁이가 있는 그대로 술을 채에 거른다.
10. 선비가 술을 나누어 마시다 잠이 든 새 문둥이 처녀 몸에서 많은 양의 구더기가 쏟아진다.
11. 먼저 깬 문둥이 처녀가 먼목이 없어하며 청소 하는 사이 선비가 일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라며 내일 다시 놀러 올 것을 약속하고 귀가한다.
12. 문둥이 처녀는 벌레가 모두 나온 뒤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된다.

13. 밥을 가져왔던 종이 문동병 처녀 몸에서 벌레가 나오고 남자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대감 부인(문동이 처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나 믿지 않는다.
14. 다음날도 문동병 처녀를 다시 찾은 선비는 평상시와 다를 없이 글을 짓다 돌아간다.
15. 대감 부인이 확인하기 위해 움막에 들렀다가 딸에게서 선비와 그간의 사정을 듣는다.
16. 대감 부인은 은혜를 갚기 위해 선비의 거주를 알아둘 것을 이른 뒤 집으로 돌아가 대감에게도 사실을 전한다.
16. 문동이 처녀가 밥을 가져온 종을 통해 사는 곳과 김 아무라는 이름을 알린다.
17. 정승이 김 선비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자, 선비는 처녀의 병은 신경 쓰지 않고 글을 주고받는 친구로 지냈다고 이야기한다.
18. 정승이 장가간 처를 물리치고 처녀와 결혼할 것을 제안하자 선비는 거절한다.
19. 처녀도 은인인 선비가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자 정승은 큰 살림을 떼어 딸도 선비에게 시집보낸다.
20. 본부인이 돈도 벌지 못하고 글만 읽더니 끝내는 정승 사위가 되어 큰 재산을 얻었다며 얻어먹어도 글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처복이 있어 팔판서 둔 선비(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남자)

1. 충청도 한 선비가 글을 좋아하나 과거에 11번째 떨어졌다.
2. 귀가하던 새벽, 남대문 근처에서 한 젊은 부인이 보따리를 들고 따라온다.
3. 연유를 물으니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따라 서울을 떠나려 한다며 동행한다.
4. 밤이 되어 여자는 겸상을 권하나 본부인이 무서웠던 선비는 밤이 되자 여자를 다른 방에 머무르게 한다.
5. 선비는 여자를 거절하며 주막에 있던 한 남자와 중매를 선다.

6. 여자가 갖고 있던 금은보화로 결혼한 남자는 큰 부자가 된다.
7. 복을 놓쳐 화가 난 선비는 귀가하여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부인은 과거도 떨어지고 배짱 없는 선비를 책망한다.
8. 이듬해 부인의 권유로 과거길에 오른 선비는 또 낙방한다.
9. 귀가하던 새벽, 남대문 근처에서 한 부인이 보따리를 들고 따라온다.
10. 서울을 떠나려한다는 부인의 말을 듣고 바로 동침한다.
11. 아침에 보니 문둥이 처녀라, 떼어버리려 하나 여자가 완강히 따른다.
12. 선비는 어쩔 수 없이 문둥이 처녀와 함께 귀가한다.
13. 본부인은 오히려 문둥이 처녀를 빈 방에 혼연히 맞아들인다.
14. 문둥이 처녀는 본부인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으며 뛰어난 솜씨로 바느질을 도우며 지낸다.
15. 1년 뒤 본부인이 다시 선비에게 억지로 과거를 권한다.
16. 과거길에 오르는 선비에게 문둥이 처녀가 서울에 전해주라며 편지를 준다.
17. 문둥이 처녀가 말한 대갓집에 편지를 전한다.
18. 과거 간 사이 본부인이 초군들이 먹던 고기를 얻어 문둥이 처녀에게 구워 먹였는데, 이를 먹고 병이 낫는다.
19. 문둥이 처녀가 본부인이 병구완을 해주어 병이 나았다고 써 주었는지라 정승인 아버지는 사위를 후히 대접한다.
20. 선비는 과거날 시관인 장인이 사위에게 답을 미리 적어준 것을 그대로 써 내어 장원급제한다.
21. 대감 부인이 딸을 만나러 선비와 함께 왔다 식구를 모두 서울로 데리고 올라온다.
22. 본부인에게 아들 4형제, 문둥이 처녀에게서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8형제가 모두 판서를 지냈다.

13. 인두골 천연수로 풍병 고친 부녀(경북 군위군 소보면/여자)

1. 한 부잣집에 청송이 매사 뛰어난 며느리가 있었다.
2. 어느 여름, 원님이 행차하다 목이 말라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다.

3. 우물가 있던 며느리가 물에 버들잎을 띄워 준다.
4. 이유를 묻자 급히 마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대답한다.
5. 며느리에게 감탄한 원님이 뒤를 따라가서 시부모에게 소개를 받는다.
6. 원님이 며느리에게 목침 세 개를 둔우고 올라가게 한 후 복숭아 나무 회초리로 발목부터 두드리자 빨간 벌레가 두 마리 나왔는데 한 마리를 잡고 한 마리는 놓친다.
7. 며느리가 삼 년 후에 문둥병이 걸릴 상이라 막아주려고 했는데 한 마리를 놓친 것을 아쉬워 한다.
8. 삼 년 후, 며느리가 문둥병에 걸리자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집을 나온다.
9. 걸식을 하던 중 개가 닭을 괴롭히는 것을 구해 주인에게 찾아주려 하나, 주인이 나서지 않자 만년 묵은 밀짚에 구워 먹는다.
10. 밖에 나가 인두골(人頭骨)에 천연수를 마시고 잠이 든다.
11. 벌레가 벌겁게 나오고 허물을 벗고는 병이 낫는다.
12. 여전히 걸식을 하러 다니는 며느리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사준 거울을 보고서야 자신이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된다.
13. 집으로 돌아가 잘 살았다.

이상에 소개한 13개의 문둥이 처녀담 각편 중 문둥이 처녀가 등장하지만 결연과 치유, 보은이라는 틀을 만족하지 않는 각편 13 <인두골 천연수 풍병 고친 부녀>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각편을 중심으로 다음장에서 구조적인 틀과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4. 문둥이 처녀담의 구조적 틀과 의미

이상의 12개의 문둥이 처녀담에서 도출한 주요 화소는 아래와 같다.

문둥이 처녀담의 각편에서 등장하는 서사단락은 [A 남자 주인공의 소개], [B 부자 여자와의 만남과 결연], [C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과 결연], [D 문둥이 처녀와의 절연 위기], [E 문둥이 처녀와의 결연 지속], [F 문둥이 처녀의 보은 1], [G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계기], [H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과정], [I 문둥이 처녀의 가족 상봉], [J 문둥이 처녀 가족의 보은] 등으로 분류된다. 본 장에서는 이를 A-B-C-D-E 문둥이 처녀와 남자의 만남과 결연에 관한 결연담으로, G-H 문둥이 처녀의 치유에 대한 치유담으로, F-I-J 문둥이 처녀 및 가족의 보은을 보은-치부담의 구조로 인식하고 각 구조의 주제 의식을 다루도록 하겠다.

4.1. 결연담

결연담에서는 ‘결핍된 상황에 처한 남자 주인공이 문둥이 처녀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전개되며 A에서 F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문둥이 처녀와 남자 주인공의 결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A 남자 주인공의 소개와 C와 D의 문둥이 처녀와의 결연과 위기는 필수적으로 이며, 문둥이 처녀와 남자 주인공의 결연 이전의 단락에 해당하는 A와 B 단락은 각편에 따라 모티프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결연 위기의 극복 여부에 대한 단락인 E는 각편 서사 전개 전반(全般)에 영향을 끼치는 단락

이므로 주목을 요한다.

A. 남자 주인공 소개 : 결핍이 있는 남자주인공이 있었다.

1. 진주에 한 부잣집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명당을 찾기 위해 적선을 하러 나선다.
2. 홍산면에 사는 김씨가 전라도에 가서 태모시 장사를 한다.
3. 몹시 가난한 부부가 살았다.
4. 남의 집 머슴 살던 총각이 있었다.
5. 30세가 넘도록 장가를 못 가던 능주 다라실 양씨의 마부가 있었다.
6. 해남 윤씨 한 사람이 관청에서 연락을 전하는 하인을 했다.
7. 남의 집 농사를 짓는 유도령이 있었다.
8. 두 술래군이 형제처럼 지내며 말을 몰고 서울을 오가며 삯을 받아 살았다.
9. 함천 정씨 성을 가진 가난한 머슴을 살던 사람이 노력으로 살림을 늘리며 이 과정에서 이무기를 얻게 되고, 아들이 장성하여 과거를 보러간다.
10. 한 남자가 과거를 보나 세 차례 떨어진다.
11. 한 선비가 공부에만 열중하고 생계에 대한 생각은 않아 부인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에 이른다.

B. 부자 여자와의 만남과 절연 : 우연히 부자 여자와 만나 인연을 맺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2. 새벽에 보따리를 든 여자를 만나 홀아비 친구에게 중매하나, 여자가 가져온 재물을 보고 분해한다.
8. 일거리를 찾던 새벽에 한 과부가 상자를 갖고 담을 넘어와 동행을 청하나, 형님에게 양보하고 결혼시킨다. 과부가 가져온 재물을 보고 아쉬워한다.
12. 새벽에 젊은 여자가 따라오며 동행을 청하나 본부인이 두려워 주막에 있던 다른 남자에게 중매한다. 여자가 가져온 금은보화를 보고 화가 난다.

C.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과 결연 : 우연히 문둥이 처녀와 만나 인연을

맺는다.

1. 적선하기 위해 지리산에 갔다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한 인가에서 예쁜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2. 새벽에 장사하러 나갔다가 보따리를 짊어진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3. 노름이라도 해서 부모님께 선달 그믐밥을 드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한 여자를 만나 동행하고 아들을 낳을 요량으로 인연을 맺는다.
4.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한 인가에서 예쁜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5. 양 마부가 서울길을 배행하고 돌아가던 밤에 물에 빠져 죽으려는 양반 행색의 처녀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6. 관청일로 서울에 왔다 돌아가던 중 새벽녘에 정처 없이 길을 가는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7. 문둥이 처녀와의 동침을 두고 술내기를 하자 유도령이 자청하여 문둥이 처녀의 움막에 들러 인연을 맺는다.
8. 동생이 어느날 밤 서울에서 일감을 찾던 중 보따리를 들고 담을 넘으며 동행을 청하는 예쁜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9. 과거를 보러 가던 밤중에 보따리를 들고 가던 한 처녀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10. 과거 낙방 후 집으로 가던 밤, 길에서 붓짐을 든 예쁜 처녀를 만나 함께 내려와 인연을 맺는다.
11.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섰다가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문둥이 처녀의 움막을 찾고 인연을 맺는다.
12. 과거에 떨어진 선비가 귀향하던 중 남대문 근처에서 보따리를 들고 따라오는 젊은 여자를 만나 동침한다.

D. 문둥이 처녀와의 절연 위기 : 문둥이임을 알고 버리려 한다.

1. 문둥이 처녀임을 알고는 다음에 다시 들른다면 도망친다.
2. 문둥이임을 알고 떼어내려 하지만 문둥이 처녀가 계속 따라온다.
3. 여자가 몸이 성치 않은 것을 알고 내쫓으려 한다.

4. 문둥이 처녀임을 알고는 내년에 만나기로 하고 돌아간다.
5. 문둥이 처녀임을 알고는 내일 보자며 버리려 하나 문둥이 처녀는 죽어서도 따르겠다고 따라온다.
6. 문둥이 처녀임을 알고는 버리려 하나 문둥이 처녀가 완강하게 따른다.
7. 문둥이 처녀가 붙잡자 유도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겨울에 오겠다고 떠난다.
8. 문둥이 처녀임을 알고는 버리려 하나 살아도 죽어도 따르겠다고 버티며 쫓아다닌다.
9. 문둥이 처녀임을 알고는 버리려 하나 처녀는 죽어서도 따르겠다고 버틴다.
10. 여자가 문둥병임을 알고는 남자가 버리려 한다.
12. 문둥이임을 알고는 떼어내려하나 문둥이 처녀는 가는 곳마다 쫓아오며 따른다.

E. 결연 위기 극복 : 함께 귀가하여 거처를 마련해주고 돌본다.

2. 집 근처에 움막을 지어주고 양식을 마련해준다.
3. 처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큰마누라에게 묻자 골방에 기거하게 한다.
5. 남들 안 보게 밤에 돌아와 노모에게 죽이라도 먹여주라고 부탁한다.
6. 이목을 피해 동네 어귀에 움막을 지어주고 식량을 대어준다.
8. 어쩔 수 없이 형님네 집에 데려오자 형수가 나무라며 거처를 마련해주고 밥을 나르며 돌보아 준다.
9. 과거 보는 동안 돌봐달라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문둥이 처녀를 뒷방에 묵게 하며 때때로 끼니를 챙겨준다.
10. 남자가 본부인과 의논하여 냇가 건너에 오두막을 지어주고, 때때로 밥을 해주며 정성을 다한다.
12. 본부인이 앞장서서 아래채 빈 방을 내어주고 대접한다.

결연담의 내용은 A에서 C까지의 만남에서 인연 맺기까지에 해당하고, D와 E는 결연의 위기와 극복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A 남자 주인공의 소개], [C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과 결연], [D 문둥이 처녀와의

절연 위기]가 등장한다. [E 문둥이 처녀와의 절연 위기 극복]은 이야기 유형에 따라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E 단락의 부재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잠재적인 절연의 상태로 퇴행하는 각편의 경우에도 치유담으로의 단락 전개는 유사하게 이어진다.

문둥이 처녀담은 남자 주인공이 문둥이 처녀를 만나 인연을 맺는 것으로 시작된다. 문둥이 처녀라는 호칭에서 드러나듯 여자 주인공인 문둥이 처녀는 문둥병이라는 강력한 결핍을 가진 존재이다. 결핍이라는 조건은 남자 주인공에게도 부여되며 이는 작품의 시작 부분에 제시된다. 남자 주인공의 결핍은 문둥이 처녀가 가진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결핍과 짝을 이루며 작품의 후반에서 문둥이 처녀의 보은과 이로 인한 치부를 통해 충족된다. 문둥이 처녀가 갖는 결핍은 작품 중반부에서 남자에 의한 치병을 통해 충족된다. 즉, 문둥이담은 결핍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인연을 맺음으로써 서로의 결핍을 상쇄시킨다는 결연담의 틀을 빌어 이루어진다.

남자 주인공의 결핍은 가난함, 미천한 직업, 미혼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 등장한다. 첫째, 가난함이라는 경제적 결핍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며, 다른 결핍 조건과 충돌 없이 덧붙어진다. 12개의 각편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각편에 제시된다. 둘째, 미천한 직업을 가졌다는 신분적 결핍은 모든 조건에 가장 우선하며 경제적 결핍과 혼사의 결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핍의 강도가 가장 심화된다. 셋째, 혼사의 결핍은 따로 등장하지 않으며 신분적 결핍에 종속된다. 예컨대 주인공이 양반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가난하지만 부인이 있으며, 미천한 신분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가난하고 장가를 가지 못했다.

미천하지 않으면서 가난하지도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두 개의 각편에서 드러난다. 각편 1 <적선으로 얻은 문둥이 처녀>와 각편 8 <정급자 부

자의 행운>이 그것이다. 각편 1은 신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부자이며, 각편 8은 남자 주인공이 과거군으로 설정되었으며 가난함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두 각편의 남자 주인공 역시 층위는 다르지만 결핍된 상황에 처해 있다. 각편 1은 아버지를 모실 명당을 찾기 위해 적선을 해야 한다. 각편 8은 비록 주인공은 과거를 치를 수 있는 일정 지위 이상의 신분을 누리지만 각편의 첫 부분에 삽입된 서사 단락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머슴이었다는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각편 8의 주인공 역시 결핍의 화소가 존재한다.

남자 주인공이 문둥이 처녀와 인연을 맺는 이유는 술내기(각편 7 <문둥병 고친 이야기>)나 글 읽는 소리에 끌린 경우(각편 11 <선비와 나병처녀>)를 제외하면 모두 아름다운 용모나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는 동침 후 처녀가 문둥이임을 알게 된 후 버리려 한다. 절연의 위기는 문둥이 처녀를 돌보아주는 결연의 지속 단계나 문둥이 처녀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잠재적 절연의 단계로 진행된다.

절연의 위기에서 취하는 남자의 선택은 이후 문둥이 처녀담 전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문둥이 처녀를 방치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각편 1 <적선으로 얻은 문둥이 처녀>, 각편 4 <문둥병 처녀 낫게한 총각>, 각편 7 <문둥병 고친 이야기> 세 편이다. 이들 각편은 문둥이 처녀의 병이 나은 후 재회할 때까지 둘의 인연은 잠재적으로 단절된다. 남자가 돌아간 뒤 홀로 남겨진 문둥이 처녀가 치유담의 주체로 나선다. 남자의 도움이 축소되므로 이어지는 후반부의 보은과 치부의 규모도 함께 축소된다. 각편 11 <선비와 나병처녀>의 남자는 문둥이 처녀와 동침하지 않고 친구 사이로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문둥이 처녀를 건사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놓인다. 각편 10 <과거군과 문둥이 처녀>는 이

미 집으로 데리고 와 동처(同處)한 뒤에야 처녀의 문둥병을 알아차린다. 때문에 두 각편은 절연의 위기가 등장하지 않거나 미약하다.

반대로 주인공 남자가 아침이 되어 처녀의 문둥병을 알아차린 후에도 인연을 지속시켜 돌보아주는 각편들은 이후 전개에서 남자나 남자의 가족의 역할이 증대한다. 남자나 그의 가족이 조력자가 되어 거처와 식량을 마련해 주고 훗날 문둥이 처녀의 병을 치유하는 신이한 음식도 이들이 건내주게 된다. 치유자와 문둥이의 관계가 뚜렷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보은의 폭 또한 확장된다. 때문에 문둥이 처녀의 가족들에게서 재산 뿐 아니라 벼슬도 보은 받는다. 절연의 위기를 극복하는 남자는 비록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은 문둥병이라는 장애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지만, 문둥이 처녀를 내치지 않고 돌보아 줌으로 해서 문둥이 처녀와의 결연을 보은 받을 만한 선행의 차원으로 상승시킨다. 선행과 보은은 인과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결연과 치유 부분에서 드러나는 남자의 선행은 문둥이 처녀의 보은을 강화시킨다. 또한 문둥이 처녀의 보은은 남자 주인공의 치부로 치환되기 때문에 문둥이 처녀와의 결연을 지속시키는 선행을 베푼 남자 주인공은 재물 뿐 아니라 벼슬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E: 절연 위기 해소 | A: 직업의 이동성 | C: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 | I: 치유 음식 제공 | J: 가족 상봉 과정 | K: 보은 양상 |
|----|-------------|------------|----------------|-------------|-------------|----------|
| 1 | 문둥이 처녀를 보살핌 | 많음 | 길(서울) | 남자나 남자의 가족 | 적극적 | 부귀 |
| 2 | 문둥이 처녀를 떠남 | 적음 | 병막 | 문둥이 처녀 | 소극적 | 부 |

부정한 만남을 착한 선행으로 격상시키는 절연의 극복 양상은 남자의 직

업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문둥이 처녀담은 각편 6만을 제외하고 주인공의 직업은 모두 명시된다. 등장하는 직업은 이동성을 기준으로 이동이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마부 혹은 술래군(5, 8), 관청 하인(6), 과거군³¹⁾(9, 10, 12), 장사꾼(2)은 이동이 잦은 직업이며, 머슴(4, 7), 선비(11), 부잣집 아들(1)은 이동이 드문 직업이다. 이동이 드문 직업의 경우에는 만남의 장소가 문둥이 처녀가 가족과 떨어져 요양하고 있는 병막으로 설정된다. 비록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가족이 거처를 마련해주고 노복을 통해 생계를 돌보아 주기 때문에 남자를 향한 문둥이 처녀의 절박함은 감소한다.

이동이 잦은 직업은 길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결연이 이루어진다. 길에는 가족과 떨어져 정처 없이 떠도는 절박한 상황이 부가되므로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는 문둥이 처녀의 애원도 병막에서 만남에 비해 적극적이다. 병막에 기거하는 문둥이 처녀는 아침이 되자 다음에 또 언제 볼 수 있겠냐는 기약 없는 물음을 던지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길에서 남자를 만나는 문둥이 처녀는 자신을 내치려는 남자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따르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한다. 문둥이 처녀의 강력한 의지와 절박한 상황의 동정은 남자의 선행에 촉매로 작용한다. 문둥이 처녀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끼니를 돌보아주는 선행은 치병 이후의 보은담 부분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길은 종종 서울이라는 구체적인 공간과 결합한다. 서울은 큰 부자들이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지인 만큼 다른 지방과는 달리 높은 벼슬아치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상경길에 만난 문둥이 처녀의 신분도 대갓집의 딸이거나 부잣집의 딸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

31)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를 일컫는 과거군은 글만 읽는 것으로 등장하는 선비와는 구별된다

서 치부가 강화되어 부자가 될 뿐 아니라 벼슬까지 누리는 각편들은 모두 남자 주인공이 상경길에 문둥이 처녀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간적 배경을 서울로 설정했기 때문에 물론 남자 주인공의 직업 특성은 이동이 잦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둥이 처녀담은 서울의 길이라는 공간적 배경 뿐 아니라 만남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시간적 배경의 측면에서도 서사 전개에 타당성을 확보한다.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남자가 여자가 이미 문둥이임을 알고 있는 각편 7과 우정의 관계로 결연하는 각편 11을 제외하고는 모두 밤으로 그려진다. 밤이라는 배경은 문둥이 처녀라는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여러 각편에서 구연자가 ‘보양 문디’(<술래군의 횡재>), ‘보한 문디’(<정급자 부자의 행운>), ‘보황 문둥이’(<적선으로 얻은 문둥이 처녀>)’ 등의 용어로 문둥이 처녀의 용모를 묘사해서 이야기 구성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이들은 ‘보양다’, ‘하양다’를 뜻하는 말에 문둥이가 합성된 용어이다. 의서(醫書)에는 문둥병의 증세 가운데 문둥병의 증세 가운데 피부가 하얗게 굳는 백반증이 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둥병을 앓아 생긴 증세를 미인의 하얀 얼굴로 오해해서 부르는 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밤이라는 시간은 문둥병을 감추어줄 뿐 아니라 오히려 문둥이 처녀를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로 위장시켜주기 때문에 주인공 남자는 선뜻 문둥이 처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즉각적인 결연을 맺는다. 그리고 동침한 다음날 아침, 남자 주인공은 문둥이 처녀의 정체를 알고 경악하며 결연 따위는 따위는 아랑곳 않고 문둥이 처녀를 떼어버리려는 데만 골몰한다.

각편에 따라 문둥이 처녀와 남자 주인공의 결연 이전에 [B 부자 여자와의 만남과 결연]이라는 단락이 덧붙기도 한다. B 단락이 삽입된 각편의 수

는 세 개에 불과하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설화 과정에서도 수용되기 때문에 눈 여겨 볼만 하다. 각편 2 <태모시 장수의 기연>, 각편 8 <술래군의 횡재>, 각편 12 <처복이 있어 팔판서 둔 선비>에는 「우연히 길에서 한 여자(과부)를 만나지만, 인연을 맺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여자가 가져온 재산으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자 후회한다」는 내용의 모티프가 삽입되어 있다. 주인공 남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자가 될 수 있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면서 차후에는 절대로 인연을 흘려버리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한다. 어느날 밤 또다시 길에서 우연히 여자를 만나자 남자는 문둥이 처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연을 맺게 된다. 이 같은 형식으로 삽입된 부자 여자와의 만남과 결연 실패라는 단락은 동일한 행동의 모방이 상반된 결과가 빚는 데서 비롯되는 문학적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급작스런 문둥이 처녀와의 결연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야기의 타당성을 높이고 나아가 문둥이 처녀담의 문학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부자인 청상녀와의 만남과 결연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성종 이후 개가를 통해 얻은 자손은 관직에 제한을 두면서 본격화된 개가 금지 풍속은 비정상적인 결연을 낳았다. 설화에서도 이런 세태를 짐작할 수 있는 모티프가 다수 존재한다. 마음에 드는 과부를 점찍었다 한밤을 타 업어가는 보쌘이 남성 주도적인 결연이었다면, 피접 등을 핑계로 집을 나섰다가 길에서 만난 남자를 따라가는 것은 여성이나 친정 주도적인 결연의 예로 꼽을 수 있다.

길을 가다 만난 남자와 인연을 맺는 개가 모티프는 문둥이 처녀담 이외의 설화에서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남자 주인공이 길을 가다 신분이 높거나 부자인 여자와 인연을 맺은 뒤 훗날 여자의 재물과 친

정을 통해 출세하거나 부자가 된다는 내용 혹은 인연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후회한다는 내용³²⁾이다. 다른 하나는 길을 가다 거지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고 버리나 훗날 재회하여 거지 여자가 모은 재물로 부자가 된다는 내용³³⁾이다.

문둥이 처녀담의 경우 이 두 가지 모티프가 모두 등장한다. 전자의 경우 인연을 맺는 여자는 대부분 과부로 설정되는데 이는 비단 문둥이 처녀담에서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서도 공통적이다. 과부를 취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인연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짙게 드러난다. 이는 설화에서 개가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윤리적인 잣대보다 개가하는 여자가 가진 재물의 가치를 우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재물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우월성을 두는 가치관은 문둥이 처녀담의 작품 전반에서 드러난다. 자세한 양상은 보은담의 장에서 다시

-
- 32) 경북 봉화군 범진면 389쪽, 흥병옥, 마누라 덕에 좌수 벼슬, 경남 거창군 거창읍 282쪽, 신추성, 적선하여 잘 산 이야기.
 전북 정읍군 태인면 71쪽, 서보익, 서울에서 부자 여자 얻어온 심부름꾼.
 경북 선산군 무을면 505쪽, 지세해, 상부한 여인 구해주고 출세한 김서방.
 경남 거제군 동부면 242쪽, 진순이, 강고집의 아들.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30쪽, 오필수, 개가법의 시초.
 강원 횡성군 갑천면 457쪽, 진병두, 정승의 사위 된 황도령.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1006쪽, 조원문, 청상 머느리의 음사.
 전남 승주군 주암면 527쪽, 고광옥, 가문에 먹칠 않고 딸 개가시킨 정양파.
 경남 김해군 이북면 709쪽, 김분임, 개가법의 유래.
 충남 부여군 석성면 1057쪽, 임인호, 가난한 나무장사가 부자된 내력.
 경북 봉화군 명호면 829쪽, 이병달, 과거길에 만난 과부.
 충북 영동군 양강면 446쪽, 윤자삼, 돈 많은 과부를 얻어 팔자 고친 머슴.
- 33) 강원 양양군 서면 298쪽, 김효신, 지성을 다하여 복 받은 여인.
 강원 영월군 영월읍 225쪽, 한준혁, 과거 보던 방학수.
 전남 신안군 흑산면 582쪽, 박정국, 거지 첩의 보은.
 전남 신안군 지도읍, 207쪽, 이영신, 황활량 이야기.
 경북 안동군 풍산읍, 446쪽, 김기동, 과거길에 맺은 현풍 락씨의 인연.
 전남 승주군 별량면, 734쪽, 양회운, 샷갓 쓴 소선달.
 충북 단양군 단양읍, 103쪽, 주달업, 거지 여자와 하룻밤 자고 벼슬한 사람.
 전남 승주군 쌍암면, 156쪽, 하동 권씨가 통영 통갯가 된 내력.
 충북 영동군 학산면 542쪽, 거지와 동침하고 팔자고친 원서방.

논의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과 결연이 거지녀의 경우와 유사하게 그려지며, 각편 2의 경우에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며 주막을 꾸려 남자를 수소문함과 동시에 재산을 모은다는 보은담의 부분도 공통된다.

4.2. 치유담

문둥이 처녀는 작품 내에서도 특별한 설명 없이 문둥이, 용천배기, 나병환자 등으로 통칭되고 있다. 문둥이 처녀라는 여자 주인공을 이루는 핵이 문둥병이라는 강력한 결핍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남자 주인공이 결핍은 결연담 부분에서 가난함, 미천함, 미혼 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은담 부분에서 충족된다. 하지만 이에 반해 문둥이 처녀가 겪는 모든 고난과 결핍은 문둥병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로 압축되고 문둥병을 치유하면서 일시에 해소된다. 문둥이라는 굴레는 문둥병의 치유를 통해서만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치유담 부분은 문둥이담에서 가장 고정적이며 필수적인 양상을 갖는다.

문둥이 처녀담의 치유담은 치유의 계기가 되는 음식을 먹기까지와, 음식을 먹은 후의 병이 낫는 과정으로 두 부분에 걸쳐 구성된다. 각기 [G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계기]와 [H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과정]이라 분류하여 각편의 해당 부분을 정리한다.

G.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계기 - 문둥이 처녀가 우연히 신이한 음식을 먹는다.

1. 문둥이 처녀가 남자를 기다리며 담근 술에 (수천년 묵은)지리산 들땃이(구렁이)가 빠진 것을 모르고 마신다.

2. 빗어 놓은 술에 뺨과 온갖 것들이 빠져 죽은 것을 모른채 마신다.
3. 남편이 물을 품은 고기쌈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무기를 잡아오자 본부인이 받아 문둥이 처녀에게 준다.
4. 문둥이 처녀가 남자를 기다리며 담근 술에 (천년만년 묵은)살모사가 빠진 것을 모르고 마신다.
5. 양마부가 가뭍에 냇가에서 잡은 가물치를 측간 위에 널어둔 것을 문둥이 처녀가 먹었다.
6. 홍수에 냇가에 밀려온 장어도 아니고 구렁이도 아닌 짐승을 사서 문둥이 처녀에게 끓여준다.
7. 문둥이 처녀가 남자를 기다리며 담근 술에 구렁이가 빠진 것을 모르고 마신다.
8. 남자가 형수의 권유로 가뭍에 마른 못에서 물고기를 잡아 문둥이 처녀에게 준 것을 먹었다.
9. 바느질감을 찾아 옷장을 열었다가 남자의 아버지가 당수 나무 베어내고 잡은 구렁이(마을 지킴이)를 말려 널어둔 것을 먹었다.
10. 본부인이 제사 준비하려고 술을 빚다가 구렁이가 빠지지만 이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배가 고프니 문둥이 처녀가 남자의 집에 왔다가 마신다.
11. 문둥이 처녀가 선비를 대접하려 담근 술에 구렁이가 빠진 것을 보고 상심하나 선비가 괜찮다며 함께 마신다
12. 본부인이 초군들이 먹던 고기를 얻어다 문둥이 처녀에게 먹였다.

H.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과정 : 문둥이 처녀의 병이 낫는다.

1. 실컷 자고 나니, 구더기가 수북히 빠지고 가족이 활짝 벗어지고 일등 선녀가 되었다.
2. 흘랑 벗어지고 미인이 되며 아들을 낳는다.
3. 허물을 활짝 벗고 아들을 낳았다.
4. 환골탈태가 되어 병이 확 낫고 아들 3형제를 낳는다.
5. 죽은 듯 드러누웠다가 사흘만에 가보니 허물을 벗고 일등 선녀가 되었다.
6. 심부름으로 서울을 다녀온 사이 허물을 벗고 예쁜 색시가 되었다.
7. 술에 취해 한참 자고 일어나니 빨간 벌레와 부은 살이 다 빠지고 병이 나았다.

8. 먹고 자지러져 누워버려 사람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번질’ 벗고 새사람이 되었다.
9. 삼사일 동안 잔 뒤 몸에서 악귀와 전부 나오고 환골탈태한다.
10. 잠이 든 후 껌질을 벗고, 벌레를 쫓은 뒤 미인이 된 문둥이 처녀는 본부인에게 물을 부탁해서 목욕을 한다.
11. 술이 취해 자다가 깨보니 구더기가 나오고, 선비가 집에 간 밤사이 허물이 벗어지고 일등 미녀가 되었다.
12. 병이 낫는다.

문둥병 치유의 계기를 다루는 G단락에서 강조되는 것은 신이한 음식의 소재와 이것을 준비해 준 인물이다. 문둥병의 치유자는 [E 절연 위기 극복]이 나타나는 각편과 그렇지 않은 각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문둥이 처녀를 내치지 않고 돌보아 주는 각편에서는 남자나 남자의 본부인, 아버지, 형수와 같은 남자의 가족이 음식을 장만해 준다.

조력자는 본부인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남편이 길에서 인연을 맺고 데려온 문둥이 처녀와는 가장 적대적이며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는 본부인이 앞장서서 문둥이 처녀를 돌보아주고 병을 치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남자 주인공의 책임 회피나 노력의 부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남자 주인공을 대신하는 본부인의 희생과 선행을 부각시킴으로써 보은의 당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결핍의 양상에서 살폈듯 본부인이 등장하는 각편의 남자 주인공은 과거를 보러 갈 수 있는 상층의 신분으로 설정된다. 범절에 민감했던 양반층에게서 본부인의 투기는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부장적 유교 윤리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앞서 문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룬 2장에서 서양의 문둥병이 성(性)적 문란과 결합되어 여성이 문둥병의 원인

이고 여성을 통해 병이 전염된다는 인식을 가졌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문둥이 처녀담의 본부인과, 비상이나 할고를 통해 남편의 문둥병을 구하는 열녀이야기에서의 부인은 치유자의 존재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서양에서는 부정한 성이 문둥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문둥병 전염의 근원지를 여성으로 점찍었다. 역으로 우리는 문둥이담에서는 정절을 지키는 열녀가 죽음을 무릅쓴 희생을 통해 남편의 문둥병을 치료한다고 믿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서의 가치관 모두 여성과 문둥병을 연계시켰으며 이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문둥이 처녀담에 등장하는 본부인의 조력 역시 남편이 데려온 첩을 두기 않고 돌본다는 점에서 가부장제가 강요하던 열(烈)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무속과 관련하여 문둥이의 문둥병을 치유하고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여무(女巫)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둥이가 탈갑하여 정상이 되는 것은 하나의 통과제의적 성격을 갖는다. 따로 병막에 거처한다거나, 죽음과도 같은 잠을 거치며 나쁜 기운이 빠져나온 후 병이 낫는다는 화소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다. 문둥이 남편을 고치는 열녀나 문둥이 처녀를 고치는 본부인은 통과제의를 주도하는 여무(女巫)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문둥이 처녀의 보은은 문둥병의 치유라는 강력한 동기에서 갖는다. 이 같은 치유의 과정이 남자나 남자의 가족이 주도하기 때문에 문둥이 처녀의 보은과 그로 인한 치부 역시 강화된다. 하지만, 문둥이 처녀를 병막에 홀로 남기는 각편에서는 문둥이 처녀가 스스로 약이 되는 음식을 장만한다. 남자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점에 남자의 개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의 역할은 전자에 비하면 한참이나 미약하다.

문둥병을 고치는 음식의 범주는 일상적 음식, 신이한 음식, 영똥한 음식

으로 등장하는데, 때나 코딱지처럼 웃음을 주기 위한 의도로 등장하는 엉뚱한 음식은 문둥이 처녀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둥이 처녀를 치유하는 음식으로는 가물치, 물고기, 정체 불명의 고기, 이무기, 구렁이(뱀)술, 인두골 천연수가 이용된다.

가물치, 물고기, 고기는 일상적 범주의 음식이다. 물에서 잡히는 고기를 통해 병이 낫는다는 것은 큰 강이 많고 바다와 인접한 남부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문둥이 처녀담의 대부분이 경상·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비교적 일상적인 범주의 소재이지만, 물고기의 종류나 획득하는 과정을 부연하여 신이성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물고기는 주로 홍수나 가뭄이라는 비일상적인 시기에 획득되어진다. 각편 3 <인덕으로 부자되다>에서의 물고기는 구렁이도 장어도 아닌 처음 보는 고기라고 묘사된다. 각편 5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는 남들이 다 잡는 물고기를 혼자 못 잡아 화를 내다 바닥이 드러난 뺨에서 푸른 연기가 솟아 가보니 혼자서는 들지도 못하는 엄청난 크기의 가물치가 있었으며 이웃들도 이것은 보통 가물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이 길게 덧붙으면서 일상성을 극복하고 신이함을 획득한다.

신이한 음식인 구렁이, 이무기, 뱀 혹은 이들을 이용해 담근 술 외에 두 개골에 고인 물을 지칭하는 인두골 천연수가 있다. 인두골 천연수는 문둥이담에서는 예외적으로 등장했지만 원효 대사 이야기를 위시한 여러 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프이다. 구렁이, 이무기, 살모사 등의 뱀 혹은 뱀이 들어간 술은 문둥이 처녀담 뿐 아니라 기타 문둥이담에서도 병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나타난다. [E 절연 위기의 극복]이 일어나지 않아 남자와 동처(同處)하지 않는 각편의 문둥이 처녀는 혼자 은거하는 병막에서 스스로 치유 음식을 획득한다. 물가에 나아가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불가능하니만큼 산중에 사는 문둥이 처녀 혼자 힘으로 구할 수 있는 치유 음식인 뱀술의 등장이 필연적이다.

구렁이, 뱀, 이무기나 이를 담은 술은 문둥이 처녀담 뿐 아니라 다른 문둥이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치유 음식이다. 중국에서도 뱀이나 뱀술이 문둥병에 효험이 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당송팔대가의 한 명으로 칭송되는 유종원의 「포사자설(捕蛇者說)³⁴⁾」에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대풍(大風)은 문둥병을 일컫는 말로 뱀이 문둥병을 고치는 데에도 효험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통용되던 대표적인 중국 의서인 『본초강목』에도 문둥병에 대한 뱀의 효과가 기록되어 있다.

중국 남방의 어떤 지역에는 한 가지 특이한 풍속이 있었다. 젊은 여자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 부모는 돈을 써서 데릴사위를 맞아들이는데(일반적으로 생활이 빈곤한 외로운 남자), 결혼을 통해 딸의 문둥병을 이 채수없는 사위에게 전해주어, 딸의 생명을 구하기를 바란 것이었다. 이것을 “문둥병을 판다”고 불렀다. 이런 방법은 당연히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두 사람의 접촉을 통하여, 물론 남자가 문둥병에 감염될 수는 있겠지만, 여자의 병이 완전히 완쾌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풍속을 사라지게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한 술집 주인의 딸이 문둥병에 걸렸다. 주인은 돈을 써서, 너무 가난하여 밥도 먹을 수 없는 독신자를 얻어, 딸의 문둥병을 그 남자한테 팔려고 하였다. 그러나 딸은 마음이 선량한

34) 永州之野 產異蛇 黑質白章 觸草木 盡死 以齧人 無禦之者 然得而腊之 以爲餌 可以已 大風 變腕 瘻癘 去死肌 殺三蟲 其始太醫以王命聚之 歲賦其二 募有能捕之者 當其租人 永之人 爭犇走焉

영주의 들판에 기이한 뱀이 나는데 검은 색 바탕에 흰색 무늬가 있었다. 그 뱀이 닿은 초목에 모조리 죽었고 사람이 물리면 치료할 자가 없었다. 하지만 그 뱀을 잡아 건육으로 만든 뒤 약으로 먹으면 대풍이나 쥐가 나고 경련이 나는 병, 풍기와 열병 등을 치료할 수 있고 삼충(회충·적충·요충)을 죽일 수 있다. 애당초 어의가 왕명에 의해 그 뱀들을 모아들였는데, 일 년에 두 마리를 진상토록 하였다. 그 뱀을 잘 잡는 사람을 모집하되 잡은 뱀으로 조세수입에 충당토록하니 영지의 사람들이 다투어 나서게 되었다.

착한 처녀로서, 고통스럽고도 죽을 지경인 자신의 질병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첫날밤, 그녀는 아버지가 그들 두 사람을 위해 준비한 돈과 재물을 그 남자에게 넘겨주면서 그더러 뒷문으로 해서 달아나게 했다. 이것을 알아챈 아버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녀를 오래 묵은 술을 저장해 두는 창고에다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밥과 물도 주지 않고, 굶겨 죽이려 했다.

그녀는 안에서 너무나 배가 고파 머리가 아찔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부득이 극자로 옆에 있는 큰 술독에서 술을 퍼서 마셨다. 속담에 “술 중에 음식이 있다”고, 술을 많이 마시면 밥을 적게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술을 마셨다. 한동안 지난 후, 주인은 딸이 벌써 굶어 죽었거니 여기고, 사람을 시켜 관을 짜고, 시체를 엄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도 씻은 듯 나온 것을 발견했다.

주인은 사람을 시켜 그 큰 술독의 술을 몽땅 쏟아내고 검사하게 하였는데, 술독 밑에서 백화사(白花蛇)를 발견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백화사를 술에 담그어 문둥병을 치료했는데 치료효과가 아주 좋았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술집 주인의 딸은 자기 마음속의 선념(善念)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대손손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약품을 찾아주었으며, 후세 사람들에게 복을 마련해 주었다³⁵⁾.

위의 기사대로라면 중국에서도 유종원이 활동하던 당나라 이전부터 이미 민간에서는 뱀술로 문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나라의 문둥이담의 영향 관계는 차후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우리

35) 위 기사는 「대기원신보」의 <행담만보(杏談漫步)> 코너에 한국어판 2004년 12월 5일자로 실려 있다. 기사를 담당하던 이규민 기자에게 확인 결과 「대기원신보」의 뉴욕 본사 발행판에 연재되는 <행담만보(杏談漫步)>를 번역한 것이며 원문은

류종원(柳宗元), 「포사자설(捕蛇者說)」 『류하동집(柳河東集)』 제16권, 이시진(李時珍), 『본초강목(本草綱目)』 권43(卷四十三), 鱗部, 고헌민(高學敏): 『중의약학교급총서(中醫藥學高級叢書)』, 인민위생출판사(人民衛生出版社), 2001년.

등의 서적을 참고하여 쓰여졌다. 기사가 수록된 영문 위치는 <http://www.pureinsight.org/pi/articles/2003/7/7/1697.html> 이다.

나라 뿐 아니라 중국의 설화에도 문둥이담이 존재하며 양국의 문둥이담이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문둥이 처녀담을 위시한 많은 많은 문둥이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뱀술을 통한 치유의 근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사자설」에는 뱀을 말려 포의 형태로 섭취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몇몇 문둥이담 각편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점 역시 문둥이담에 있어 중국과의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듯 싶다.

앞서 문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문둥병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불치의 병이며, 단순한 질병에서 나아가 도덕적인 형벌로 인식되었다. 특히 서양의 도덕적인 형벌이 성적인 문란이라는 틀에서 논의되어졌다면³⁶⁾, 우리나라 고전 문학에서 주인공에게 부과되는 도덕적인 형벌은 종종 적강 화소로 나타난다. 잘못에 대한 징치라는 문둥병에 대한 시선과 적강 화소의 맞물림은 각편 8의 <정급자 부자의 행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병이 나은 문둥이 처녀가 남자의 부모에게 천상에서 살다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았지만 기간이 다 되어 환생했다고 말을 꾸미는 부분³⁷⁾이 그 예이다.

H단락에서 구현되는 문둥병 치유의 일반적인 과정은 약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난 후 문둥이는 죽었다 깨어나거나, 자빠지거나, 죽은 듯 잠이 들고 온몸에서 벌레를 쏘고 허물이 벗어지면서 병이 낫는다. ‘병 → 잠(죽음) → 벌레 → 허물’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치유의 과정은 통과제의의 성격을 띤다. 문둥이는 치유의 약을 먹은 즉시 사나흘간 이어지기도 하는 길

36) 종교적인 문둥이담은 제외한다.

37) 그 처자가 말이,

“나는 하늘 천사(天上)에 있는데, 거짓말을 피해서 천사에서러, 천 천 천력(天力)으로서, 아래 그 죽든 그 날, 깨든 그 날이 만기가 되서 내가 환생해 나왔다.”

이렇게, 그대 말을 이렇게 꾸며 댔다 말이야. - <문둥이 고친 이야기>

은 잠에 빠지는데 이것은 환자가 맞게 되는 가상의 죽음을 상징한다. 비상을 먹고 낫는 문둥이담 역시 죽음의 과정을 약식으로 거친 후 병이 낫는 모습을 보여준다. 약 또는 술에 취해 쓰러지거나 잠이 든다고 표현되는 구절들도 문둥이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이계(異界)로의 이행을 나타낸다.

문둥병으로 상징되는 악한 기운은 벌레의 형태로 몸에서 빠져나온다. 벌레는 때로는 독사³⁸⁾나 악귀³⁹⁾처럼 보다 노골적인 악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비⁴⁰⁾처럼 순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죽기 전까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 위해 문둥이는 죽음과도 같은 잠을 맞고, 문둥이에게 갇혀 있던 나쁜 기운은 벌레의 모습으로 빠져나온 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삶으로의 재생과 부활의 의미는 ‘허물을 벗는다’는 말로 강조된다. 그리고 이같은 문학적 재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뱀과 구렁이이다. 문둥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허물을 벗고 거듭 태어나는 뱀과 구렁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무기와 구렁이, 뱀은 신이함을 부각시키며 허물을 벗고 부정적 상징에서 긍정적 상징으로 거듭나는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점에서 단순한 의학적인 근거에서 뿐 아니라 문둥이담의 핵심적인 부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둥이 처녀가 뒷방, 골방이나 병막 등에 거주한다는 것도 통과제의의

38) “……그래고 일어나니까, 자리 머, 빨, 빨가 구데기가 구물 구물 기 땡기그던. 벌이(벌레)가 그레가주, 그레가주 먹고 또 먹고 다 먹었그던. 다 먹고 그 중엔 보이까, 마 붓고한 살이가여 머 쫘딱 다 빠지고, 그 꼬삭꼬삭 독사들이, 머참 벌기로 다 쓸어갔부고 머 참 메칠…”

39) 마 한 사날(삼사일) 잤부렀어요. 잔 뒤에 그제 인자 그제 연부(연분)인지, 그 뒤에 고마 그 몸에 전부 그 악귀라든지 전부 다 나오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허허 인자 이래 되가 [청중 : 썩은 살까지 다 빠졌구나.] - <정급자 부자의 행운>

40)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든 거야. 잠이 들었는데, 조그만 잠든 데 가 보니깐 벌 듯 말 듯한 나비가 코구멍에서 그냥 무진장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이 눈썹 빠지고 그냥 머리 빠지고 다 그냥 그 문둥병이 그냥 이런 데 험집 입고 그런게 그냥 술술술술…… -<만병통치의 백사주> 중

성격을 심화시킨다. 다른 문둥이담에서도 뒷산 병막 등에 따로 거주하는 예가 많다. 1차적으로는 전염을 막기 위한 격리의 목적에서였겠지만, 문둥병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는 외떨어진 곳이란 의미에서 동굴 모티프와 함께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각편 10 <과거군과 문둥이 처녀>에서 문둥이 처녀는 냇가 건너 오두막에 기거하며 물이 불어 왕래가 어려운 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강물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통과제의의 성격을 심화한다. 문둥이는 동굴과도 같은 움막에서 투병하다 죽음과도 깊은 잠을 자면서 악한 기운을 벌레로 배출하고 부활과도 같은 치유를 맞는다는 것은 통과제의의 설화적 투영에 다름 아니다.

재생과 허물은 목욕과 때로 치환되기도 한다. 목욕과 때의 비유는 성(聖)적인 범주의 종교담과 속(俗)적의 범주에 들어가는 소화라는 상반된 영역에서 드러난다. 임금의 옥체를 문수보살이 씻어주고서는 병이 나았다는 종교적 이적을 다루는 불교담⁴¹⁾은 벌레와 허물, 재생의 모티프를 목욕과 때라는 상징으로 다룬다.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종교적 신성성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이다. 반면 <팔자 고친 건달>, <때로 풍병 고친 이야기>에서도 때는 문둥병을 고치는 약으로 이용되는데, 여기서의 때는 엉뚱하고 비속한 소재로 인해 재미와 웃음을 주려는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몸에 있는 찌꺼기나 나쁜 기운을 응집된 때를 벗어던지고 깨끗해진다는 목욕의 의미는 벌레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과 유사하다.

문둥이담에서 잠, 벌레, 허물의 정화 과정 중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첫째 문둥이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테러했다는 경험담에 가까운 이야기와 둘째 아들의 효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수단

41) 불교에서 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목욕을 통한 문둥병의 치료가 등장한다.

으로 하늘에서 내려 보낸 경우와 셋째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살이나 자식의 살을 베어 먹이는 등 문둥병을 고치려는 치유자의 희생이 강조되는 경우, 넷째 때를 웃음과 재미가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등이다. 이들은 문둥이담의 중심부인 문둥병의 치유 과정을 축소시키고 치유자 희생이나 치유 방법의 영똥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둥이담의 치유 유형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문둥이 처녀담에서도 7편의 각편에서 잠이 등장하며(각편 1,5,7,8,9,10,11) 5편의 각편에서 벌레가 등장하고(각편 1,7,9,10,11), 허물을 벗는 모습은 각편 11을 제외한 모든 각편에서 존재한다. 치유의 단계가 삽입되지 않은 이야기는 각편 11 <처복이 있어 팔판서 둔 선비>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구연자가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과정을 이야기 하는 도중 구연 순서가 틀려 바로잡으려고 하다 실수로 빼먹은 듯 싶다⁴²⁾.

앞서 2장의 문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도 언급했지만 단지와 할고로 대표되는 실록의 기록들과 문둥이담의 열녀 이야기에도 주술적인 면모는 내재된다. 살이 썩고 끊어지는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믿음은 카니발리즘의 차원 및 프레이저가 1차적인 기본 주술로 제시한 동종 모방을 통한 주술의 시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둥병자가 먹게 되는 비상은 죽기 전까지 나올 수 없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가상의 죽음을 단계를 거치게 해준다. 동시에 이들 비상의 대부분이 문둥병자의 아내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임을 감안하면 함께 죽으리라는 각오 혹은 자신을 희생하여 치료라는 제의에 제물로 바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도 주술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2) ……그런데 내가 얘기하다가 한 가지 빼먹었지마는…… -<처복이 있어 팔판서 둔 선비>

4.3. 보은담

보은의 형태는 문둥병이라는 결핍이 해소된 여자 주인공이 미천하거나 가난한 남자의 결핍을 치부로 해소시켜 줌으로 해서 이야기가 완결된다. 보은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F. 문둥이 처녀의 보은 1 : 재산을 털거나 바느질로 살림을 돕는다.

2. 친정에서 가져 온 패물을 남자에게 주어 식량을 장만해 먹었다.
4. 남자와 동행할 때 뿐 아니라 문둥이 처녀의 재산으로 살림을 한다.
8. 문둥이 처녀가 소일삼아 바느질을 한다.
9. 형수의 주선으로 버선 바느질을 시작하나, 솜씨가 좋아 저고리, 도포 등을 지으며 돈을 모았다.
12. 바느질로 본부인의 살림을 돕는다.

I. 문둥이 처녀의 보은 2 : 문둥이 처녀가 보은한다.

1. 인연을 맺어 아기를 가진 처녀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적선한 덕에 명산 쓰고 잘 됐다.
2. 미인인 덕에 술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아들에게 글공부를 시키고 큰 부자가 되어 십 삼 년만에 들른 남자와 부자되어 살았다.
10. 서울 큰 부자의 딸이지만 병이 나서 쫓겨났다면서 친정에서 준 보따리에 있던 참 금덩어리를 풀어 함께 살았다.

J. 문둥이 처녀의 가족 탐색 : 문둥이 처녀와 친정 가족이 상봉한다.

3. 어머니에게 내력을 들은 아들은 서울 대종가집인 외가에 어머니의 편지를 전한다. 문지기가 편지를 전하자 딸의 행방을 듣고 손자를 보고 운다.
4. 밥을 날라주던 종이 병이 나은 처녀가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친정에 보고한다.

5. 친정집에서 소문을 듣고 전라 어사로 내려가는 동생을 통해 수소문한다. 가정 지물을 물어 가족임을 확인한다.
6. 서울 가는 남편에게 김 대감집에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편지를 읽은 김대감이 남자를 불러 부인에게 얘기한 후 사위로 삼는다.
7. 친정집에서 연락했다가 병을 고친 것을 알게 된다.
8. 서울 이정승의 딸인데, 병이 나서 수용소 보낸다는 것을 죽을까봐 술래군을 따라나섰었다며 쪽지를 써서 이대감께 전하라고 부탁해서 대감에게 전한다.
9. 동냥 온 문둥이 셋을 고쳐주고 벼신을 신어보게 하여 4남매가 상봉한다⁴³⁾.
11. 밥을 날라주던 종이 문둥이 처녀가 남자와 누워 있고 주변에 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본가에 알리나 믿지 않는다. 종은 문둥이 처녀가 병이 나은 것을 보자 다시 본가에 알리고, 본가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과 함께 문둥이 처녀의 집을 찾는다.
12. 과거 보러 가는 남편에게 편지를 전한다. 정승 대감이 관복 입은 처남들과 함께 사위로 맞는다.

K. 문둥이 처녀 가족의 보은 : 문둥이 처녀의 친정에서 남자에게 보은한다.

3. 딸에게 연락해서 돈을 주어 큰 부자가 되었다.
4. 총각과 문둥이 처녀가 함께 정승집인 친정으로 들어가고, 총각은 대감이 되었다.
5. 처남인 어사와 함께 짜고 어사의 부름에 불응하다 군수가 와서 양마부를 모시고 간다. 양마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시킨 후 뇌물을 받게 해서 부자가 된다.
6. 김대감이 딸과 사위의 부탁으로 외손자 삼 형제를 베풀 시켜주었다. 이후 해남 윤씨가 베풀을 많이 했고 양반이 되었다
7. 친정에서 혼처를 구하나 여자가 유도령을 고집하자, 친정에서 유도령을 찾아 잘 살았다.
8. 친정에서 옷과 의관건망을 잘 해주고 사인교를 태워 딸을 데리고 와서 기와집을 지어주고 하인과 평생 먹고 살 것을 준비해주어 큰 부자가 되고 베풀도 했

43) 친정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 피붙이들을 상봉하는 것으로 대치된다.

다.

9. 대신의 딸, 아들인 처가의 연줄로서 정급자(과거 급제한 사람)의 집이 잘 되고 후에 정승까지 되었다.
11. 친정에서 선비를 찾아 결혼을 시키려 하나 이미 부인이 있으며 문동이 처녀와는 친구로 지낸 사이라며 거절한다. 처녀의 고집으로 인해 친정에서는 한 살림 떼어 결혼을 시킨다.
12. 시관인 장인이 과거 답안을 미리 주어 장원 급제시키며, 가족들을 모두 서울로 이전한 후 본처에서 낳은 아들 4형제, 후처에서 낳은 아들 4형제 모두 판서가 되었다.

문동이 처녀의 보은은 [F 문동이 처녀의 보은 1], [I 문동이 처녀의 보은 2], [K 문동이 처녀 가족의 보은]으로 3차에 걸쳐 일어난다. 각각의 보은은 보은의 주체와 시기, 목적에 따라 보상의 정도 차이를 드러낸다.

F는 치유가 일어나기 이전에 문동이 처녀를 버리지 않고 돌보아 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I와 K는 치유가 일어난 뒤 치유에 대한 보상으로 일어난다. 또한, F와 I는 문동이 처녀 개인의 의한 보은이며, K는 문동이 처녀 뿐 아니라 문동이 처녀의 가족들이 행하는 보은으로 구별된다. 즉, 보은의 정도를 비교하면 병이 치유되기 이전에 등장하며 문동이 처녀 개인에 의한 보은인 F가 가장 미약하며, 치유로 인한 보은이지만 문동이 처녀 개인이 주체가 된 보은인 I가 중간 단계, 문동이 처녀의 가족들이 주체가 된 보은인 K가 가장 뚜렷하다.

다음은 보은의 단계별 목적을 살펴본다. F의 보은은 병이 나은 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마련해 주고 돌보아 준 것에 대한 보은이다. 치유담이 아닌 결연담의 범주에 근거한 보은이기 때문에 일부 각편에 제한적으로 드러난다. 보은의 강도도 미약해서 남성의 결핍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어려운 살림에 보탬을 주는 보조적인 수준에

서 그친다. 그렇지만 치유담 이후의 보은이 남자의 치부를 위한 보은이었다면, 치유담 이전에 등장하는 결연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보은이기 때문에 치부나 결핍 해소와는 다른 목적을 갖는다.

F 보은의 수단은 친정에서 나오기 전에 가지고 온 재물과 침선이다. 재물은 결연담에서 재가 모티프와의 결합에서 살폈듯이, 아름다운 용모와 함께 남자 주인공이 우연한 만남과 결연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가난이라는 남성의 결핍을 메꾸어주는 필수 조건이다.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 부분에서 많은 각편들이 문둥이 처녀가 보따리를 들고 남자를 따라나선다라고 묘사되는데, 남자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문둥이 처녀의 재력에 대한 잠재적 상징이다. F에서 보따리를 풀어 재물을 열어 보인다는 것은 후반에서 이루어질 치부를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또한, 남성 주인공이 결연을 통해 얻게 되길 염원하는 재물이라는 조건을 문둥이 처녀가 갖추고 있음을 외면화 시킴으로써 문둥이 처녀의 위치를 격상시킨다.

침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로부터 침선은 부녀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꼽혔다. 문둥이 처녀의 침선 솜씨를 발휘하여 살림을 도왔다는 것은 문둥이 처녀가 비록 문둥병이라는 심각한 결연의 장애 요소가 있지만 남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능력의 결핍의 측면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녀자의 덕목인 침선 솜씨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결핍은 탈락하며, 이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결핍도 탈락한다. 결연을 파기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남자의 선행에 대한 보은 F는 결연담의 범주에서 소극적으로 행해지느니만큼 본격적인 치부에의 목적이 아니다. 문둥이 처녀가 가진 능력을 외면화함으로써 남자와 남자의 가족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남자와의 결연을 강화시키는 목적에서 일어났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둥이 처녀의 치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I 문둥이 처녀의 보은]는 [K 문둥이 처녀 가족의 보은]과 K의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J 문둥이 처녀의 가족 탐색]이 드러나지 않는 각편에서만 드러난다. 즉, 치유에 대한 보은과 이로 인한 남자의 치부는 I나 K의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지만, 각편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I 문둥이 처녀의 보은 2]이나 [K 문둥이 처녀 가족의 보은] 중 하나를 취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문둥이 처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보은은 각편 1에서는 명당을 찾아주었으며, 각편 2는 주막집을 운영하여 벌은 돈으로, 각편 10은 가지고 온 금덩어리를 풀어 이루어졌다. 각편 1은 남자 주인공이 아버지를 모실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적선 하리 길을 나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설정되어 있느니만큼 이야기의 결말도 문둥이 처녀와 동침을 하는 적선을 베풀어 명당을 얻었다고 완결된다. 문둥이 처녀는 적선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명당 자리를 마련해주는 보은을 했으며 그 결과 남자는 ‘부잣집 딸인 문둥이 처녀를 아내와 자식을 얻고 잘 됐다’. 명당이라는 결핍과 보은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남자가 결핍되어 필요로 하는 것을 문둥이 치유를 통해 보은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각편 2와 10의 보은은 둘 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 결핍을 해소했다는 결과에서는 동일하지만, 보은의 수단이 되는 치부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

각편 10은 친정에서 가지고 온 금덩어리라는 점에서 [F 문둥이 처녀의 보은]의 친정에서 보내준 재물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F가 살림을 보태는 정도였던 것에 비해 I는 부자가 되어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전면적인 치부이다. 또한,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금덩어리라는 모티프가 사용되어 <내복에 산다> 유형의 설화와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각편 2는 문둥이 처녀가 주체가 되어 치부한다는 점은 [F 문둥이 처녀의 보은]에서

침전을 통한 치부와 비슷하지만 남자의 결핍을 해소하는 정도가 다르며, 무엇보다도 문둥이 처녀가 주막집을 운영하며 술을 팔아 치부한다는 점에서 크게 변별된다. 각편 2 역시 문둥이 처녀는 부잣집 딸로 설정되었으며, 아들을 낳아 기르며 글을 가르친다는 화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미천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병이 나은 후 되찾은 미모를 이용해 주막을 운영하며 술을 팔아 벌어들인 재산으로 보은을 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윤리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방적 윤리관의 영향력 아래에서 각편이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거지첩의 보은> 등의 제목으로 『구비문학대계』에 다수 존재한다. 「남자가 정처 없이 길을 가는 거지 여자와 인연을 맺은 뒤 버렸는데, 여자가 남자의 아이를 낳아 기르며 주막을 운영하여 부자가 된 뒤 남자와 결연한다」는 내용은 각편 2의 치부 양상과 거의 흡사하다⁴⁴⁾. 이를 통해 각편 2의 형성과 향유에 개입했던 당대의 사교관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편 10에서 드러나는 생금 모티프가 그렇듯 많은 문둥이 처녀담이 다른 설화와 다양하게 교섭하면서 계승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둥이 처녀의 가족들에 의한 보은인 K는 문둥이 처녀의 가족 탐색 J가 전제가 되어 일어나니 만큼, J와 K는 항상 짝을 이루어 등장한다. 문둥이 처녀의 가족 탐색과 상봉 모티프는 남자 주인공이 앞서 결연담에서도 다루었던 E에서 절연의 위기를 극복하고 여자를 돌보아주는 남자의 선행이 강조된 각편에서 적극적으로 서사된다.

문둥이 처녀가 병막에서 기거하고 있는 유형은 생계를 친정에서 돌보아주기 때문에 가족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탐색은 음식을 가져온 노복이 문둥이 처녀의 치유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

44) 여기에 속하는 설화는 결연담 논의에서 소개하였다.

를 믿지 못한 가족들이 처녀를 찾아와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오갈데 없이 길에서 만난 문둥이 처녀는 남편이나 아들을 통해 그간의 내력을 적은 편지를 남편을 통해 친정에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문지기를 거쳐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에 편지가 읽혀지고 다시 딸의 편지를 가져온 사위나 아들을 불러 이를 확인하는 여러 단계에 걸친 탐색을 거친 뒤 딸과 상봉한다.

각편 5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와 각편 8 <정급자 부자의 행운>은 가족 탐색과 상봉의 과정이 다른 각편에 비해 특별히 부각되는 각편이다. 각편 5 <문둥이 처녀>는 문둥이 처녀의 친정에서 딸의 소식을 듣고 문둥이 처녀의 남동생을 딸이 사는 부근에 어사로 가서 조사해보라고 부탁한다. 친정 동생은 양 마부의 행방을 수소문한 뒤 문둥이 처녀와 만나는데, 누이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친정의 위치와 친정집의 대문과 방문, 부엌문의 위치를 일일이 묻고 확인하는 탐색의 과정을 거쳐 상봉한다. 각편 8 <정급자 부자의 행운>은 문둥이 치유와 보은이라는 구조를 반복함으로 가족 상봉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문둥이 처녀가 치병 후 남자와 결혼해서 살던 중 세 명의 문둥이가 동냥을 오는데, 문둥이 처녀가 자신이 먹었던 이무기 고기를 주어 병을 고쳐준다. 얼마 뒤 병을 고친 문둥이들이 재물을 가득 싣고 와서 다시 찾아오자, 문둥이 처녀가 남편에게 부탁하여 세 명의 문둥이들에게 벼신을 신겨보게 한다. 벼신이 들어맞자 문둥이 처녀와 문둥이들은 대갓집의 4남매임을 밝히고 상봉한다.

적극적인 가족 탐색은 적극적인 보은으로 연결된다. E에서 문둥이임을 알고도 여자를 버리지 않은 각편 중 탐색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문둥이 처녀에 의한 보은으로 완결되는 것은 각편 10 뿐이다. 이를 제외한 각편은 문둥이 처녀의 가족으로부터 재물 뿐 아니라 벼슬까지 선사받는다. 벼슬은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보다 고도의 층위를 지니는 보은이다. 이를 위해 문둥이 처녀의 가족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뇌물이나 연줄, 청탁은 물론이고, 자신이 시관으로 있는 과거 시험의 답안을 미리 써준다. 보은을 통해 부귀를 획득하는 치부과정이 심화되고 확장되는 과정은 각편 5, 6, 8에서 잘 드러난다. 각편 5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각편 6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는>의 주인공은 각기 능주 다라실 양씨와 해남 윤씨의 시조로 등극하면서 성씨 시조담의 모티프와 결합한다.

성씨 시조담의 이야기는 건국 신화의 형태로도 등장하는 신성한 신화적 모티프이다. 그러나 문둥이 처녀담에서는 마부와 관청 하인이라는 미천하고 가난한 가난한 신분의 노총각이 보은을 통해 얻은 부귀로 결핍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던 신화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거듭난다. 각편 8 <정급자 부자의 행운>도 아버지가 머슴이었던 정급자가 문둥이 처녀의 가족 연줄로 정승까지 지낸다. 구연자와 청중이 정급자를 조선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로 인식하며 합천 정씨라는 가문을 밝히는 것으로 미루어 각편 5, 6까지는 아니지만 치부를 통한 개인적인 행복을 누렸을 뿐 아니라 신성함을 가진 권력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같은 치부의 확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미천한 신분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을 만큼 신분제가 동요되고 문란해졌음을 의미한다. 각편 8 <정급자 부자의 행운>에서는 정급자 부자의 아버지가 남의 집 사는 머슴이었지만, 죽은 당수나무를 베어내고 터를 일구어 재산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나온 뒤 아들인 남자 주인공이 과거를 보러가는 과거군으로 설정되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먼천에서 나아가 과거까지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회적 배경을 추정할 수 있다. 신성시 되는

당수나무를 베어내고 밭을 일구었다는 점에서도 경제가 중시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도래를 엿볼 수 있다. 결연담에서 등장한 재가라는 결함이 재물이라는 매력에 밀려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자가 경제적 주체가 되어 침선이나 술을 파는 주막을 운영해 많은 돈을 벌고, 뇌물과 연줄 혹은 답안 유출 같은 화소에도 주인공의 치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없다. 오히려 성씨의 시조를 이룰 정도로 능력 있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신분의 수직 이동이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둥이 처녀담에 내재된 가치관은 유교적 질서가 엄격한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문둥이 처녀담의 향유 전승 시기를 양난을 거치며 신분 기강이 헤이해지고, 자본주의적 경제관이 도래하기 시작한 조선 중기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편으로, 문둥이 처녀담의 치부는 문둥이 처녀와의 신의를 지켜 결연을 유지하고 치유해 줌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히 운이 좋아 재물을 얻는다는 횡재담과는 대비된다. 치부의 부분에서 부정적인 방법은 일어나지만,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등의 부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지만, 문둥이 처녀담의 주인공이 누리는 치부는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윤리적인 경제관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의 치부 양상은 주인공의 선행이 부각되는 절연의 위기 극복 단락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며 작품의 모든 서사 단락에 영향을 끼친다. 부인과 처가의 도움으로 재산을 얻고 신분이 상승되며, 보은의 조건인 선행의 대부분을 본부인이 도맡아 행하는 각편에서 남자 주인공의 의존성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둥이 처녀담은 기타 보은담에서 보이는 치부와는 달리 문둥병이라는 강렬한 결핍 화소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 틀이 강

조된다. 성씨의 시조가 되는 보은의 결과 역시 문둥이 처녀담의 향유층이 부귀가 가지는 힘을 신화의 신성성과도 견줄 만큼 강대하게 인식하였으면 서도, 동시에 멸시와 천대의 대상인 문둥이 처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 고 책임을 지는 남자 주인공의 선행을 그만큼 칭송하는 건강한 윤리관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 문동이 처녀담의 소설화

5.1. 『여선담전⁴⁵⁾』의 서지적 이해

『여선담전』은 이수봉에 의해 학계에 최초로 소개된 작품이다.⁴⁶⁾ 제목 『여선담전』은 수록된 첫 작품 「여선담전」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으며, 「여선담전」 외에 「금포기우록」, 「호주명보록」, 「운수전」 등 모두 네 작품이 수록된 국문소설 작품이다. 작품이 광서(光緒) 11년(고종 22년, 1885) 3월에 작성된 「사근도을유식복호적(沙斤道乙酉式復戶籍)」의 뒷면에 필사되어 있어 19세기 말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최초의 국문 단편소설 집이란 문학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27×18.5cm의 오침선(五針線) 한철본(漢綴本)이며 각면은 1행 20자 내외의 10행체로 남성의 국문 달필로 필사되어 있다. 「여선담전」(62쪽), 「호주명보록」(28쪽), 「금포기우록」(26쪽), 「운수전」(45쪽)의 분량으로 수록되었으며 내표지에 <윤씨가장갑신비(尹氏家藏甲申備)>라고 쓰여 있어서 해평 윤씨 가문에서 창작, 필사한 것으로 추정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수봉은 네 작품 모두 구성방식이나 소재가 설화적이며 경상도를 배경으로 취하고 있는데, 특히 작품 「여선담전」의 경우에는 전기성이 강조되는 다른 세 작품에 비해 민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선담전」을 갑신정변 이후의 일어난 개혁의 물결 중 가장 주조를 이룬 신분타

45) 『여선담전』은 이수봉의 작품 해제 외에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여선담전』에 대한 논의는 원광대학교 정명기 선생님의 독려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귀중한 자료를 소개해주신 정명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6) 이수봉은 『이상택 교수 화갑기념 논총』에서 작품집 『여선담전』에 수록된 「여선담전」, 「호주명보록」, 「금포기우록」, 「운수전」 등 네 작품의 경계를 소개하였고 『고소설 연구』 제 10집에 원문과 해제를 실었다.

과를 주제로 보았다. 그리고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던 1900년 초반에 한 지식인이 소설이란 서사물로 신분타파와 자유결혼의 가치를 높이 든 작품으로 평한다. 작품 초반에 삽입된 청상녀(靑孀女)의 삽화는 당시의 개가 양상을 반영한 삽화이며, 큰 줄거리는 여선담이라는 마부가 양반 신분으로 상승되는 이야기이며, 여선담이 비록 마부로 생업하는 시골 천생일지라도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양반이 되고, 가문을 형성하는 성씨의 시조가 된다는 성씨탄생설화를 소설화한 작품이라 규정하고 있다.

5.2. 여선담전의 서사단락 소개

작품집 『여선담전』에 수록된 소설 「여선담전」의 서사단락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A. 결핍 있는 남자의 소개

대명 홍치년 하동부에 성품은 착하나 가난하여 말을 태운 샅으로 살아가는 여선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B. 부자여자와의 만남과 절연

b1. 서울에 올라왔다 숙소 주인에게 과부의 재가를 부탁받고 내려가다 한 여관에 머물던 중 여관 주인인 조서방이 과부와 인연을 맺는다.

b2. 다음날 아침 과부가 여선담에게 여비를 치르며 미모와 재물을 갖춘 자신을 잡을 기회를 놓친 것을 비웃는다.

b3. 약속 때문에 손대지 않았던 자신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집으로 돌아온 여선담은 이후 근처는 얼씬도 안 할 것을 다짐한다.

C.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과 결연

- c1. 삼년 뒤 짐을 싣고 상경한 겨울 밤, 여선담은 숙소 창가에서 추위에 울고 있는 여자를 방에 들였다가 아름다운 용모에 이끌려 인연을 맺는다.
- c2. 여선담은 문벌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나 양반 규수와 같은 언행이 나타나는 여자와 인연을 맺은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행복을 조서방과 비교한다.

D. 문둥이 처녀와의 절연 위기

다음날 아침 여자가 문둥이임을 알고 내치려하나 여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따르겠다고 여선담을 쫓아다닌다.

E. 문둥이 처녀와의 절연 위기 해소

- e1. 어쩔 수 없이 여자와 동행하던 중 조령에 올랐다가 자신이 먼저 인연을 이끌었고, 여자가 정절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고 맘을 바꿔 여자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하게 되고, 본부인이 있어 집으로 가지 못한 여선담은 하동 입구에 병막을 지어주고 구휼한다.

F.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계기

여선담이 석전포에 나가 강어(江魚)를 사다가 여자에게 먹으라고 준다.

G. 문둥이 처녀의 치유

강어를 수일 먹은 뒤 피부가 가렵고 벌레를 쫓더니 병이 낫는다.

H. 문둥이 처녀와의 재결연

여자를 본 여선담은 몹시 기뻐하며 본가로 데리고 가면서 본부인을 걱정하나 오히려 본부인이 꿈에 길조를 보았다며 반기고 거처를 마련해준다.

I. 문둥이 처녀의 보은

후원에 거처하던 문둥이 처녀가 뛰어난 침선 솜씨로 살림을 도와 가세가 넉넉해진다.

J. 문둥이 처녀의 가족 탐색

j1. 팔 년 뒤 아들 둘 낳은 문둥이 처녀는 여선담과 가족을 만나러 서울을 향하던 중 조령에 올라 지난 일을 회고한다.

j2. 문둥이 처녀는 여선담에게 종로에서 좋은 말과 가마, 하인 여럿을 구해올 것을 부탁한다.

j3. 문둥이 처녀는 하인들에게 아무 거리에 있는 집을 묻자 이조판서택인데 모든 식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막내딸이 스물 전에 병을 얻어 행방을 몰라 한탄한다며 대답하자 예전 벼슬과 집의 내력을 재차 확인하고 문둥이 처녀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집임을 밝힌다.

j4. 여선담과 함께 이조판서를 만난 뒤 어머니와 상봉하고 여선담을 소개하며 그간의 행적을 알린다.

j5. 여선담과 문둥이 처녀는 가족들이 지어준 온갖 재물을 갖춘 별당에 거처한다.

L. 문둥이 처녀 가족의 보은

l1. 이조판서 부부의 만류로 삼 년 뒤에야 많은 전답과 폐물을 받고 이조 관리들의 배행을 받아 집으로 향한다.

l2. 조령에 이르러 여선담은 자신의 금의환향을 통해 인생의 궁달(窮達)은 때가 있어,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감회에 젖는다.

M. 부자 여자의 재회

여선담은 조서방의 집으로 향해 조서방과 그의 부인을 불러 예전 수모를 되갚아준다.

N. 문둥이 처녀 가족의 보은

- n1. 여선담이 오는 사이 이미 큰집이 지어졌고, 본부인은 반갑게 이들을 맞으며 문둥이 처녀에게 예를 다하며 서로를 치하한다.
- n2. 여선담은 두 부인의 어짙을 기뻐하고 재산을 늘리며 화목한 삶을 누린다.
- n3. 여선담의 벼슬 없음을 한탄하던 판서는 과거에 상시관으로 임명되자, 큰아들을 불러 답안을 미리 작성케 해서 여선담을 장원급제케 한다.
- n4. 여선담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문둥이 처녀의 3형제와 본부인의 아들 하나가 모두 벼슬을 하며 대대손손 잘 산다.
- n5. 여씨의 시조가 된다.

O. 사평

빈부는 하늘이 정하지만 착한 마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데, 여선담은 비록 신분은 천하였지만 마음이 착해 과부를 범하지 않았고, 문둥이 처녀를 돌보았으니 그 복을 받았다.

5.3 문둥이 처녀담과 「여선담전」의 비교 고찰

「여선담전」의 내용은 이수봉이 추정했던 것처럼 문둥이 처녀담이라 칭할 수 있는 일군의 설화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음을 서사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둥이 처녀담의 몇몇 각편은 취재(取材)의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작품이 소설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나 주제 의식이 유사하다. 「여선담전」의 배경은 경남 하동으로 설정되었으며, 작품에 경상도 일대의 지명이나 경상도 사투리가 등장하며, 문둥이 처녀담의 대부분

이 경상·전라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실제 창작도 남부 지방 일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작품 내 시대 배경은 홍치년간(1488-1505)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종(1469-1494)과 연산군(1494-1506)의 재위 기간에 해당한다. 실록만을 근거하여 할 수는 없겠지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종대의 실록에는 조선 왕조 중 두 번째로 많은 횃수의 문둥이 기록이 전하며, 기록의 체계나 내용의 분량으로는 단연 선두인 점을 고려하면, 「여선담전」의 시간적 배경 설정에도 어느 정도의 역사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듯 하다.

「여선담전」을 문둥이 처녀담 중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진 각편 5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각편 9 <술래군의 횃재>와 비교한다.

| 구분 |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 <술래군의 횃재> | 「여선담전」 |
|-----|---------------------------------------------------|--------------------------------------------------|----------------------------------------------------|
| 결연담 | 능주 다리실 ⁴⁷⁾ 양씨 성을 가진 삼십 여 살 넘은 마부가 있었다. | 의형제처럼 지내는 두 술래군이 있었는데, 형은 여관을 차린다. | 대명 홍치년 하동부에 말을 태운 샅으로 살아가는 여선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
| | X | 동생이 서울에서 술래를 돌던 밤에 한 여자가 보따리를 들고 담을 넘어와 동행을 청한다. | 서울에 온 여선담에게 여관 주인이 재물을 줄 터이니 부자 과부를 개가 시켜달라고 부탁한다. |
| | X | 여자를 형님에게 데려가 장가보낸다. | 하동 근처 여관 주인 조서방이 여선담이 자는 틈을 타서 부자여자와 인연을 맺는다. |
| | X | 과부가 형에게 말기는 것을 비난하며 재물로 가득한 함을 꺼내며 여비를 준다. | 과부가 여비를 치르며 미모와 재물을 갖춘 자신을 잡을 기회를 놓친 것을 비웃는다. |

| | | |
|------------------------------------------------------------|------------------------------------------------|--------------------------------------------------------------------|
| x | 인연을 맺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다음 기회를 다짐한다. | 집에 돌아온 여선담은 약속 때문에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한다. |
| 상졌했다 돌아오는 밤 동작강가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 어느날 한 여자가 보따리를 들고 담을 넘어왔다. | 삼 년 뒤 상경한 겨울 밤, 숙소 창가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
| 물에 빠져 죽으려는 양반 행색을 한 처녀에게 이끌려 동침한다. | 참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용모에 이끌려 동침한다. | 아름다운 용모에 이끌려 동침한다. 처녀는 양반 규수의 언행을 가졌다. |
| 양 마부는 다른 이의 눈길을 피해 아침 일찍 말에 태워 길을 나선다. | x | 여선담은 다른 이의 눈길을 피해 아침 일찍 말에 태워 길을 나선다. |
| 날이 새서 강가를 건너다 보니 문둥이 처녀였다. | 자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 문둥이임을 알고 복 없음을 한탄한다. | 날이 새서 강가에 다달아 아침을 먹으려 보니 문둥이였다. |
| 양 마부가 깜짝 놀라 내일 오라며 여자를 내치나 여자는 살아도 당신 것이며 죽어도 당신 것이라며 따른다. | 빨리 가버리라고 내치나 여자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당신만을 따라갈 것이라며 매달린다. | 여선담이 깜짝 놀라 투기 많은 부인을 이유로 훗날을 기약하며 내치나 여자는 죽은 귀신이 되어서도 따르겠노라며 매달린다. |
| x | 내치고 밖에 나간 술래군을 문둥이 처녀가 죽어라고 따라와 다시 주막으로 들어온다. | 달래거나 옥박질러도 여자가 듣지 않자 새벽에 여자를 떨구어두려 하나 여자가 먼저 준비를 마치고 따라왔다. |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 결국 싹고 오던 길이니 고향으로 향한다. | 또 따라나서는 문둥이 처녀를 데리고 형의 집으로 돌아온다. | 마지못해 동행하다 조령에 다달았을 무렵 자신이 먼저 가까이했고, 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탓할 수 없다며 마음을 고쳐먹다. |
| 남의 이목이 부끄러워 밤에 집에 들어간 뒤, 노모에게 뒷광에 머무르게 하고 끼니를 주라고 부탁한다. | 형수가 나서 동생에게 죄된다며 움막을 짓게 해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끼니를 돌본다. | 집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근처에 초막을 짓고 여자를 살게 하고 본부인 모르게 자주 왕래하며 양식과 빨감을 보급한다. |

| | | | | |
|-------------|------------------------------------------------------------------------------------------------|------------------------------------------------------------------|---------------------------------------------------------------|--|
| 보 은 담 | x | 문둥이 처녀는 형수의 주선으로 뛰어난 침선 솜씨를 발휘해서 돈을 모은다. | x | |
| 치 유 담 | 어느해 날이 가물어서 능주 다라실 앞 큰 내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양 마부만 물고기를 못 건진다. | 어느날 날이 가물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는데, 문둥이 처녀에게 잡아다 주라는 형수의 성화로 술래군도 나신다. | x | |
| | 화가 난 양 마부가 독에 나왔다가 뺨이 벌어진데서 푸른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들어가보니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가물치를 발견하고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잡는다. | 다른 고기는 모두 잡아가고, 큰 갯단 같은 물고기가 구불거리는 것을잡아다 문둥이 처녀에게 준다. | 다음해 구월 여선담은 석전포에서 물고기가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바구니를 사서 여자에게 먹으라며 준다. | |
| | 함부로 먹을 것이 아니라는 마을 사람들의 조언대로 소금을 뿌려 측간 위에 넣어두고 말린다. | x | x | |
| | 문둥이 처녀가 측간을 드나들다 고기를 발견하고 모두 먹고는 죽은 듯이 쓰러진다. 인기척이 없어 죽은줄 알고 놀란다. | 남자에게 받은 고기를 모두 먹고는 자지리지듯 누웠다. 인기척이 없자 다른 사람들이 처녀가 죽은줄 안다. | x | |
| | 노파가 사흘만에 들어가보니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게 되었다. | 남자가 가보니 허물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 고운 얼굴을 가졌다. | 고기를 먹고 피부가 가렵더니 밤새 가느다란 벌레가 나오고는 아름다운 용모를 갖게 되었다. | |
| 보 은 담 | 집에 돌아온 양마부가 처녀를 보고는 동네에 널리 알리고 혼인한다. | 남자에게 짚을 얻어 그간 모아온 돈을 꿰어 준다. | 여선담이 기뻐하며 처녀를 집에 데려간다. | |

| | | | |
|----------------------------------------------------------|----------------------------------------------------------------------------|---|---------------------------------------------------------------------|
| | x | x | 본부인이 하늘이 주신 인연이라며 반가이 맞고 거처를 마련해준다. |
| | x | x | 문동이 처녀가 본부인에게 침선일을 부탁하고 솜씨를 발휘해서 살림이 넉넉해졌다. |
| 서울에서 문동이 처녀의 어머니가 딸의 소문으로 듣고 남동생에게 누이의 소식을 조사해 볼 것을 명한다. | 남자에게 내력을 적은 편지를 써서 이정승 집에 찾아가 전하라고 부탁한다. | | 본부인의 권유로 팔 년간 아들 둘을 낳고 살다 함께 문동이 처녀의 가족을 찾아 나선다. |
| x | x | | 조령에 올라 옛 일을 회고하고 서울에 올라 둘이 처음 만났던 숙소를 찾는다. |
| 전라 어사로 부임한 남동생이 양 마부를 수소문해 부인과 대면한다. | 대감택을 찾아 편지를 전한다. | | 다음날 아침 문동이 처녀는 여선담에게 부탁하여 좋은 가마와 말, 하인 여럿을 갖춘다. |
| 친정 동네, 대문과 방문과 부엌문의 방향, 가정지물(家庭之物) 등을 물어 친누이임을 확인한다. | x | | 문동이 처녀는 하인에게 친정의 위치와 방향, 생김새, 십년 전 벼슬, 거주내력 등을 물어 현재 이조판서 책임을 확인한다. |
| x | x | | 여선담과 친정을 찾은 문동이 처녀는 자신이 행방을 감추었던 막내딸 계량임을 밝히고 부모님께 그간의 내력과 안부를 전한다. |
| 남동생은 크게 기뻐하며 양마부에게 좋은 의복과 정자관, 도포, 담뱃대 등을 갖추어 준다. | 크게 기뻐하며 옷과 의관 건망을 잘 해준다. 사인교를 보내 딸을 데리고 온 후 큰 기와집을 지어 주고 하인과 평생 먹을 재산을 준다. | | 이조판서 내외는 크게 기뻐하며 여선담을 금은보화로 후하게 대접하며 머무르게 한다. |

| | | | |
|--|--------------------------------------------------------------------------|-------------------|------------------------------------------------------------------------|
| | x | x | 3년 뒤 여선담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자 이조판서는 크게 아쉬워 하며 비단과 보물, 전답문서 등을 내어주며 배웅한다. |
| | x | x | 귀갓길 내내 각 고을의 관리들이 여선담 일행을 마중나오는 호사를 누린다. |
| | x | 여관하는 집보다 몇 십배 낫다. | 하동부에 도달했을 때 조서방의 집을 찾아가 옛날 자신을 비웃었던 과부와 조서방을 불러 자신의 복을 과시한다. |
| | x | x | 고향에 도착하자 그간 큰 집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이 여선담이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
| | x | x | 문동이 처녀가 도착하자 본부인이 앞다투어 맞으며 그간의 놀라운 변화를 상세히 고하고 문동이 처녀에게 우위를 양보한다. |
| | x | x | 처침 분간 없이 서로 화목하게 살며 문동이 처녀는 삼남일녀를, 본부인은 일남을 두고 재산을 늘리며 화목한 삶을 누린다. |
| | 남동생은 양마부에게 내일 어사출두를 하고 자신이 사람을 보내 모셔올 것을 명해도 절대 응하지 말고 께씸하다 호령하라고 일러 둔다. | x | 이조판서가 여선담이 벼슬이 없는 것을 안타까와 하며 다음 해 예정된 과거의 상시관으로 임명된 큰아들을 불러 논의한다. |
| | 시킨대로 거절하던 양마부는 고을 군수가 왔을 때에야 출두하고, 동생은 벼 ^x 선발로 양마부를 맞는다. | | 큰아들이 미리 글을 지어 여선담에게 주고, 그 글로 여선담이 장원 급제한다. |

| | | |
|------------------------------------------|-----------------------------------------------|-------------------------------------------------------|
| 어사의 계책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양마부에게 뇌물을 주어 부자가 된다. | 벼슬을 한다. | 장인이 죽을 때까지 여선담도 벼슬생활을 하며, 이후 자식들도 모두 잘 된다. |
| 능주 다라실 양씨의 시조가 되었다. | x | 여씨의 시조가 되었다. |
| x | 본심이 착해서 그리 잘 되었다. 여관을 해서 돈 벌어도 문둥이 처녀만큼은 못했다. | 신분은 천하였지만 마음이 착해 과부를 범하지 않았고, 문둥이 처녀를 돌보았기에 그 복을 받는다. |

위의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문둥이 처녀담인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술래군의 횡재>와 마찬가지로 소설 「여선담전」도 결연담, 치유담, 보은담이 골고루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서사단락의 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분류 | 서사 단락 존재 양상 | | |
|-------------|---------------|-----------|--------|
| |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 <술래군의 횡재> | 「여선담전」 |
| 결연담 (14) | 8 | 12 | 13 |
| 치유담 (5) | 5 | 4 | 3 |
| 보은담 (20) | 9 | 8 | 20 |

47) 현재 전남 화순군을 지칭함.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문둥이 처녀담과 비교했을 때 「여선담전」은 문둥이 처녀담을 위시한 문둥이담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치유담의 부분은 축소되고, 보은담 부분이 서사적 확장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좀 더 세분화된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5.3.1 결연담

「여선담전」의 남자 주인공 여선담과 문둥이 처녀와의 결연담 부분은 문둥이 처녀담과 큰 차이가 없다. 남자 주인공 직업은 각편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술래군의 횡재>와 동일하게 말을 태워주고 샅을 받는 마부이며 서울에 올라갔다 밤길에 문둥이 처녀를 만난다. 부자 여자와의 만남과 절연이라는 개가 모티프가 삽입된 것도 <술래군의 횡재>와 비교된다. 각기 장가를 보내달라던 형님의 부탁(<술래군의 횡재>)과 좋은 곳에 개가시켜달라는 약속(「여선담전」)을 지키기 위해 신의를 지키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과정을 통해 남자 주인공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는 점과 부자 여자와 인연을 맺은 사람이 여관을 운영한다는 점, 기회를 놓친 남자 주인공에게 부자 과부가 비웃기라도 하듯 여비를 꺼내 주는 점도 같다. 문둥이 처녀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각편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 밤길에 여자의 울음 소리를 듣고 동침한 뒤 아침에 눈을 피해 달아나며, 날이 샌 후 강가를 건너다 문둥이임을 알게 되는 단락이나 문둥이 처녀가 매달리는 부분은 전개의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세부적인 요소까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여선담전」만의 특이점이라면 설화와 소설이라는 장르의 차이에서 오

는 서술의 상세함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개가 모티프는 다른 설화에 비해 「여선담전」에 보다 직접적이며 상세하게 차용되었다. <술래군의 횡재>를 비롯한 다른 각편들이 인연을 맺지 못하고 나서야 개가할 곳을 찾던 부자 과부임을 알게 되는 것에 비해 「여선담전」은 처음 만남에서부터 개가에 대한 내용을 당부받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개가 모티프의 강화는 문둥이 처녀담에서의 개가담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수절하지 않고 개가하는 과부에 대한 거부감보다 부자 부인을 통한 재산 증대를 반기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선담전」의 개가 모티프는 그밖에도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의 의미 또한 읽어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록 법제로는 금지되었지만 민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개가의 풍속을 자세히 다룸으로써 정절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을 긍정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작품 내적인 측면에서의 개가 모티프는 이미 여자의 처지를 알았음에도 신의를 지키며 배행하던 여선담의 성품을 강조하려는 맥락으로 작용한다. 여선담의 선한 인품은 결연 위기와 극복 단락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령에서 주위의 풍경에 감화를 받고 문둥이 처녀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고쳐 먹으며, 거처를 마련하고 직접 구휼하는 단락은 다른 문둥이 처녀담 각편에 비해 남자 주인공의 선행이 두드러진다. 여선담의 착한 심성을 줄곧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작품 후반부에 보은담의 확장 근거로 작용한다.

5.3.2 치유담

48) 개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비단 「여선담전」뿐 아니라 함께 수록된 「남포기우록」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치유담은 문둥이 처녀담에서 가장 고정적인 양상을 갖는 만큼 「여선담전」의 경우도 치유 음식의 획득 계기와 치유 과정은 다른 각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오갈 데 없는 문둥이 처녀와 동행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고 돌보아줌으로 절연의 위기를 극복하는 다른 각편들처럼 여선담이 준비해준 물고기를 먹고 문둥병이 치유된다. 물고기를 먹은 뒤 가렵고 벌레가 나왔다는 부분도 다른 문둥이 처녀담과 같다.

하지만 「여선담전」은 길게 확장된 결연담이나 보은담의 부분에 반해 치유담은 설화와 소설이라는 분량의 차이를 고려하면 축소되었다고 할 정도로 짧은 분량이 할애된다. 다른 조력자의 재촉이나 도움 없이 여선담이 직접 물고기를 사다주었다는 정도의 서술만 있을 뿐 치유 음식의 신이함을 강조할 만한 언급은 없다. 다른 두 각편이 치유 과정 또한 죽은 듯이 쓰러지고 허물을 벗는다는 보다 직접적인 재생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에 비해 「여선담전」에서는 밤새 가렵고 벌레가 나왔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문둥이 처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주는 본부인이 치료 과정에 등장하지 않고 치료 이후부터 개입하면서 무속적 기능은 사라지고 조력자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문둥이 처녀담을 포함한 문둥이담이 치유담을 중시했던 것에 비해 「여선담전」의 치유담은 축소되고 보은담이 강화된다. 설화 향유층에게는 불치의 문둥병이 치유된다는 신이함과 주술적인 통과제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치유담 부분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소설 「여선담전」에서는 보다 현실적이며 독자층에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치부의 양상이 극명한 보은담이 각광받았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향유층의 가치 지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둥병의 치유라는 신이한 힘은 후대의 향유층에게는 비현실적인 ‘문둥이’의 이야기지만, 부귀를 누리고 지위가 상승한다는

치부담은 독자와 주인공과의 동일시에서 빚어지는 대리만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선담전」에서는 문둥병의 치유보다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대갓집 딸을 고쳐주고 부귀를 얻는다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하며 독자층에게 직접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다. 그리고 결연담과 치유담은 보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치부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축소된다.

5.3.3 보은담

「여선담전」의 보은담 부분은 문둥이 처녀담에서처럼 남자 주인공의 결핍이 상쇄되는 것을 골자로 진행된다. 앞서 4장에서 도출한 절연 위기 해소 모티프를 가진 문둥이 처녀담의 특징이 「여선담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문둥병을 알게 되고 절연 위기를 맞게 되나 이를 극복한 유형인 「여선담전」은 보은담에서 문둥이 처녀의 적극적인 가족 탐색이 잇따른다. 부유하고 지체 높은 문둥이 처녀의 친정 가족과의 상봉은 문둥병의 치유자인 여선담에게 행해지는 보은을 강화한다. 그 결과 미천하고 가난한 여선담은 수많은 재산과 높은 벼슬을 얻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신분이 모두 상승한다.

문둥이 처녀담과 대비되는 「여선담전」만의 고유한 특징은 보은담에서 찾을 수 있다. 문둥이였던 부인과 처가의 도움으로 재산을 일구고 신분이 상승하는 치부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보은담은 총 61쪽 중 41쪽에 해당하는 분량에 할애되어 있다.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던 서사 단락은 문둥이 처녀의 치유 이후 급격하게 확장된다. 병이 나은 문둥이 처녀는 <술

래군의 횡재>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침선 솜씨로 여선담의 살림을 살찌운다. 앞서 문동이 처녀담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침선 솜씨의 발휘는 결연에 대한 보은임과 동시에 문동이 처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결연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문동이 처녀담의 다른 각편들이 침선을 통해 살림을 돕는 정도에서 나아가 「여선담전」과 <술래군의 횡재>는 남자 주인공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의 수준으로 처부의 의미가 확장되었기에 본격적인 보은의 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침선을 통한 처부는 재산을 늘리는 의미도 있지만 문동이 처녀가 부녀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충실히 갖추었다는 의미도 함축한다. 「여선담전」의 경우 여선담과 문동이 처녀 사이에 아들을 둘 둔다는 서사 단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은 중세 가부장적인 윤리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녀자의 도리이다. 본부인이 있음에도 문동이 처녀가 아들 형제를 낳는다는 것은 문동이 처녀가 이미 본부인 이상으로 가정에서 입지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연담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본부인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한 문동이 처녀담의 각편에서도 문동이 처녀는 높은 신분과 부유함으로 단순한 후처 이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여선담전」의 경우에는 본처와 후첩간의 지위가 전도되어 문동이 처녀가 오히려 본처 대접을 받기에 이른다. 본부인은 문동이 처녀를 처음 본 날 꿈에서 본 서왕모의 모습이라며 각듯하게 대접하였고, 문동이 처녀의 가족 상봉과 보은 이후에는 상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문동이 처녀를 모신다. 문동이 처녀는 삼남 일녀를 본부인은 일남을 두며, 문동이 처녀의 자식이 더 빨리 벼슬길에 오른다. 처첩간의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처첩의 위계 질서가 남편의 부귀에 기여한 순서로 정립되는 것은 「여

선담전」만의 특성이다. 그만큼 「여선담전」은 문둥이 처녀가 아닌 남자 주인공인 여선담의 입장에서 기술되었고 소설 향유층이 갖고 있던 신분 상승과 처부예의 강한 동경이 담겨 있다.

결연담에서 나타났던 개가 모티프가 재등장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술래군의 횡재>에서도 부자인 청상녀와 함께 여관을 꾸리는 집보다 몇 십 배 더 잘 산다는 언급이 간략하게 등장하지만 「여선담전」의 경우 직접 여관을 꾸리는 조서방을 찾아가 전날에 받은 수모를 되갚아 준다. 독자에게 통쾌한 재미를 주며, 속임수로 여자를 취한 조서방보다 신의를 지켰던 여선담이 더욱 잘 되었다는 것을 통해 선행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양반이 아닌 미천한 마부 여선담이 신분의 한계를 뛰어 넘어 과거에 급제하는 부분은 함께 비교되지는 않았지만 시관인 장인이 답안을 미리 적어준 것을 그대로 베껴내어 장원급제를 하는 각편 12 <처복이 있어 팔판서든 선비>와 흡사하다. 그러나 각편 12의 남자 주인공이 비록 11번이나 낙방을 맞 본 능력 없는 과거군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기회를 부여받은 양반이다. 그러나 여선담은 벼슬은 꿈도 꿀 수 없던 한낱 마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명으로 시관인 문둥이 처녀의 오빠가 미리 적어준 답안으로 장원 급제하고 여씨의 시조가 된다. 신분제도가 문란해지고 부정한 과거가 횡행했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만들어내는 신화와도 같았던 시조담이 비루하리만큼 낮은 신분의 주인공의 처부담으로 강등된 것도 조선 후기의 달라진 가치관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여선담전」에서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신의를 지키고자 부자 여자를 취하지 않으며, 문둥이 처녀를 내치지 않고 돌보아 준 여선담

의 착한 성품이다. 이는 사평 형식으로 덧붙인 작품 말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슬프다! 스람의 부귀 빈천이 다 하늘이 정한 슈나 그러나 착한 마음이 한 번 멩동하면 복록이 삭르고 악한 마음이 한 번 멩동하면 직화 니르민 하늘이 복선화음을 스람에게 보시하시미 호발도 어긋지 아닌지라. (...중략...) 녀선담은 비록 천한 스람이나 그 마음인즉 착한지라. 만일 선담으로 하여곰 처엄 경녀 실고 도라오던 날 그 지식의 색지고 그 직물을 탐하여 광부지 탐정과 탐부의 욕심을 참지 못하였 신즉 종신토록 가로상의 한 마부로 맛출 다름이어날 말 물고 단여 세 바다 지싱한 곤궁한 지최 경녀의 절미지식 보의를 경구망가한 화근으로 아라 천 리 동행하고 십여 일 동숙하되 한 번 범슈하미 업스니 가히 일온바 철장금심이 아니리오 경녀의 지보 진물이 가워 남중지물이나 일조의 이져바리고 조금도 탄석한 쓰지 업스문 불의에 부귀를 쓴 구름 보닷 하미오, 밋 두 번지 걸으 만나난 날의 그 괴한을 불상히 너져 더부러 동숙하야 명일 그 악질을 더한즉 절하야 그만이오, 축하야 그만이로되 그 정상을 슬피 너기고 춤으 호로밤 정의를 저버리지 못하야 결막후하고 빈 〃 고흔하니 그 착한 마음과 넘흔 의괴 쓰흔 크지 아니라 후일의 통문의 오르고 귀즈를 탄싱하야 괴리 부귀를 누르리문 다 적션한 증조 분명한 고로 텨감이 공쇼하스 녀구의 손으로 강어를 어더 난명지질이 일조의 쾌츠하니 옥골선티와 숙덕정녘이 참 더군즈의 죠흔 짝이오, 호물며 그 지벌을 의논컨디 지상의 일 너라. 십여 전(년?) 스싱 존망을 모로다 그 서로 만나난 날 흔희 용약한 괴상이 엇더 하리오 빛나고 아름답다. 녀싱의 복이여 니공의 녁셔로써 무슨 벼슬을 못하며 무슨 그릴 거시 이시리오 더 〃 로 관면이 연면부절하니 엇디 괴특지 아니리오 후세 스람들이 이를 거울하야 착한 마음을 〃져 복록을 장향할지이다.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웠던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과 치부에 대한 강한 기대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었던 가치관이 도래한다. 성리학적 윤리 의식이 빛을 바래면서 과부나 처가의 권세와 부정한 도움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선담전」

을 위시한 문둥이 처녀담이 추구하는 부는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댓가 없는 횡재가 아니며 윤리적인 행위의 보은으로 주어주는 긍정적인 것이다. 문둥이 처녀를 투기하지 않고 정성으로 돌보는 본처를 위시한 남자 주인공의 가족의 조력도 이와 유사한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길에서 우연히 맺은 인연을 통한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재물을 취하는 방법만큼은 도덕적인 윤리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강한 경제의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동훈이 지적한 바와 같이⁴⁹⁾ 남자 주인공이 미천한 신분으로 설정된 것은 남자 양반 주인공의 기존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회상조의 복고 운동에서 나아가 새로운 삶으로의 개척이며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손 안에 굴러든 과부를 취하지 않으며, 가족들조차 함께 할 수 없는 천형인 문둥병을 마다하지 않는 여선담의 윤리 의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착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치부가 아니라 건강한 생명력을 가진 근대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싹을 보여준다.

49)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산과 신분의 관계-청구야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5, 159쪽.

6. 결론

불과 수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둥병은 유전으로 오해받는 불치의 전염병이었다. 게다가 투병 기간이 길고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비인간적인 병세의 특성으로 문둥병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가장 기피되고 천시받았던 질병 중 하나이다. 문둥병의 낙인이 깊은 만큼 병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유행하였으며, 문둥이들은 격리되고 소외되었다. 서양의 경우 성서에 의해 일찍이 문둥병자를 불결한 자로 규정하고 교회 등의 공동 생활에서 제외시켰다. 불결을 의미하는 부정(不淨)은 도덕적인 부정(不正)과 성적인 부정(不貞)과 연계되었다.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하늘의 벌로 문둥병에 걸린다는 천형론은 팽배했으며, 성적인 일탈로 인해 문둥병에 감염된다는 믿음 때문에 여성 비하의 논리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문둥병을 독립된 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문둥병에 관련된 기록은 무수히 존재한다. 실록에 의하면 전염으로 인한 문둥병 확산을 막기 위해 문둥이들은 수용 시설에 따로 격리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외로움에 자살을 했던 환자들이 존재했을 정도로 문둥이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설화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드러난다. 설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문둥이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른 문둥이들과 어울려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병막을 짓고 격리되어 투병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고칠 수 없는 병이니만큼 치병책에 대한 다양한 낭설이 떠돌았는데 실록의 기록은 이중에는 식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음을 전한다. 카니발리즘으로 명명되는 식인 풍습은 불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

법으로 다른 문화권에도 간혹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문둥병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문드러지고 떨어져나가는 몸을 온전한 사람을 먹음으로서 재생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많은 설화에서 식인 풍습과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화자나 주인공이 문둥이를 경험하는 설화에 가까운 내용의 설화가 대표적이다.

실록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둥병 기록은 단지(斷指)와 할고(割股)로 효행이나 절행에 실천했다는 내용이다. 단지와 할고 역시 사람의 몸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식인 풍습의 축소형으로 연계지어 볼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유교 윤리가 통용되던 조선 시기이니만큼 단지와 할고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효·절행이라 평가되었다. 단지와 할고가 나라에 의해 권장된다고 이를 만큼 높게 평가되는 실정이다보니 이와 관련된 설화도 무수히 많다. 문둥이담에서는 열녀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열녀이야기는 전체 문둥이담의 과반수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문둥이담에서는 단지보다는 할고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비상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허구의 세계이므로 보다 극단적인 희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선 중기 이후 가부장적 유교 윤리가 점차 강화되는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여 술로 담가 먹이는 문둥이담까지 등장하기 때문이다.

문둥병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시도되었다. 문둥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나라에서 주도하여 수륙재와 불사(佛事)를 일으켰으며, 문둥병 유행의 원인을 불교 탄압이나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하는 풍문이 떠돌았다. 문둥이담과 불교의 결합은 주로 세조대왕과 문수보살의 이야기로 등장한다. 실제 세조가 피부병으로 고생도 했거니와 세조는 피부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

덕왕후가 나타나 패륜적인 행위를 꾸짖으며 침을 빨은 후 문둥병에 걸렸다는 설화를 통해 우리나라도 도덕적인 잘못으로 문둥병에 걸리며 종교적인 힘으로 이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건하고 신이한 종교적인 범주에서 전해지므로 문둥병의 치유 과정은 잠이 들고, 벌레를 쫓거나 허물을 벗는 다른 문둥이담과 달리 목욕이라는 의식으로 등장한다. 풍수적인 해석이 담긴 문둥이담도 여러 편 존재한다. 묘자리를 잘못 써서 자손이 문둥이가 된다거나 명당을 찾기 위해 문둥이에게 적선을 하는 내용이 담긴 각편이 그 예이다.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문둥이담은 60여 편에 이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문둥병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야 하며, 문둥병의 치유가 드러난다. 치유 계기와 과정은 문둥이담을 분류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문둥병을 치유한 이야기 중에는 치유자에 대한 보은이 드러나는 경우와 치유자와의 결연이 드러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문둥병], [문둥병+ 치유], [문둥병+ 치유+ 보은], [결연+ 문둥병+ 치유], [결연+ 문둥병+ 치유+ 보은]의 구조를 주축으로 문둥이담을 분류하였다.

첫째, [문둥병]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화자나 주인공이 문둥이를 경험한 이야기나, 문둥이가 주인공의 마음을 시험하는 장애물로 설정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둘째, [문둥병+ 치유]는 우연히 문둥이가 약이 되는 음식을 얻는 이야기로 치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문둥이의 비중이 작아 병이 치유되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각편들이 속한다. 치유 방법에 따라 뱀이나 이무기를 통한 경우와 식인을 통한 경우, 종교를 통한 경우 등 세 개의 하위 범주를 갖는다.

셋째, [문둥병+ 치유+ 보은] 역시 문둥병 치유의 방법에 따라 엉뚱한 음

식을 통한 경우와 뱀술 등을 통한 경우로 나누었다. 주인공이 준 엉뚱한 음식을 먹고 치유되는 내용은 재미와 웃음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크다. 뱀술 등의 경우 [문둥병+치유]에서 뱀 종류를 통한 치유와 유사하지만 문둥이의 행운에 의한 치유와는 달리 치유자의 선행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은으로까지 이어진다.

넷째, [결연+문둥병+치유]의 과정은 열녀담이 대부분이다. 열녀 이야기는 치유 방법에 의해 다시 세 개의 하위 범주를 갖는다. 문둥이 신랑을 고치기 위해 살을 베어먹이는 할고의 내용, 신부가 죽으려고 타놓은 비상을 문둥이 신랑이 마시는 내용, 신부가 문둥이 신랑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특히 대리 장가 모티프와 결합되는 각편이 많은데 이는 가족과 신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열의식을 보다 강조한다. 또한 비상과 자살 모티프가 담긴 각편은 조선 중기 이후 열녀의 개념이 평생 수절하며 사는 것에서 남편을 따라 죽는 것으로 변이된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문둥이담 중 열녀 이야기 각편의 전승 시기의 선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결연+문둥병+치유]의 구조에서는 치유자는 부인으로 명확하나 부인이 병이 나은 남편으로부터 특별히 보상받는 경우는 없다. 자기 자식을 죽이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는 부인의 희생은 열녀라는 이름 앞에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결연+문둥병+치유+보은]의 구조에 해당하는 설화가 바로 문둥이 처녀담이다. 문둥이 처녀담은 이상에서 살펴본 문둥이담의 네 가지 주요 모티프를 모두 충족함으로써 뚜렷한 존재성을 가지며 문둥이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는다. 문둥이 처녀가 등장하는 각편은 총 13편이지만, 이중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12편의 각편을 통해 문둥이 처녀담의 특성을 살펴본다.

문둥이 처녀담은 대체적으로 [A 남자 주인공의 소개], [B 부자 여자와의 만남과 결연], [C 문둥이 처녀와의 만남과 결연], [D 문둥이 처녀와의 절연 위기], [E 문둥이 처녀와의 결연 지속], [F 문둥이 처녀의 보은 1], [G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계기], [H 문둥이 처녀의 치유 과정], [I 문둥이 처녀의 보은 2], [J 문둥이 처녀의 가족 상봉], [K 문둥이 처녀 가족의 보은] 의 서사 단락을 갖는다. A-B-C-D-E 문둥이 처녀와 남자의 만남과 결연에 관한 결연담으로, G-H 문둥이 처녀의 치유에 대한 치유담으로, F-J-K 문둥이 처녀 및 가족의 보은을 보은담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문둥이 처녀담은 결핍된 상황에 처한 남자 주인공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남자의 결핍은 가난함, 미천함, 미혼의 순서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가난함이 가장 주된 결핍 요인이며 미천한 신분은 미혼이라는 결핍 요소를 종속시킨다.

서사단락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둥이 처녀와의 절연 위기 극복 단락이다. 문둥이임을 알고 결연을 파기하려던 남자 주인공이 절연 위기를 극복하는 여부에 따라 내용은 전체적으로 양분된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고 결연이 지속되는 각편은 남자 주인공이 이동성이 많은 직업을 가졌다. 이동이 잦아보니 업무차 서울에 올라왔고, 밤길에서 우연히 문둥이 처녀를 만난다.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한양에서 문둥이 처녀를 만나느니만큼 문둥이 처녀는 높은 신분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각편에서는 개가 모티프가 등장한다. 재산이 많다면 개가하는 여인도 개의치 않는다는 가치관을 드러낼 뿐더러, 차후 동일한 방식으로 만나는 문둥이 처녀와의 결연에 타당성을 제공한다.

문둥이임을 알고 버리려 하나 만남은 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 곳 없는 문둥이 처녀의 딱한 처지를 강화시켜 남자는 문둥이 처녀를 직접 구

홀한다. 남자가 거처를 마련해주고 돌보아 주기 때문에 문둥이 처녀의 치유는 남자나 남자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본부인의 개입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열의식의 발로이자 여무(女巫)로의 무속적 개입으로 설명된다.

문둥이 처녀담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치유 음식인 물고기는 외부 출입이 가능한 남자가 잡아오기 때문에 결연이 지속되는 경우만 등장한다. 물고기의 경우 일상적인 음식일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과정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고기라는 설명이 부가되거나 장어나 가물치처럼 뱀을 대신하는 종류로 설정되면서 신이함과 상징성을 획득한다. 아울러 경상·전라 지역에서 전승되는 각편에만 물고기가 등장하고 있어 문둥이담과 지역성의 관계도 추측 가능하다.

치유 과정에는 다른 문둥이담과 공통적으로 골방이나 병막같은 외떨어진 곳을 배경으로 죽음과도 같은 잠, 벌레, 허물 등이 등장한다. 벌레를 쫓는다는 것에서 문둥병을 가치 판단의 범주에서 보았던 당대인의 사고를 알 수 있으며, 잠과 허물은 모두 유사 죽음과 부활이라는 통과제의적 의미를 갖는다.

병이 나은 문둥이 처녀는 적극적인 탐색을 거쳐 가족과 상봉한다. 문둥이 처녀의 집안은 지체 높으며 부유한 신분이기 때문에 결연담에서 제시되었던 남자 주인공의 모든 결핍 요소를 완전히 해소시켜준다. 가난함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결핍인 만큼 남자의 입장에서는 치부담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둥이 처녀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결핍 요소였던 문둥병을 해소시켜준 것에 대한 보은의 틀을 차용한다. 문둥이 처녀의 가족이 개입하기 때문에 치유자를 향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보은이 이루어지며, 과거 부정 응시나 뇌물 등의 부정적인 방법도 불사한다. 이로 인해 근대적인 자

본주의 경제관이 도입되고 중세 성리학적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반면 둘째, 문둥이 처녀와 결연한 뒤 홀로 버려둔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이동성이 적으며 문둥이 처녀가 은거하고 있는 병막에서 만남을 갖는다. 문둥이 처녀는 자신이 거처할 곳이 존재하며 가족들의 보살핌도 끊기지 않았다. 때문에 문둥이 처녀는 홀로 남겨진다.

산중 병막에 문둥이 처녀 홀로 지내기 때문에 병을 치유하는 음식도 문둥이 처녀의 운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대체적으로 남자를 기다리며 담근 술에 뱀이 빠진 것으로 나타난다.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을 상징하는 동물이므로 문둥병 치유 과정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상징이다. 게다가 의서(醫書)에 문둥병에 대한 뱀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어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중국에서도 문둥병에 뱀과 뱀술이 효험을 발휘한다는 기록과 풍속이 전해지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영향관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족과의 인연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문둥이 처녀와 가족과의 상봉과 가족에 의한 보은 양상은 전자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행된다.

결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후자의 경우 해당 각편의 수가 적으며 예외적인 각편이 존재한다. 따라서 결연이 지속되는 전자의 경우가 보다 강력한 응집력을 갖고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둥이 처녀담의 강력한 전승력과 향유는 소설이라는 장르에까지 이어진다. 「여선담전」은 문둥이 처녀가 등장하는 국문 소설로 이수봉의 소개 이후 본격적인 논의는 처음이다. 「여선담전」과 유사한 각편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술래군의 횡재>를 비교한 결과 「여선담전」은 결연과 치

유, 보은의 세 부분 모두에서 문둥이 처녀담과 거의 동일한 구조와 주제 의식은 물론 직업이나 배경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선담전」의 주목할 만한 특성은 설화로서의 문둥이담이 통과예적 성격이 강조했음에 반해 소설 「여선담전」은 치부 양상이 강조되는 보은담을 중심으로 서술된다는 점이다. 결연담과 치유담에서 남자 주인공 여선담의 착한 성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이는 보은담의 괄목할 만한 확장과 맞물린다. 결연담 부분에서 보다 뚜렷하게 등장하는 개가 모티프도 같은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여선담전」의 보은담은 작품의 2/3에 해당하는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부각된다. 치부는 여선담의 본처와 후첩인 문둥이 처녀와의 위계가 역전될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개가녀와의 혼인도 재산만 많다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으로 비춰진다. 문둥이 처녀담의 각편에서처럼 여선담 역시 과거 답안을 시관인 문둥이 처녀의 친절에서 미리 작성해주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미천한 신분을 벗는다. 여선담은 여씨 시조로까지 지위가 상승된다. 당대 독자층의 열망이 신화시대의 시조담이 갖는 고귀한 태생보다는 재산 증식에 치중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당대 독자층이 열망에서 중세 후기에 싹트기 시작한 근대 자본주의적 경제관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둥이 처녀담과 「여선담전」의 주제 의식은 단순한 횡재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닌 선행과 보은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가족들마저도 인연을 끊는 문둥이 처녀와의 신의를 지키고 구휼하는 남자 주인공의 착한 심성이 있기에 치부와 출세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문둥이 처녀담은 비록 지금까지는 한 번도 다루어지

지 않은 생소한 유형의 설화이지만 불치병의 치유와, 남녀의 결연과 절연 위기, 치부를 통한 보은이라는 흥미롭고도 뚜렷한 인과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둥이 처녀담을 위시한 문둥이담은 당대의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며 향유되어온 설화이다. 문둥병의 치유를 중심으로 각편들마다 뚜렷한 지향성을 갖는 문둥이담은 보은담을 중심으로 소설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소설화를 통해 문둥이담이 장르를 넘나들며 꾸준히 전승되었다는 것은 문둥이담의 주제 의식이 당대 사회상과 민중들의 가치관을 적절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자료

- 『국역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민족문화추진회, 1995.
- 『동의보감 1-3권』, 허준, 조현영 역, 여강출판사, 2005.
- 『여선담전』
- 『역주 경국대전(번역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역사연구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한국고전문학전집 민속극 편』, 전경옥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한국문화상징사전』,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199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 참고 문헌

- 김대숙, 「구비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 김열규, 「신화와 동굴, 그 상징적 원형성」, 『문학과 비평』 제1권 3호, 탑출판사, 1987.
- 김재환, 「조선조 후기소설에 나타난 신분동향」, 『동의어문논집』 2권, 동의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86.
- 김현실, 「우부현처 모티브의 서사적 변모와 의미」, 『어문연구』 87집, 어문연구학회, 1995.
- 박정수, 『우부현녀형 설화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1995.
- 박희병, 『조선 후기 전(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 신동훈,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산과 신분의 관계」, 『한국문화』 15집, 1994.
- 신동원, 『조선 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 신문사, 1999.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5.
- 오수형, 『유종원 시선』, 문이재, 2002.
- 우찬제, 『韓國敍事文學에 나타난 '돈'의 이미지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이광미, 「이조후기 한문단편에 나타난 여인상」, 『태능어문 3집』, 서울여자대학교 국문학과, 1986.
- 이수영, 『조선후기 야담연구 - 치부담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이준구, 「18·9세기 신분제 변동 추세와 身分 지속성의 경향」, 『한국문화』

- 19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 이현숙, 「몸, 질병, 권력 :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6집, 2003.
- 이수봉, 「여선담전」외 작품 해제 및 원문, 고소설 연구 제10집, 2000.
- 이수봉, 「고소설 단편집 『여선담전』 연구(1)」, 『이상택 교수 화갑 기념 논총 -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上)』, 집문당, 1998.
- 이옥경, 『조선시대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5.
- 이인경, 「‘改嫁烈女談’에 나타난 烈과 貞節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6집, 1998.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 장진숙, 『조선후기 야담집 소재 치부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정근식, 「동아시아 한센병사 연구를 위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12집, 2002년.
- 정명기,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사, 1996.
- 조희웅, 『한국 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 최기숙, 「‘돈’의 표상성:18·19세기 경제 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국제어문』 29집, 국제어문학회, 2003.
- 엘리아데, 이윤기 역, 『샤머니즘』, 까치, 2001
- 제프리 리처즈, 유희수/조명동 역, 『중세의 소외집단』, 느티나무, 2003.
- 쥘제프 베디에, 이형식 역, 『트리스탄과 이즈』, 궁리, 2002.
- 프랜시스 바커 외, 이정린 역, 『식인문화의 풍속사』, 이룸, 2005.
- 프레이저, 장병길 역, 『황금가지 1』, 삼성출판사, 1994.

프레이저, 장병길 역, 『황금가지 2』, 삼성출판사, 1994.

프레더릭 F.카트라이트, 김훈 역, 『질병의 역사』, 가람기획, 2004.

한스 아스케나시, 한기찬 역, 『식인문화의 수수께끼』, 청하, 1995.

헨리 지거리스트, 이희원 역,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몸과마음, 2005.

Leprosy in the Bible, Stanley George Browne,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1970. (※ 손양원 선교회 홈페이지에 발췌 번역본 소개 / <http://www.churchnet-kr.org/seongsan/>)

ABSTRACT

A Study on A Maid Leper Tale

Lee, Eun Woo
Dept. of Korea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Until modern times, leprosy had been incurable, damaging the body. Hence, lepers had been equated with alienated and contemptuous people, regardless of East and West. This study was the first attempt to discuss a maid leper tale borrowing such an intense symbolism from lepers.

To this end, the researcher reviewed 'The Legendary Traditional Literature Collection' and thereby, identified about 60 tales about lepers and then,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four motives: leprosy, treatment of leprosy, affiliation between leper and curer and leper's requital. Thereup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historical and medical literature during Chosun dynasty when leprosy began to be perceived as an independent disease, and thereby, determined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disease and its effects on leper tales. The Maid Leper Tale possesses the core structures of leper's tales evenly just beyond the sexual discrimination, while showing some

unique theme different from other tales.

In that tale, a poor male character happens to meet a maid leper, and affiliates himself with her and cures her. The maid recovered from her disease meets her separated family members and repays the male character by helping him enhance his social and economic status only to relieve him of poverty. Such epic paragraphs consists of three parts: affiliation, treatment and requital. Those paragraphs are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to unfold the story centering about surmounting of a disaffiliation crisis.

The male character does a good conduct for the maid, and as a result, the maid is recovered from the disease, and his status rises. The tale metaphors the important values of Chosun dynasty or vertical upward rising of status and wealth.

Anyway, The Maid Leper Tale has been vital enough to be handed down orally, which could be proved by the Korean language novel 'Yeosundam Story'. Unlike The Maid Leper Tale focused on treatment of leprosy, this novel is centered about requital, which seems to have reflected the contemporary readers' wish for wealth in the process shifting from tale to novel.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maid leper story, each leper story was examined in terms of its literary implications and potential for novel.

감사의 글

9년간의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시간을 드디어 매듭을 짓습니다. 비록 자다가도 부끄러워 벌떡 일어날 법한 논문이지만 선생님과 선배님, 그리고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게으르고 부족함이 많은 제자를 두어 곱절 이상의 공력을 들이셔야 했던 심치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을 한 없는 관대함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오류와 혼돈을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을 만큼 명쾌하게 바로잡아주신 강혜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교 시절부터 선생님께 끼쳐드린 폐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값어치조차 가늠할 줄 모르는 우둔한 저에게 「여선담전」을 비롯한 자료와 가르침을 주신 정명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의 섬세한 가공이 논의에 앞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 후배에 대한 관용으로 이끌어 주신 윤경 언니, 나영 언니, 혜정 언니, 희경 언니께 감사드립니다. 의문날 때마다 전화를 드려 귀찮게 헤드렸던 윤경 언니와 악역을 도맡으셨야 했던 혜정 언니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합니다.

조교 때부터 같은 살림을 꾸리다 논문을 위한 합숙까지 함께 했던 동반자 지선이, 무심한 나를 언제나 먼저 챙겨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나의 친구 연경이, 사소하고 심드렁한 일상을 언제나 즐거움으로 바꿔준 애완인 운주, 귀찮았을 법도 하건만 모든 번덕과 투정을 유쾌하고 사려 깊게 받아준 도현 언니, 무심한 듯 하면서도 애정이 묻어나는 수정이 등 인문대 조교 식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연경이와 병숙이, 양호 및 구라파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학부 때부터 함께 했던 그녀들이 아니면 밥도 혼자 먹으려 다녔을 것입니다. 심지 굳은 애정으로 격려해준 승하에 대한 감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n die ferne Geliebte. 한 순간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은 적이 없는 윤언니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당근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튼실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모든 시간이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나의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백 살까지 살며 아침저녁으로 빼먹지 않고 고마워해도 모자란 분이 바로 엄마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하는 나의 엄마 덕분입니다.

<문둥이담 분포도>

| 번호 | 분류 | 권 1 | 권 2 | 쪽 | 지역 1 | 지역 2 | 성별 | 제목 | 유형번호 | 유형항목 |
|----|-------|-----|-----|-----|------|------|----|--------------------|-----------------|-------------------------------------------|
| 1 | 3.1.1 | 1 | 7 | 534 | 경기 | 용인군 | 여 | 문둥이 (1) | | 누락 |
| 2 | 3.1.1 | 1 | 9 | 217 | 경기 | 용인군 | 여 | 문둥이 (2) | | 누락 |
| 3 | 3.1.1 | 7 | 6 | 360 | 경북 | 상주군 | 여 | 문둥이에게 잡혀 간 아들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4 | 3.1.1 | 5 | 2 | 88 | 전북 | 전주시 | 여 | 문둥이의 약속 지킨 효자 | 413-9 | 하늘이 아는 효성(효성으로 이적이 일어남, 그밖의 여러가지 이야기) |
| 5 | 3.1.2 | 5 | 3 | 37 | 전북 | 부안군 | 여 | 이무기 먹고 나온 나병 환자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6 | 3.1.2 | 5 | 3 | 696 | 전북 | 부안군 | 남 | 천년 묵은 지렁이 먹고 병이 낫다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7 | 3.1.2 | 1 | 9 | 534 | 경기 | 강화군 | 남 | 만병통치의 백사주 | 714-3 | 우연히 만든(얼은) 약으로 사람 살리기 |
| 8 | 3.1.2 | 6 | 3 | 84 | 전남 | 화순군 | 남 | 문둥병에 얽힌 우정 | | 누락 |
| 9 | 3.1.2 | 2 | 9 | 116 | 강원 | 영월군 | 남 | 세조의 문둥병 고쳐준 문수보살 | 643-14 211-8 | 자손에게 해 입힌 사람 혼내준 신령(단종어머니의 경우)/ 병을 낫게한 신령 |
| 10 | 3.1.2 | 3 | 2 | 60 | 충북 | 영동군 | 남 | 세조 문둥병 고친 탈골암 | 211-8 | 병을 낫게한 신령 |
| 11 | 3.1.2 | 5 | 4 | 86 | 전북 | 군산시 | 남 | 팔자 고친 건달 | 714-3 | 우연히 만든(얼은) 약으로 사람 살리기 |
| 12 | 3.1.3 | 8 | 9 | 202 | 경남 | 김해 | 여 | 때로 풍병 고친 이야기 | 234-3 | 모르면서 명의 노릇 |

| | | | | | | | | | | |
|----|-------|---|----|-----|----|-----|---|------------------------|-----------------|-------------------------------------------|
| 13 | 3.1.3 | 3 | 2 | 89 | 충북 | 청주시 | 남 | 나병 환자의 벼슬 | 711-1, 732-9 | 사위 뽑는 시험에 들기(속임수로 성공한다)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14 | 3.1.3 | 2 | 2 | 602 | 강원 | 춘성군 | 남 | 뱀술 먹고 문둥병 고친 이야기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15 | 3.1.3 | 6 | 8 | 225 | 전남 | 승주군 | 남 | 나환자의 은인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16 | 3.1.4 | 2 | 9 | 103 | 강원 | 횡성군 | 남 | 문둥이 남편을 살린 종의 딸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17 | 3.1.4 | 4 | 2 | 435 | 충남 | 대덕군 | 여 | 아내가 타놓은 비상을 마시고 소생한 남편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18 | 3.1.4 | 6 | 2 | 68 | 전남 | 신안군 | 남 | 비상으로 문둥병 고친 신부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19 | 3.1.4 | 6 | 5 | 240 | 전남 | 해남군 | 여 | 문둥이의 아내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0 | 3.1.4 | 3 | 2 | 45 | 충북 | 청주시 | 남 | 남편의 문둥병 고친 효부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1 | 3.1.4 | 4 | 2 | 527 | 충남 | 대덕군 | 여 | 아내가 타놓은 비상을 마시고 소생한 남편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2 | 3.1.4 | 5 | 3 | 38 | 전북 | 부안군 | 남 | 양반 딸 덕으로 병 고친 종의 아들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3 | 3.1.4 | 7 | 12 | 175 | 경북 | 성주군 | 여 | 남편의 풍병 고친 아내의 성심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4 | 3.1.4 | 4 | 3 | 292 | 충남 | 아산군 | 남 | 대신 장가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5 | 3.1.4 | 2 | 7 | 560 | 강원 | 영월군 | 남 | 대신 장가가기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6 | 3.1.4 | 8 | 5 | 825 | 경남 | 거제군 | 남 | 전라도 이방과 대구 이방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 | | | | | | | | | |
|----|-------|---|----|-----|----|-----|---|--------------------|--------|--------------------------------------------------------|
| 27 | 3.1.4 | 6 | 9 | 509 | 전남 | 화순군 | 남 | 비상 먹고 살아나다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8 | 3.1.4 | 8 | 13 | 292 | 경남 | 울주군 | 여 | 효성 끝에 복 받은 세째 딸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29 | 3.1.4 | 7 | 6 | 353 | 경북 | 영덕군 | 여 | 산 열녀각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0 | 3.1.4 | 6 | 8 | 351 | 전남 | 장성군 | 남 | 국고금으로 죽을 아버지 살린 아들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1 | 3.1.4 | 7 | 6 | 556 | 경북 | 상주군 | 여 | 문둥이 남편 병 고친 열녀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2 | 3.1.4 | 7 | 8 | 166 | 경북 | 군위 | 여 | 남편의 풍병 고친 열녀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3 | 3.1.4 | 8 | 1 | 715 | 경남 | 밀양군 | 여 |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열녀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4 | 3.1.4 | 6 | 8 | 423 | 전남 | 보성군 | 남 | 남편의 병을 낮게 한 열녀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5 | 3.1.4 | 7 | 3 | 340 | 경북 | 월성군 | 남 |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괘씨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6 | 3.1.4 | 2 | 4 | 129 | 강원 | 속초시 | 남 | 남편 문둥병 고친 열녀 괘씨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7 | 3.1.4 | 7 | 2 | 92 | 경북 | 월성군 | 남 | 문둥병을 치료한 열녀 | 413-10 | 자기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 |
| 38 | 3.1.4 | 8 | 9 | 30 | 경남 | 김해시 | 남 | 나병 환자와 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낳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39 | 3.1.4 | 7 | 2 | 238 | 경북 | 월성군 | 여 |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낳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 | | | | | | | | | |
|----|----------------|---|----|-----|----|-----|---|--------------------------------|-------|------------------------------------------------------------------|
| 40 | 3.1.4 | 8 | 1 | 91 | 경남 | 거창군 | 여 | 문둥병 걸린 신랑 살린 김정승 딸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 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남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41 | 3.1.4 | 7 | 5 | 303 | 경북 | 상주군 | 여 | 문둥이 신랑 섬긴 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 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남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42 | 3.1.4 | 6 | 7 | 660 | 전남 | 진도군 | 남 | 남편의 나병을 고 쳐주고 목매어 죽 은 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 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남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43 | 3.1.4 | 6 | 7 | 710 | 전남 | 함평군 | 남 | 남편의 나병 고치 고 자살한 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 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남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44 | 3.1.4 | 8 | 1 | 327 | 경남 | 밀양군 | 남 | 개가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 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남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45 | 3.1.4 | 5 | 5 | | 전북 | 정주시 | 남 | 이부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 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남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46 | 3.1.4 | 8 | 14 | 49 | 경남 | 하동군 | 남 | 곽씨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 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남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47 | 3.1.4 | 7 | 6 | 674 | 경북 | 대구 | 여 | 남편 병고친 열녀 | 433-6 | 자식 죽여서 남편 받 들기(희생열 이야기) (다른 남자와 관계해 남은 자식 죽여 남편 구하기) |
| 48 | 문둥 이치 녀담 | 7 | 3 | 340 | 경북 | 영덕군 | 남 | 문둥병 고친 이야 기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49 | 문둥 이치 녀담 | 1 | 1 | 710 | 서울 | 도봉구 | 남 | 적선으로 얻은 문 둥이 처녀 | 231-4 | 이인으로 바뀐 못난 친척 |

| | | | | | | | | | | |
|----|---------|---|----|------|----|-----|---|-------------------|-------|----------------------|
| 50 | 문둥이 처녀담 | 4 | 5 | 132 | 충남 | 부여군 | 남 | 태모시 장수의 기연 | 715-3 | 지나가다 만난 남녀 인연 맺고 잘되기 |
| 51 | 문둥이 처녀담 | 6 | 2 | 540 | 전남 | 장성군 | 남 | 문둥병 처녀 낮게 한 총각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52 | 문둥이 처녀담 | 6 | 4 | 670 | 전남 | 함평군 | 남 | 양 마부와 문둥이 각시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53 | 문둥이 처녀담 | 6 | 8 | 866 | 전남 | 고흥군 | 남 |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54 | 문둥이 처녀담 | 6 | 12 | 198 | 전남 | 장성군 | 여 | 인덕으로 부자되다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55 | 문둥이 처녀담 | 7 | 12 | 177 | 경북 | 월성군 | 남 | 정급자 부자의 행운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56 | 문둥이 처녀담 | 7 | 13 | 354 | 경북 | 영덕군 | 여 | 술래꾼의 황재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57 | 문둥이 처녀담 | 8 | 5 | 258 | 경남 | 거제군 | 남 | 과거군과 문둥이 처녀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58 | 문둥이 처녀담 | 8 | 8 | 190 | 경남 | 김해군 | 남 | 선비와 나병 처녀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
| 59 | 문둥이 처녀담 | 8 | 9 | 1166 | 경남 | 거창군 | 남 | 처복이 있어 팔판서 둔 선비 | 715-3 | 지나가다 만난 남녀 인연 맺고 잘되기 |
| 60 | 3.1.4 | 7 | 8 | 166 | 경북 | 군위 | 여 | 인두골 천연수로 풍병 고친 부녀 | 732-9 | 영똥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